

동아시아아나키즘, 그반역의역사

조세현

의사상가운데신세기파의영향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난것은교육을통해아나키즘사회를실현한다는혁명방법이다. 그는신문·잡지·소설·화보등을이용한노동자교육을강조했고, 노동자들의교육수준이향상되어노동조합의건설로발전하기를희망했다. 노동운동에대한그의방침은“단체를조직하고, 지식을향상한다”는간단한표어로정리할수있다. 스푸는아나르코생디칼리즘을받아들인다. 그는아나르코코뮤니즘을실현하기위한한가지방법으로생디칼리즘을수용한다고설명하지만, 아나키즘과생디칼리즘의결합은나름대로스푸아나키즘의특색을보여준다. 실제로 1915년 3월폐병으로사망할때까지그는각종노동조합을조직하는데가장큰정성을쏟았다.

스푸가병원에입원했을때의사는치료를위해그에게육류와계란우유등을많이섭취할것을권했다고한다. 그러나심사의규약을위반하지않기위해스푸는끝까지채식주의를고집했다. 또한치료비가부족해제자들이인쇄기를팔아서돈을마련하려하자이를완강히거부했기에병세가더악화되었다고도한다. 스푸는자신리아나키즘과함께중국의황토에매장될뿐이라는말을남기고 31세의나이에죽었다. 그의시신은저장성시후주변에매장했으며, 묘비에‘스푸묘’라는세글자와함께에스페란토어로그의생애를기록했다. 스푸와한때논쟁을벌였던우즈후이는그의사망소식을듣고, “스푸선생이있음으로써중국아나키즘의실현이수백년앞당겨졌으나, 다시그의죽음으로말미암아아나키즘의실현은요원해졌다”며크게슬퍼했다.

스푸는전형적인배만혁명가에서출발해반강권주의를주장하는데러리스트가되었다. 그리고다시도덕혁명을주장하던‘심사’시기를거쳐최종적으로는‘민성사’를중심으로아나르코코뮤니즘의이론을전파하고아나르코생디칼리즘을실현하기위해분투하다가생을마감했다. 마지막시기에는도덕과문화문제에큰관심을기울이지않았지만, 여전히철저하게심사의규약을준수했다. 스푸는「신세기」를통해아나키즘을이해했으나말년에노동조합운동에몰두하면서신세기파와차이를보인다. 비록그의사상에독창적인관점이많지는않으나, 「신세기」의아나키즘을선전하면서조금은새롭게해석한측면이있다. 훗날제자들은그의사상을스푸주의라고불렀다.

스푸의생애를보면당시아나키즘의세계적인흐름을읽을수있다. 19세기말유럽을휩쓴암살풍조가식되하고, 20세기를전후해서는크로포트킨의아나르코코뮤니즘이주류를형성했다. 그리고얼마후다시아나키즘이노동자들에게전파되면서아나르코생디칼리즘이세력을얻는데, 이것이시간간격을두고차례로중국에들어와영향을미쳤다. 스푸는바로이시기에살았던인물로, 이런조류의변화를골고루체험해보여준것이다. 덧붙이자면, 제 1차세계대전에참전하는문제를두고유럽의아나키스트들이반전파와연합국지지파로분열했을때, 신세기파와스푸는연합국을

2008년 2월 25일

차례

책을쓰게된동기	3
들어가는말	5
제 1 장일본: 천황제와군국주의에대한비판그리고노동운동	9
제 2 장중국: 군주제와군벌정부에대한저항그리고신문화운동	29
제 3 장한국: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아나키즘	49
제 4 장아나·불논쟁과아나키스트운동의쇠퇴	66
맺는말	74
더읽어야할자료들	76

결국스푸는 1913 년 8 월광저우에서 「회명록晦鳴錄」(일명‘평민의 소리’라고도부른다) 이라는잡지를펴낸다. 3 호부터는제목을 「민성民聲」으로바꾸어사회혁명과세계대동을주장했다. 이잡지는중국어와에스페란토어두부분으로구성되었는데, 한편으로는국제아나키스트운동의흐름을소개하고, 다른한편으로는민국초기에유행하던사이비사회주의이론을비판했다. 이때부터보통회명학사를민성사라고부르는데, 위안스카이정부의탄압이계속되자마카오나상하이등지로출판장소를계속옮겨다녔다. 스푸가제 1 세대아나키스트인신세기파와결정적으로다른점은아나키즘의원칙을충실하고수해공화정부자체를부정했다는것이다. 그는어떤정치권력과도타협하지않았으며, 오직순수한사회혁명만을추구했다.

스푸는 「민성」에서아나키즘과다른사회주의의차이점은무엇인가, 아나키즘사회혁명의수단과방법은무엇인가라는문제에답하기위해애썼다. 첫째문제에서그는우선아나키즘과아나르코코뮤니즘의개념을규정한뒤, 마르크스적공산주의를권위주의적이라는관점에서비판했다. 뿐만아니라쑨원의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가운데주로민생주의가해당된다) 나장강후의삼무주의(무정부·무종교·무가정의의미한다) 는물론중국사회당원들이주장하던순수사회주의, 진정사회주의, 극단사회주의, 무치無治주의, 무정치주의와같은모호한사회주의개념도비판했다. 그의비판은어디까지나‘동류이파同類異派’의우호적인관점에서있었지만, 전통주의와아나키즘의결합과같은절충적관점에대해서는가차없이비판했다. 스푸의아나키즘은한마디로코포트킨주의였으며, 사회주의이론에대한그의이해는당시로서는가장수준높은것이였다.

스푸가제시한사회혁명의방법은 〈무정부공산당의목적과수단〉이라는글에나타나있다. 여기서그는첫째, 신문·서적·연설·학교등을통해우리의사상을일반평민에게전파하고……, 둘째, 선전시기에는상황에따라두가지수단을사용할수있는데, 하나는세금납부나병역을거부하든지파업을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암살과폭동과같은방법을사용하는것이다……, 셋째, 전파가성숙해지면대중봉기를일으켜정부와자본가를타도해현사회를전복시키는데, 이것이평민대혁명이다……, 넷째, 평민대혁명은곧세계대혁명으로각국의혁명당과연합해일국의범위를넘어서는것이다. 또한국제아나키스트연맹에보낸다른글에서는 1) 국제적조직결성, 2) 동아시아지역에서사상을전파, 3) 노동조합과같이행동할것, 4) 국제적인총파업, 5) 에스페란토어채용등을주장하고있다. 이처럼나름대로거창한얘기를하고있지만실제로는중국의현실을감안해주로사상을전파하는데주력했다. 또한그는아나키즘혁명을이야기하고있기는하지만중국의혁명에대해서는거의언급하지않고있다.⁵⁰

스푸는류스페이식아나키즘과달리반反복고주의경향을드러내는데, 이는신세기파의과학주의적아나키즘의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그

후반부에 「신세기」에 실렸던 리스쥬의 〈삼강혁명〉 전문을 재수록함으로써 자신 의견이 신세기파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부위부장, 부위자강, 군위신강의 삼강은 종교적 미신일 뿐이며, 인인인인의 평등, 부자평등, 남녀평등은 과학적 진리라는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정혁명, 성현혁명, 강상혁명 등을 제창한 것이다. 스푸는 신세기파의 문화혁명론을 대부분 받아들여 도덕계몽을 아나키즘혁명의 첫걸음으로 삼았다.

사실 아나키즘은 개인의 철저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급육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윤리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청말 민국 초의 중국은 자본주의보다 봉건적인 요소가 더 강한 사회였다. 따라서 당시의 아나키스트들은 봉건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과 윤리에 먼저 비판의 칼날을 높이 들었던 것이다. 심사의 규약은 이런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혁명 학사와 심사를 만든 후 약 1년 동안 스푸는 「신세기」 등에 연재된 여러 글들을 모아 출판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는 한쪽 팔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사 작성과 번역, 문장 수정과 활자 교열, 인쇄와 제본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거의 혼자서 감당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출판한 많은 서적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보냈고, 대부분 무료로 배포할 때 문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낳았다. 군벌 정부가 자주 명령을 내려 이런 책들의 유통을 막으려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1912~1913년에 스푸는 점점 현실 정치에 강한 회의와 불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는 당시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독재 정치뿐만 아니라 자칭 사회주의를 선전하던 쑨원의 국민당이나 장강후(江亢虎)의 중국사회당 노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스푸는 쑨원의 민생주의에 국가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쑨원이 말하는 국유화 정책을 사회주의라 한다면 청 왕조와 위안스카이 정부의 국유화 정책도 사회주의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장강후의 중국사회당에 대해서도, “당의 강령이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 정책 등 여러 주장이 개량적인 사회 정책만 못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국가 권력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스푸가 가장 존경하던 신세기파의 우즈후이나 천의파의 장지화 정치 활동에 참여한 일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는 우즈후와 장지에게 편지를 보내 현실 정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 정치 참여를 둘러싼 신논쟁이 일어났다. 스푸는 이들의 정치 참여가 “아나키즘을 위해 통곡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즈음 개인의 도덕 계몽만으로는 아나키즘이 사회에 이를 수 없으며, 아나키즘 원리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책을 쓰게 된 동기

언어 학자이면서 아나키스트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아무도 아나키즘 Anarchism이란 용어를 독점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하루하루 고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아나키즘’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줄까. 조금은 음울한 표정으로 역사의 급류를 헤쳐가야 하는 비운의 운명을 안고 살아간 극소수의 지식인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인식하게 된 데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 無政府主義’라는 다소 과격한 말로 번역한 것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아나키즘이 정부나 국가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정부주의라는 말은 아나키즘의 한 가지 특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심지어 어떤 극소수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 속에 과연 ‘무정부’ 같은 요소가 들어있는지조차 의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나키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아나키즘은 여러 가지 사상이 복잡하게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체계로 쉽게 정리할 수는 없다. 심지어 어떤 연구자는 아나키즘을 이론 이전에 신념과 감정의 대상으로 연구해야 할 특수한 사상이라고까지 한다. 그래서인지 역사상 많은 아나키스트나 연구자들이 아나키즘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대답은 없다. 아나키즘이라는 빛의 파장이 이렇게 넓은 것이라면, 차가운 쇠소리를 내며 달리는 전철을 타고 가다 문득 대기업과 국가 권력의 힘에 대해 알 수 없는 저항감을 느끼는 우리들 모두가 아나키스트는 아닐까. 어쩌면 아나키즘이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자유에 대한 열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내가 동아시아의 아나키즘을 쓰게 된 것은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극적인 삶을 알아보고 싶은 충동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아나키즘에 처음 흥미를 느끼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나의 양심은 나의 것이고, 나의 정의는 나의 것이고, 나의 자유는 최고의 자유”라고 선언했던 역설의 명수 푸르동(Pierre-Joseph Proudhon), 자유에 대한 열정을 안고 “파괴는 새로운 창조”라면서 바리케이드 위에서 반역을 꿈꾸던 바쿠닌(Mikhail Alexandrovich Bakunin), 민중은 “권력에 쉽게 굴복하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숭배하지는 않는다.”며 민중을 무한히 신뢰하고 사랑했던 크로포트킨(Pyotr Alexeyevich Kropotkin)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양 아나키스트들의 삶은 한결같이 매우 열정적이다. 이런 모습을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에게서도 찾아 그것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사형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동료를 먼저 걱정했던 고토쿠슈스이(幸徳秋水), 폐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식이 인간의 폭력성을 부추긴다고 믿어 채식을 고집하다 절명한 스푸(師復), 일제의 침략에 맞서 비타협적인 행동으로 일관하다 형무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 간신채호(申采浩) 등이 그러한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아나키스트 개인의 인간적인 매력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그들이 추구한 사상과 행동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짚어보고 싶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중국 근대 아나키즘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나키즘이 결코 시대의 이단이나 나라당시 역사적으로 요구된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나 한인 아나키스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앞서 언급한 고토쿠슈스이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스푸의 전통에 대한 비판, 신채호의 민족독립을 위한 민중해방의 논리 등은 모두 아나키즘에 뿌리를 둔 사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동아시아 근대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과 맞닿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아시아 사회에 아나키즘이 수용되어 한때 광범위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나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사회 내부의 절박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나키즘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미를 헤아리는 것이 이 글의 마지막 목적이다.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를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에 비유하곤 하지만 실제 아나키스트들은 대체로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름 없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헌신적이며 용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낙천적인 삶의 이면에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날카로운 성찰도 담겨 있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권력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 혼란한 현재의 우리들에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가르쳐 준다. 뿐만 아니라 아나키즘은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냉전 체제의 해체와 전 세계의 자본주의화는 우리에게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인종과 지역을 넘어선 아나키즘의 국제적 연대 정신은 재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일본·중국·한국의 아나키즘에 대한 과거의 연구는 주로 민족이나 국가의 틀에 제한해 그 운동을 정리함으로써 아나키스트의 국제주의를 이해하기에 무척 곤란한 점이 많았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동아시아라는 좀 더 넓은 범주를 가지고 아나키스트 운동을 비교, 정리해 아나키즘을 실감나게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막상 글을 맺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가령, 아나키즘 운동이 왜 쇠퇴했는가는 문제는 무척 중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간략하게 다루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아나키스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들의 좌절의 과정을 반추함으로써 우리들의 삶과 역사에 대한

민족 국가의 이상을 완전히 버리고 철두철미한 아나키스트가 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인 듯하다.

신해혁명으로 청왕조가 전복되자 한동안 난관적인 정서가 지배했다. 아나키스트들 역시 잠시나마 새롭게 건립된 공화정부를 신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폭력 행위를 자제하고 개인 도덕의 수양을 통해 새로운 사회 도덕을 창출하려 애썼다. 1912년 2월 신세기파의 우즈후이, 리스펑, 추민이, 장징장 등은 차이위안페이, 장지등과 함께 진척화나육불회(六不會) 같은 도덕수양 단체를 조직했다. 스푸도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지지했고, 1912년 7월 진척회와 유사한 ‘심사(心社)’를 조직해 도덕계몽 운동에 동참했다. 아직까지 그는 갖태어난 공화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으며, 아나키즘 혁명 활동을 직접 실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회명학사와 심사는 중국 아나키스트 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표지였다. 두 단체는 활동 범위와 임무가 서로 달랐는데, 전자가 대외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면 후자는 개인의 도덕수양을 강조했다. 회명학사는 공산주의, 군국주의 반대, 공단(노동조합) 주의, 종교주의 반대, 가족주의 반대, 채식주의, 언어통일, 만국대동이라는 8가지 강령을 내세웠으며, 심사는 1) 육식을 하지 않는다, 2) 음주를 하지 않는다, 3) 흡연을 하지 않는다, 4) 용역을 부리지 않는다, 5) 가마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6) 결혼하지 않는다, 7) 족성(族姓)을 쓰지 않는다, 8) 관리가 되지 않는다, 9) 의원이 되지 않는다, 10)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다, 11) (해군과 육군 같은) 군인이 되지 않는다, 12)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12가지 규약을 정했다. 심사의 12 규약은 주로 개인의 도덕과 관련이 있고 회명학사는 사회혁명을 주장했지만, 종교와 가족을 반대하는 데는 일치했다. 회명학사의 강령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단주의’(생디칼리즘. 여기서는 아니르코생디칼리즘을 의미한다)와 ‘언어통일’(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두 가지 조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해혁명 후 얼마 동안 스푸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도덕 문제에 주력했다. 그의 도덕혁명론에 관한 내용 가운데 가족 문제를 다룬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자.

스푸는 청말기에 천의파와 신세기파와 마찬가지로 전제군주제와 봉건 문화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전통 질서의 지주인 가족에 주목하게 되었다. 심사를 성립할 무렵 발표한 〈가족주의를 폐지하자〉라는 건글을 보면 그가 가족의 해체에 관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스푸는 “중국의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일종의 암흑과 같은 감옥일 뿐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가족제도의 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혼인혁명과 족성혁명을 주장했다. “가족의 기원은 혼인에 있으며, 가족의 경계는 족성에 있다. 따라서 혼인을 폐지하면 가족제도의 근원을 끊을 수 있고, 족성을 폐지하면 가족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표리관계에 있다.” 그밖에도 강상명교에 대한 혁명 즉 삼강(三綱)혁명을 주장했다. 스푸는 〈가족주의를 폐지하자〉의

여전히 강렬한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당시 그가 감옥에서 쓴 글을 보면 류스페이와 유사한 국수주의자의 모습이 나타나 흥미롭다. 그는 불교의 교리, 제자학이나 문자학에 관심을 보였고, 유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송명리학(宋明理學)과 강유웨이(江有偉)의 공교론(孔敎論)을 비판하면서 서고대사상의 부흥을 기원했다. 이처럼 국수주의와 아나키즘 사이에 친밀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근대 중국의 독특한 정치문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출옥 후부터 신해혁명 전까지 스푸는 두 가지 활동을 펼쳤다. 하나는 「신세기」에서 선전하 아나키즘을 연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살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이다. 1910 년 봄, 그는 홍콩에서 지나 암살단을 조직했는데, 모든 강권에 반대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이 시기 그는 이미 중국 동맹회에서 이탈한 상태였으나, 완전히 아나키스트로 전향한 것도 아니었다. 1910 년 겨울 왕정웨이(汪精衛) 등이 청왕조의 섭정 왕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체포되자, 스푸는 이 계획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잠입하려 했다. 하지만 베이징 진입이 삼엄한 경비로 불가능해지자 잠시 계획을 연기하고 다시 광저우로 내려와 반청봉기를 준비한다. 1911 년 3 월에 일어난 광저우 봉기가 수군제독 리준의 진압으로 실패하자, 스푸는 리준을 테러해 암살하는데 성공했다. 같은 해 9 월에는 청왕조가 광저우에 파견한 만주족 장군도 암살했다. 그러나 우창 봉기가 일어나고 신해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전제정부가 전복되었다고 판단해 암살 활동을 중지했다. 그리고 1912 년 봄 암살단을 해체한 스푸는 아나키즘도 덕원리를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아나키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12 년 5 월, 스푸는 광저우에서 사회혁명을 선전하기 위해 '회명학사(晦鳴學舍: 회명은 시경 정풍편에 나오는 '비바람이 이렇게 어두워도 닭의 울음은 그치지 않는다'는 시구에서 따왔다고 한다)'를 조직했다. 여기에는 류스신(劉石心)·펑비안(鄭彼岸)·펑페이강(鄭佩剛) 등이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노동하고 학습하는 생활을 계속했고,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작업을 직업으로 인식했다. 이 단체는 중국에서 아나키즘을 전문적으로 선전한 최초의 단체다. “몇 년 전에 「신세기」에서 뿌린 종자가 (마침내) 회명학사를 통해 가꾸어지고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 후에도 스푸가 만든 상하이 무정부 공산주의 동지사를 비롯해 창수 무정부 전파사, 난징 무정부 토론회, 광저우 무정부 공산주의 동지사 등 아나키스트 단체가 잇달아 만들어졌다. 심지어 홍콩에도 대동사(大同社)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중국 아나키스트가 주도한 이발공회와 찻집공회 같은 노동 운동 단체들이 출현했다.

스푸의 본래 이름은 류샤오빈이다. 배만혁명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주족을 타도하고 광복을 생각한다는 뜻을 담아 류쓰푸(劉思復)라고 개명했다. 가성을 없애고 또 개명해 스푸(師復)라 불렀다. 아나키즘을 수용한 후 가족주의와 종족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성을 버리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성씨를 폐지하는 것은 중국 아나키스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해를 넓혀 보려 했던 필자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다소의 공감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소책자의 많은 내용들은 일일이 주를 달지는 않았으나 각 지역(특히 일본과 한국) 아나키즘 연구자의 연구 성과의 덕을 크게 보고 있다. 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글로는 고마츠류지(小松隆二, 일본), 곤도겐지(近藤憲二, 일본), 장준(蔣俊, 중국), Dirlik(미국), 사가다카시(嵯峨隆), 오장환(한국), 이호룡(한국) 등이 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몇 가지 관점들은 평소 필자가 아나키즘과 관련해 동학(同學)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도 적지 않다. 그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너그러운 이해를 도우려 한다. 더욱이 이 글이 빛을 보게 해 준 것은 책 세상에 편집부의 오랜 인내심 덕분 아닌가 싶다. 동학이나 선학(先學)들의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 가운데 나의 무지와 독단으로 말미암아 잘못 된 내용들이나 겸손하지 못한 주장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독자들의 도움으로 빠르시 일내에 고쳐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변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곳곳함을 잃지 않고 계시는 부모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린다.

들어가는 말

서양의 고전적 아나키즘은 19 세기 중반부터 20 세기 전반까지 구미(歐美) 사회에서 풍미했으며, 주로 과학과 진화, 이성 과 합리의 이름을 빌려서(혹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서) 강권적인 권위와 권력들 - 예를 들어, 국가나 정부, 종교나 교회, 군주나 부르주아, 또는 가부장제의 위계질서 등 - 을 비판하고 부정했다. 그들은 이런 권위와 권력들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공통의 색깔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고전적 아나키즘에 대해 그 비판자들은 이 사상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철저한 파괴만을 주장하면서 허무주의와 유사하다고 보았고, 이들이 암살 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들어 테러리즘과 동일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모든 권위를 부정한다는 점에 주목해 아나키즘은 한낱 유토피아 사상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은 아나키스트의 도덕적인 충동이나 건설에 대한 열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여러 정치파벌들이 흔히 채용하는 테러의 방법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책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어쩌면 아나키즘의 공상성 역시 그 사상이 현실 사회에서 충분히 실험되지 않았

다는 사실에 기초해 설명한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아나키스트들 내부에서조차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나키즘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들의 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긍정적인 요소들을 탐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닐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아나키스트는 마르크시스트, 볼셰비키, 마오이스트와 같은 사회주의의 여러 계파들과 함께 활동했으나 대부분 그들에게 억눌리고 그에게 해제거되었다. 왜냐하면 아나키즘이 비록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하나였지만 공산당과 같은 전위조직의 존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함으로써 공산주의자와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아나키스트의 일부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극소화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에 접근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은 현존하는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회의 근본모순을 뿌리 뽑으려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와도 어울릴 수 없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국민국가를 화두로 삼는 20세기 국제사회에서 정치운동으로서의 아나키즘은 보통 스페인 내전을 전후하여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다시금 아나키즘의 부활을 점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붕괴와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그리고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구도가 해체되고 제 3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나키즘의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 자주 논의되는 중앙집권주의에 대항하는 지방분권주의, 강권적 국가를 대체하는 지역공동체 추구, 대의제 민주주의를 불신하며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은 비록 아나키즘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과 무척 친근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 한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역시, 아나키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따지기에는 다소 모호할지라도 그 사유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나키즘이라는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아나키즘은 고전적 아나키즘과는 달리 그 범위가 넓어지고 다른 사회운동과의 결합도 서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아나키즘은 고전적 아나키즘에서 말하는 무정부나 노동조합과 같은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21세기 정보산업 사회에 걸맞은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는 아나키즘의 환경친화적인 특성에 주목해 이를 발전시켜 환경운동이나 생태공동체 운동을 펼치면서 에코아나키즘 Eco-Anarchism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냈다. 다른 일부는 첨단 기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도구의 확산이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 전세계 차원의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를 열망한다. 또 다른 아나키스트들은 기존의 학

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삼강·공자·여성문제들에서는 도쿄의 아나키스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⁴⁷

신세기파는 때마침 프랑스 아나키스트 운동의 전성기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천의 파에 비해 이론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래서 신해혁명 후에도 중국 아나키즘의 정통으로 자리잡아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했다. 물론 천의 파의 류스페이가 이른바 '변절' 문제에 연루되어 정치적으로 몰락한 반면, 신세기파의 우즈후이, 리스펑 등이 쑨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화민국 성립 후 중국 사회의 저명 인사로 된 것 역시 또 다른 원인인 것이다.⁴⁸

3. 중국 아나키스트의 초상 - 스푸

신해혁명은 청왕조의 몰락을 가져왔다. 청왕조의 몰락은 곧 신세기파가 말한 배향혁명의 성공과 공화정부의 등장을 의미했고, 결국 사회혁명의 과제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옛 신세기파의 구성원들은 곧바로 공화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지 않고, “민국(民國)을 건설하면서 아나키즘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진적인 길을 선택하고 쑨원의 국민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불관(不官)주의의 태도를 취했다. 대신 스스로 아나키스트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덕운동과 교육운동을 추진했다.⁴⁹ 그들이 이처럼 합법적인 사회운동에 열중할 무렵 「신세기」의 사상을 중국 본토에 보급하고 직접 실천에 옮긴 인물들이었으니, 그가 바로 스푸이다.

스푸는 일반적으로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전형적인 아나키스트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어린 시절 체계적으로 전통 교육을 받았으며, 1899년 15세 때 시험에 합격한 수재였다. 그러나 과거 제도를 혐오한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사회 활동에 참가한다. 1904년 일본에 유학해 이듬해에 중국 동맹회에 가입했는데, 이즈음 일본 아나키즘과 러시아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토쿠슈스의 저작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암살 활동에 매료되어 러시아인에게 폭탄 제조 기술을 배웠다. 1906년 중국 동맹회는 중국 현지의 봉기를 계획하자 광저우에 스푸를 파견해 그 준비 업무를 맡겼다. 그는 얼마 후 친구와 함께 광산에 여자 학교를 세워 여성 교육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907년에는 광저우에서 청왕조의 고위 관리 리준(李準)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폭탄을 제조하던 중 실수로 폭약이 터져 한쪽 팔을 잃는 큰 부상을 입고 체포되어 1909년까지 감옥에 수감되었다.

스푸는 감옥에서 불교 관련 저작과 「신세기」와 같은 아나키즘 잡지들을 읽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아나키즘에 흥미와 지식을 가지게 되었으나,

진화론사상은약자였던중국인의각성을요구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어, 곧바로제국주의론으로연결될여지는적었다. 오히려변법파뿐만아니라공화파혁명가들이이를받아들여민족의식의자각과분투를주장하는민족주의사조가등장한다. 하지만시간이 지나면서사회진화론은제국주의의침략에적절한대응방안을제시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 중국의위기는 스스로세계의대세에적응하지못한필연의산물이라는결론으로나아감으로써부정적인결과를낳았다. 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등장한것이바로상호부조론이다.

신세기파가받아들인상호부조론은본디스펜서의사회진화론을비판한진화론의수정이론으로, 자연계나인간사회에서적자생존의원리보다상호부조의원리가더욱중요한요소임을강조한다. 이학설은사회주의성격을띠고있어제국주의의위협에대항하는국제적민중연대라는반제의논리를제공했다. 따라서제국주의를비판하려는사람들에게는매력적인이론이었다. 상호부조론은중국의아나키스트들이중국주의감정에기초한민족주의혁명을넘어서군주제와제국주의문제에대한궁극적인해결책을제시하는데까지나아갈수있도록뒷받침해주었다. 이처럼중국에서는상호부조론이일본에비해더욱결정적인영향을발휘한듯하다.

「신세기」가선전한아나키즘사상, 즉크로포트킨의아나르코코뮤니즘은중국아나키즘을대략적으로보여준다. 사실근대중국의아나키스트운동이론은신세기파에서기원해그범위를크게넘지못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다음절에서소개할스푸가중국아나키스트의전형으로서나를대로독특한색깔을보여주는기는했지만, 그의아나키즘역시「신세기」에뿌리를두고있다. 이잡지에서리스쥬이주로서양의아나키즘이론을번역소개하거나가족·삼강·여성과같은문제에관심을기울였다면, 또다른이론가인우즈후이는주로과학주의와세계어를선전하고국수주의를공격했다. 특히우즈후이는비아냥거리는어투로논적을비판하는데탁월한재능을보였다.

여기서우리는천의파의‘평등’적세계관과신세기파의‘대동’적세계관사이에는아나키즘을해석하는방식에서근본적인의식의차이가존재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즉천의파의평등개념이전통적인평균의관념에서왔다면, 신세기파의대동개념은전통적세계관을역전시킨것이었다. 천의파의평등사회가전통시대도가의이상사회를모델로한것이라면, 신세기파의대동사회는근대적진화와진보관념에바탕을둔것으로다가올미래사회에건설될것이었다. 따라서천의파가국수와무정부를결합하려는반면, 신세기파는거꾸로‘옛것보다는지금울소중히여긴다’는기치아래철저하게국수주의에반대했다. 심지어그들은“중국문화의생사여부는국수를어떻게처분하느냐에달려있다”⁴⁶고선언했다. 이런태도는중국의한자를폐지하고에스페란토어로바꾸자는문자혁명론에서절정에이른다.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은‘과학’으로‘전통’을대체하려했던것이다. 그

교제도를부정하고이를대체하는자유학교또는대안학교라불리는교육운동에관심을가지고있다. 그들은노동과지식의결합이라는아나키즘의이상적인교육관을다시한번실현시키고자노력한다. 그밖에도과거의무신론에서벗어나인간의정신적·초월적측면을강조하는사람들도나타나고, 여성문제와관련해아나르카페미즘 Anarcha-feminism 을제창하면서동성애와같은사회문제에깊숙이개입하는사람들도있다.

현대의아나키스트는고전적아나키즘에서강조했던몇가지원칙들을과감히폐기하지만, 그배경에는아나키즘적상상력을극대화해서 21 세기의새로운변화에맞추려는그들의의지가담겨있다. 아나키즘의발빠른변신은어쩌면그사상에내재된고유의탄력성때문에가능하지도모른다. 지금으로서는이러한시도가단지하나의실험으로끝날지아니면새로운모델을만들어낼지는단정지어말하기어렵다. 왜냐하면현실사회에엄연히존재하는국가·정당·정치존재를부정하고미래사회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는것은여전히쉽지않은문제로비춰지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풍부한‘아나키즘적상상력’은 21 세기우리의문제들을돌파하기위한값진유산임에는틀림없을것이다.

이소책자는최근아나키즘에대한관심증가라는흐름에발맞추어이사회사상에독자들이좀더가까이 다가갈수있기위해쓴글이다. 하지만이책의주제는기본적으로현대의아나키즘이아니라역사상의아나키즘문제이다. 그것도동아시아의세나라, 즉일본·중국·한국 (여기서일단베트남이나타이완과같은지역은다루지않는다) 의아나키즘에한정해그사상과운동을다루고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이세나라의아나키스트운동은남아있는관련자료가부족해서그실체가제대로드러나지않았다. 아마도아나키즘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로말미암아이운동에관한기록물이거의보존되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근래에들어와자료의수집이활발해지고나라별로아나키즘연구가꾸준히진행되어이제는어느정도윤곽을그릴수있는수준에다다랐다. 지금은이미 3 국모두자신들의아나키스트운동에관한몇권의연구서를가지고있으며, 이글은바로그런연구성과를바탕으로동아시아의아나키즘을좀더입체적으로기술하려는것이다.

그렇다면동아시아아나키즘의출발점은대략어디쯤일까? 서양사회의경우고드윈 (William Godwin), 슈티르너 (Max Stirner), 푸르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톨스토이 (Count Lev Nikolayevich Tolstoy) 등으로대표되는일련의사상적계보가구성되어있고, 그구체적인활동에대해서도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하지만동아시아사회의경우는아직까지지적계보조차분명하지않다. 단지연구자들은 19 세기후반에이미서양아나키스트운동이각나라의신문이나잡지에일부소개되었고, 20 세기초반에적지않은아나키즘관련서적들이출판되었다는사실에주목해, 1900 년대에들어오면서이미동아시아사회에아나키스트가존재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나키즘의 수용과정은 사회주의의 수용과정과 일치하며, 아나키즘이 일정한 사회운동세력을 형성한 대략의 시점은 1906 년또는 1907 년쯤이라고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20 세기 전반기를 풍미했던 세 사람의 동아시아 아나키스트가 등장한다. 일본의 고토쿠슈이¹⁾, 중국의 스푸²⁾, 한국의 신채호³⁾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주인공인 이유는 우선 동아시아 세 나라, 즉 일본·중국·한국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오스기 사카에 (大杉栄), 이시카와 산시로 (石川三四郎), 이와사사쿠타로 (岩佐作太郎) 와 같은 저명한 아나키스트가 있고, 중국에는 리스 쩡 (李石曾), 류스페이 (劉師培), 어우성바이 (區聲白), 황링수양 (黃凌霜), 빠진 (巴金) 과 같은 걸출한 아나키스트가 있으며, 또한 한국에도 유자명 (柳子明), 이정규 (李丁奎), 정화암 (鄭華岩), 박열 (朴烈) 등과 같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그들의 행적이나 큰 대로 동아시아 아나키즘의 독특한 성격을 적절히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미있게도 고토쿠슈이는 1900 년대에, 스푸는 1910 년대에, 신채호는 1920 년대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라서 대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을 등장시켜 글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아울러 오스기 사카에, 리스 쩡, 류스페이, 박열 등도 글 가운데 제법 언급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해당 지역 아나키즘의 전성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먼저 지적해두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세 나라 모두 대략 1920 년대를 전후해 가장 활발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1920 년대를 전후해 전성기를 누리던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운동은 곧 이어 새로운 경쟁자 (볼셰비키) 의 도전 을 받았다. 이들은 한때 정치 권력의 도전 에 맞서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 연합이나 중앙 집권이나의 문제를 놓고 아나키즘·볼셰비즘 논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갈라섰다. 반드시 이 논쟁 때문에 아나키즘 운동이 몰락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논쟁을 전후해 그 운동이 급격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아나·볼 논쟁의 주요 내용은 표면상으로는 서양과 유사하지만 각 지역과 국가의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이 세 나라에서 일어났던 아나·볼 논쟁을 소개하면서 아나키스트 운동의 쇠퇴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단계로 공화혁명과 같은 과도기 혁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⁴³⁾ 그래서 “정치혁명을 수단으로, 사회혁명을 궁극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곧바로 아나키즘혁명을 추구하지 않은 그의 온건한 태도는 혁명수단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테러와 폭동도는 총파업과 같은 행동주의를 취하기도 하지만, 아나키즘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혁명을 더 선호했다. “아나키즘혁명은 교육으로 혁명을 이루는 것”이란 신세기파의 구호에서도 잘 나타난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결합을 핵심으로 하는 리스 쩡의 교육사상은 그 후 대규모의 교육운동과 유학운동으로 발전한다. 이 운동은 지식인과 노동자를 차별하는 전통 사회의 오래된 악습을 치유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근대 중국의 지식인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리스 쩡의 이러한 사상은 우즈 후이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⁴⁴⁾

파리의 아나키스트들은 군국주의와 조국주의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중국의 혁명 문제였다. 큰 리가 받아들이는 프랑스의 아나키즘 이론 가운데 정치와 경제 논리는 대부분 직수입된 것으로 중국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다소 설득력이 부족했던 반면, 문화사상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다. 사실 과학주의에 기반한 반전통의 급진적 문화론은 신세기파의 한 가지 특색이다. 이것은 공화주의자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기도 했다.

신세기파는 종교란 일종의 미신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아나키즘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종교의 가치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도덕 체계를 갖추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만약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봉건 가족 제도의 지주인 예교와 삼강오륜을 가혹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문화에 대한 혁명을 주장했다. 그들은 절대 권위를 누리던 공자에 대해 근대 중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비판의 포문을 연 사람들이 되었다. 신세기파는 중국인의 가장 큰 결함은 전통 문화에 대한 과대 망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신세기파는 종종 아나키즘 사회를 전통 용어를 써서 대동大同 사회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대동 사회란 전통적인 의미의 대동 사회와는 전혀 다른,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를 의미했다. 사실 그들은 근대 중국에서 과학주의를 처음으로 소개한 집단으로도 유명하다. 그들이 선전한 과학주의의 핵심은 19 세기 말 ~ 20 세기 초에 전 세계를 풍미했던 서양의 진화론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에 유행하는 사회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새롭게 해석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받아들였다.

동아시아 사회가 진화론을 수용한 것은 한마디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천천은 불변한다”는 중국의 고대 철학과는 거꾸로 “만물은 변화한다”고 주장한 서양의 진화론은 중국인의 세계관을 뒤엎어 놓는다.⁴⁵⁾ 옌푸 (嚴復) 가 『천연론天演論』에서 처음 소개한 약육강식적 자생존의 사회

「신세기」에서리스펑은자유·평등·박애·대동·공도公道·진리·개량·진화등의개념들을이용해아나키즘을설명한다. 그는아나키즘의가치를 실현하기위해먼저기존질서에서항할것을호소했다. 그리고구체적인공격대상으로군국주의·가정주의·사산私産주의·종교주의를꼽았다. 그는 이다섯가지를강권주의라는용어로정리하고, 강권주의에반대하는것이 바로자신들의아나키즘이라고요약했다. 다른글에서는종교·전통·가족·방종·엘리트·통치·군벌·국가에반대할것을주장하고, 자유·과학·인도·혁명·공산·국제등에찬성한다고선언하기도했다. 여기서보듯, 신세기파의 아나키즘은정부나국가에대한혁명외에도가족, 종교, 전통에대항하는 문화혁명을강조한다.

리스펑은“어떤형태든상관없이모든정부는자유와평등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른바정부라는것은인민의대표기구가아니라이로운법률을 마음대로제정해사회를운영하고이를국가라고부른다는것이다. 따라서 정부란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기관일뿐이며, 정상적인사회를파괴하는근본원인이라고보았다. 같은맥락에서부르주아정부도비판했다. 즉자본주의란자본가가노동자를착취하는구조이고, 이를비호하는기관이정부인데, 정부는곧국가를대표하므로결국부르주아정부도특권층이이익을독점하고인민을해치는‘만악의근원’이라는것이다. 하지만그가가장먼저타도할대상으로지목한것은청왕조였다.

리스펑은청왕조를전복하는것이야말로중국아나키즘혁명의시작이라고생각했다. 하지만그는만주족과한족이대결하는중족주의구도에서반청혁명을주장한것이아니라, 황제체제를타도한다는맥락에서반청혁명을제창했다는점에서중국동맹회의혁명파와는달랐다. 그가배만排滿혁명이아닌배황排皇혁명을주장한것은황제체제라는군주제가인간의자유를억압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나아가리스펑은부르주아정당정치와의회정치도부정했다. 절대소수가대다수의평민을통치하는것이전제정치라면, 대의제정치는다수의지배계급이전체평민을지배하는것이므로어느면에서는더욱독재적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파리의아나키스트들은공화주의혁명은정치혁명이고아나키즘혁명은사회혁명이라고구분해, 전자보다후자가더근본적인혁명이라고보았다. 배황혁명이배만혁명보다우월하다는논리와사회혁명이공화혁명보다우월하다는논리는결국쑨원의삼민주의를비판하는데로나아갔다. 하지만신세기파의중국동맹회비판은어디까지나동지적관계에바탕을둔것으로, 류스페이의천의파가중국동맹회의주도권을장악하려고시도했던것처럼적대적이지는않았다.

리스펑의아나키즘은원론적인아나키즘에비해아주점진적인실천방법을내세웠다. “혁명이란진화의연속”이라는르클뤼의해석을받아들인 그는진화와혁명을동일한것으로단지정도의차이가있을뿐이라고믿었다. 이런유연한해석아래왕조혁명과아나키즘혁명사이에서사회발전의한

제 1 장일본: 천황제와군국주의에대한비판그리고노동운동

1. 마르크시스트에서아나키스트로 - 고토쿠슈스이

일본이자본주의가채발달하기도전인 19 세기후반에이미서구의사회주의를들여왔다는사실은매우흥미롭다. 70 년대초에‘코뮤니즘’이나‘소셜리즘’이란용어가등장했고, 80 년대에는사회주의와공산주의를소개하는책자도발행됐다. 이현상은메이지정부가위로부터의근대화를주도하는과정에서사회주의에대한예방책을마련하기위해사회주의를부정적으로소개한것이다. 그리고유럽유학지식인들이늘면서일본사회를비판하고, 부르주아민주주의를소개하면서사회주의를조금씩수용하기시작했다. 이처럼후진국에서나타나는사상의조숙성문제는일본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다.⁴ 중국에서도아직자본주의가성숙하지않았던 20 세기초반에일부진보적지식인들과유학생들이사회주의를받아들였다. 이때사회주의는유럽과달리자본주의를옹호하는정부를타도하는것이아니라, 황제지배의전제군주제를타도하기위한이론적무기로작용했다. 일본이정부의승인아래사회주의를경계의대상으로소개했다면, 중국에서는개명인사들이반체제를위한이념으로사회주의를받아들인것이다.

동아시아의사회주의는자본가와노동자의대립구도에서썩튼것이아니라서학西學이라는새로운사조를수용하는과정에서섞여들어온것이다. 그리고사회내부의필요와맞물리면서자리를잡았다. 예를들어, 일본에서는여러사회주의파벌이활동하는가운데아나키즘이점차독자적인정치세력으로성장했고, 중국에서는아나키즘이처음부터가장먼저주도권을쥐고상당한세력을형성했다. 이처럼사회주의든아나키즘이든서양의근대사상이동아시아사회에들어와전개된방식은출발부터서유럽과크게달랐다. 그러므로구미와동아시아사회에같은사상이존재했다고해서같은역할을했을것이라고생각하는태도는위험하다.

동아시아근대사회의국가간세력판도를극적으로바꾸어놓은사건이청일전쟁이라는데에는큰이견이없다. 이전쟁을전후로중국중심의전통적세계질서는붕괴됐으며, 일본이대표주자가되어동아시아국제질서를새롭게만들어가기시작했다. 청일전쟁은일본정부가추진한메이지유신과정왕조가추진한양무운동이라는근대화의마지막시험장이다. 여기서승리함으로써일본은근대화에대한자신감을얻는것은물론중국으로부터막대한정치·경제적이권을챙길수있었다. 거꾸로중화의식의몰락을

경험한중국에서는급진적인개혁을요구하는소리가높아졌고, 캉유웨이(康有爲)와같은변법파가등장했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할점은, 청일전쟁이한편으로는일본의대륙침략을더욱부추겼지만, 다른한편으로일본에서사회주의운동이일어나는계기를마련했다는사실이다.

청일전쟁후일본자본주의는급격히발전해산업자본을확립했다. 이에따라자본주의의폐해도곳곳에서나타났다. 노동자와자본가의대립이표면화되면서노동자들은생존을위해갓가지투쟁을벌였다. 이런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회주의의영향을받은단체들이등장했다. 1897년에사회문제연구회가결성되어노동문제를연구하기시작했고, 머지않아몇개의노동조합도결성됐다. 그리고노동문제가사회문제로자리잡으면서사회주의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1898년에는무라이토모요시를회장으로하여가와카미키요시, 가타야마센, 고토쿠슈스이, 니시카와코지로등이사회주의연구회를만들었다. 1900년에이연구회는아베이소오회장이이끄는사회주의협회로이름을바꾸었다. 이렇듯노동문제또는사회문제와관련하여몇가지단체가조직과해산을반복하던끝에마침내1901년 5월에는사회주의협회를기초로사회민주당이라는정당을결성하기에이르렀다. 이정당은아베이소오, 가타야마센, 가와카미키요시, 고토쿠슈스이, 니시카와코지로, 기노시타나오에등 6명의사회주의자가발기했으며, 평등주의, 평화주의, 보통선거, 계급제도의폐지등을주장했다. 하지만사회민주당은겨우하루만에정부의금지명령을받아해체되었다.⁵

비록사회주의정당을조직하는데는실패했지만, 정당에참여했던인물들은책을통해사회주의를널리알렸다. 니시카와코지로의 『사회당』과 『칼마르크스』, 아베이소오의 『사회문제해석법』과 『사회주의론』, 가타야마센의 『나의사회주의』, 고토쿠슈스이의 『장광설長広舌』과 『사회주의신수社會主義神髓』 등이이때나온책들이다. 그밖에도당시출판된무라이토모요시의 『사회주의』, 후쿠이준조의 『근세사회주의』, 계무야마센타로의 『근세무정부주의』와같은저작들도일본사회에서사회주의를보급하는데크게기여했다.⁶ 그들이소개한사회주의는체계적이지못하고잡다한내용을소개하는수준에머물렀지만, 초창기의이런현상은자연스러운것이다.

일본이사회주의를수용한과정을보면, 1902년에서 1904년사이에러시아의나로드니키운동과허무당활동을활발하게소개했다는점은길을끈다. 특히허무당과허무주의를소개한것은동아시아의아나키즘수용과정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왜냐하면아나키즘을처음접할무렵에는러시아에풍미하던테러리즘이나허무주의를아나키즘과거의같은의미로받아들였기때문이다. 그런데여기서기억해야할사실은, 허무당원이러시아의니힐리스트만을가리키는것이아니라 ‘인민속으로’라는구호

타난다. 타이쉬(太虛)의불교와아나키즘의결합, 주치엔즈의개인주의적아나키즘, 타포(太朴)의중국적아나키즘, 정메이지우(景梅九)의 『학회學彙』 등에나타난아나키즘해석들이이흐름에속한다. 이러한성격의아나키즘은신채호가 ‘조선식아나키즘’을주장한것과관련해기억할만하다. 사실류스페이와신채호의아나키즘에는비슷한점이많고따라서두사람의아나키즘을비교연구하는작업이필요하다는것이필자의평소생각이다.

천의파와함께중국아나키즘의또다른출발점인신세기파는리스펑의주도로프랑스파리에서조직되었다. 프랑스는아나키스트푸르동의고향이자바쿠닌, 크로포트킨과같은저명한아나키스트들이활동하던곳이다. 1880년대이후크로포트킨의친구이자제자인엘리제르클뤼와장그라브는아나르코코뮤니즘운동을주도했다. 르클뤼는 “진화는곧혁명”이라는관점에서아나키즘을해석한인물로, 평생채식주의를실천한천교도적인혁명가이다. 또한그라브는프랑스아나키즘을대표하는잡지 「신세기」의편집자로서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과아나르코생디칼리슴을선전했다. 1907년무렵은프랑스아나키스트운동의전성기였으며, 르클뤼와그라브가해석한크로포트킨의사상과아나르코생디칼리슴은중국인유학생들에게영향을미쳤다.⁴² 그결과신세기파가탄생한다. 당시중국자본주의가아직발달하지않았기때문에유학생들은생디칼리슴보다아나르코코뮤니즘에더큰관심을기울였다.

신세기파의이론가리스펑을중심으로그들의사상과활동을살펴보자. 리스펑은 1902년장징장과함께프랑스에유학와서농업실용학교에입학했다. 졸업후파스테르학원에서생물학과화학을공부하면서대두에관한논문을준비하던즈음그는엘리제르클뤼의조카인폴르클뤼의소개로크로포트킨의사상과프랑스의혁명철학을받아들였다. 그는우선채식주의를실천하고육체노동을하면서아나키즘윤리에따른검소한생활을했다. 또한대두식품에관한연구를마치고직접두부를생산하기위해두부공장을차렸다. 이때부터중국인노동자들과함께 ‘일하며공부한다’는아나키즘의교육사상을실천에옮겼다. 리스펑은얼마후 「소보」 사건때문에런던에망명중이던우즈후이와일본에서건너온청년추민이등과뜻을모아 ‘세계사’라는아나키스트단체를조직한다. 장징장이이들의활동을경제적으로지원했고, 당시독일에서공부하던차이위안페이도협조했다.

세계사에서퍼낸잡지가바로 「신세기」이다. 이잡지의이름이프랑스판 「신세기」와같다는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이들은프랑스아나키스트들에게도움을받았고, 일부기사는프랑스판 「신세기」에서발췌한것이였다. 한편그들은같은시기에화보집 「세계」를펴내서양의물질문명을소개하는데도적극적으로앞장섰다.

만의 ‘인류균력설(人類均力說: 개인이여러가지재능을골고루재능을갖추는것)’을펴기도했다.³⁸ 또한바쿠닌, 슈티르너, 톨스토이의아나키즘에도흥미를보임으로써아나키즘이론에좀더개방적인모습을보였다. 특히국수주의자시절부터계속루소의평등론에관심을기울였는데, 평등권이자유권이나독립권보다우선한다고생각했다. 그는심지어인류의평등을위해서라면개인의자유를어느정도제약할수있다는논리까지 폈다.

류스페이가일본아나키즘의영향을받은것은분명하지만, 그는나름대로아나키즘을재해석하는창의성을발휘했다. 그는 「천의」에서국수주의와아나키즘을결합한독특한관점을제시했다. 고대중국학술에관한풍부한지식을응용해독자적으로아나키즘이론을풀이한것이다. 예를들면, 중국고대사상가노자를중국아나키즘의창시자로보았고, 허행(許行)·포경언(鮑敬言)·이탁오(李卓吾) 등을전통시대의대표적인아나키스트라고주장했다.³⁹ 또한그는국학國學과관학官學의대립구도를가지고중국의전제정권을비판하는동시에서양의자본주의제도도비판했다. 심지어서구의부르주아문명보다중국의고대사회가아나키즘이상에더욱가깝다고보아이를미화했다. 이처럼그의아나키즘에는전통주의적요소가풍부하게녹아있었다.

일본아나키스트의도움을받아태어난만큼천의파의운명은일본아나키스트운동과궤를같이했다. 일본정부의탄압으로인해아나키스트운동이침체하자천의파도쇠퇴의길을걸었다. 장지가이른바옥상연설사건때문에일본경찰의눈을피해프랑스로망명하자, 사회주의강습회는해체되었고 「천의」도폐간되었다. 류스페이가다시「제민사齊民社」를만들고, 「형보衡報」라는신문을발행했으나역시오래가지못했다. 그리고류스페이가갑자기양강총독인뚜안팡(端方)에게투항함으로써결국천의파는몰락하고만다. 왜류스페이가아나키즘을버리고‘변절’했는지는지금까지도수수께끼다. 그의아내허쥔의친척인왕궁취안의유혹때문이라고도하며, 류스페이의성격과환경요인들을지적하기도한다.

그런데이문제를좀더넓은시각에서본다면, 서양의물질문명이중국전통문화를말살할지도모른다는위기의식때문에류스페이가국수를권장하던뚜안팡에게투항했다고풀이할수도있을듯싶다. 다시말하면, 그에게아나키즘이란처음부터국학의부흥이라는목표아래제한적인의의를지니는도구적성격이강했다는것이다. 그가“중국국수의존망은무정부공산주의의실행에달려있다”⁴⁰고말한것을보더라도류스페이의아나키즘이국학의범주안에서설명되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⁴¹

류스페이의사상의특징은국학과혁명이결합한것으로, 전통적평균平均사상과근대적평등사상을한데섞은절대평등의유토피아를추구했다는점이다. 그의아나키즘을‘중국식아나키즘’이라고평가하는것도그때문이다. 이런전통주의적해석법은신세기파와뚜렷하게구분된다. 중국식아나키즘은아나키스트운동의비주류를형성해그후에도꾸준히나

를만들어낸러시아의인민주의자들을추청한다는점이다. 사실러시아인민주의자들의범주는폭넓다. 대체로그들은차르정권에맞서정치혁명을추구하기보다는농민의사회경제적해방을추구했던인물들이다. 이인민주의자들가운데바쿠닌과로분류할수있는아나키스트들도다수포함되어있었다. 따라서번역과정에서허무당원을아나키스트와동일시한것은부분적인착오이긴하지만완전히틀린말은아니었다.

일본사회에러시아허무당원의테러활동이소개된것은 19 세기말사회주의가처음들어온시기와일치한다. 그러나이들의활동을단순히외국의신기한사정을넘어진지한문제로인식하게된것은 20 세기에들어와서다. 일본인들이테러리즘에열광한것은아니지만허무당원들의활동은일본에게주하던외국인급진주의자들의호기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했다. 더구나이즈음일본에는러시아혁명가들(많은수가허무주의자들)이차르의압제를피해망명해서반체제활동을하고있었기에남의나라일로만여길수도없었다. 이들러시아인은중국인으비롯한외국혁명가들에게폭탄제조법등을가르쳐주기도했다.

허무주의와허무당원이아나키즘과아나키스트와같은것이라는인상을준대표적인저작은 1902 년당시도쿄대학학생이던게무야마센타로가펴낸『근세무정부주의』다. 이책은전편에서는러시아의허무주의를, 후편에서는구미여러나라의아나키즘을다룸으로써허무주의와아나키즘을같은맥락에서이해하도록만들었다. 이책은광범위하게유통되어사회적으로큰영향을미쳤다. 특히동아시아사회에서아나키즘을‘무정부주의’라고부르게된것도이책에서비롯되었다고보는것이통설이다.⁴² 센타로이전에도이용어를사용한예가있기는하지만, 이책을통해아나키즘이무정부주의란번역어로정착해대중화된것이다. 이용어는중국이나한국에도그대로수용되어동아시아 3 국에서널리쓰이게된다.

게무야마센타로는본디아나키즘을비판하기위해서『근세무정부주의』를준비했다고한다. 하지만역설적이게도이책으로말미암아일본인들은물론일본에게주하던중국인들(어쩌면한국인들도포함될지모른다)이아나키즘에큰관심을가지게되었다. 그런데무정부주의라는용어는머지않아동아시아사회에서아나키즘에대할잘못된인상을심어적지않은문제를초래하기도했다. 무정부주의라는번역어가유통된다음에는아나키즘이허무주의자의암살이나폭동과동일시되면서원래의의미가심하게왜곡되었을뿐만아니라, 모든정부나조직을부정하는혼란과폭력의대명사가된것이다.⁴³

일본메이지시대의사회주의자들가운데가장대표적인사람은가타야마센과고토쿠슈스이다. 가타야마센은기독교의인도주의입장에서출발해사회주의자로변모한이른바기독교사회주의자다. 그는노동조합운동에투신해 1897 년일본최초의근대적노동조합을만들기도했다. 그후사

회주의연구회와사회민주당을결성할때에도핵심적인역할을했다. 1903년에는「노동세계」에발표한문들을모아『나의사회주의』라는책을펴냈다. 여기서그는의회주의에기초한사회주의를주장했는데, 이주장이메이지사회주의의한흐름을형성한다.

비극적인죽음으로일본인들에게깊은인상을남긴고토쿠슈스이는동아시아아나키즘을서술할때가장먼저얘기해야하는인물이다. 메이지시대의가장대표적인사회주의자이자아나키스트이기때문이다. 가타야마센이있다고는하지만, 메이지시대의사회주의는고토쿠슈스이를중심으로전개되었고, 그의죽음으로일단락되었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고토쿠슈스이의삶의궤적은일본메이지시대의사회주의와아나키즘의전개상황을그대로보여준다. 특히그가마르크시스트(정확히얘기하면사회민주주의자가적당하다)에서아나키스트로전향한것은일본사회주의운동사는물론동아시아아나키스트운동사의한페이지를장식하는중대한사건이다.

고토쿠슈스이(원래이름은고토쿠덴지로)는 1871년어느지방현의약재상가정에서태어났다. 태어난지얼마 지나지않아부친이별세하고불우한어린시절을보냈지만한학을열심히공부해중국고전에상당한교양을쌓았다. 17세가되던 1887년에는상경해자유민권운동에참가함으로써서양부르주아사상가의저작을접했다. 그는나카에초민과같은자유당좌파의전통을이어받아이상사회의꿈을키워나갔다. 특히프랑스의사회사상에심취해이방면에나름대로정통했다. 1900년부터 1901년사이에는사회주의에접근했고, 사회민주당창립에도참여했다. 그는주로「만조보萬潮報」란신문을중심으로사회주의활동을했는데, 1901년이신문에기고한글에서“나는사회주의자다”라고선언함으로써혁명가의길을걷기시작했다.

사회주의자로서고토쿠슈스이의초기사상을한마디로요약하면반전평화론이라고할수있다. 그는지구상의모든전쟁에반대했고각나라의군비확장을비난했으며일본의군국주의정책에도정면으로대항했다. 또한근대시기전쟁의원인을연구하는과정에서제국주의를발견하고, 이를분석하는데몰두했다. 1901년「만조보」에〈20세기의괴물, 제국주의〉라는글을발표해그연구성과를알렸으며,⁹⁾ 다음해에출간한논문집『장광설』에서도반제국주의사상을전개했다. 그는이런책들에서역사발전의규율에따라자본주의는반드시사회주의로대체된다고주장하고, 자본주의의한형식인제국주의는모든죄악의근원이자타도대상이라고단언함으로써마르크시스트로서의모습을비교적선명하게보여주었다. 그의제국주의비판은서양열강뿐만아니라일본의군국주의경향을겨냥한것이기도했다.

천의파의이론적지도자가류스페이었다면, 신세기파의이론적지도자는리스쥘이다. 그런데재미있는것은류스페이가본디장타이엔과같이저명한국학자이자국수주의자인데반해, 리스쥘은프랑스에유학해생물학을공부한자연과학자라는사실이다. 그리고류스페이가고토쿠슈스이처럼사회주의와아나키즘이적절히결합한일본아나키즘의영향을받았다면, 리스쥘은엘리제르클뤼나장그라브(Jean Grave)와같이크로포트킨의사상을주로하는프랑스의정통아나키즘이론을수용했다고할수있다. 이런개인의특성과환경의차이는그들의잡지에도고스란히반영되었다. 우선천의파류스페이의사상을간단히살펴보자.

「천의」는 1907년 6월일본도쿄에서반월간으로발행되었다. 「천의」의광고에는“고유의사회를파괴하고인류평등을실행하는것을모토로삼는다. 여계女界혁명을제창하는것외에, 종족·정치·경제의여러혁명도아울러제창한다”고쓰여있다. 사실「천의」는기본적으로여성잡지였으므로, 그내용은상당부분아나르카페미니즘에관한것이였다. 여성해방론에관한기사는주로류스페이의아내인허쥘이기고했다. 그녀는남성에대한적개심을내세우며, 여성의노동참여나참정문제에반대하는독특한관점을제시했다. 심지어초혼인남자는초혼인여자와, 재혼인남자는재혼인여자와결혼해야한다는등의극단적인평등주의를주장했고고토쿠슈스이와가벼운논쟁을벌이기도했다. 하지만그녀의글은상당수가남편인류스페이의도움을받아쓴것이였으며, 이잡지에가장많이기고한사람도류스페이었다.

「천의」에실린류스페이의글에는고토쿠슈스이의영향이적지않게드러난다. 그는고토쿠슈스이처럼제국주의비판에많은관심을보였고, 나아가서양의자본주의문명전반에대해강한회의를드러냈다(그는중국인으로서처음으로반제국주의를주장했다). 그리고노동자와농민을동정했으며, 의회주의와보통선거를반대했으며, 총동맹파업과같은혁명방법을지지했다. 이른바‘강종強種’과‘약종弱種’의논리를만들어, 아시아와유럽의사회혁명이가연합해아시아각민족의해방을이루고유럽의부르주아정부를함께타도하자고주장하기도했다. 고토쿠슈스이의사상에마르크스주의와아나키즘이혼재되어있듯이, 류스페이역시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를뚜렷하게구분하지않았다. 「천의」에『공산당선언』의일부를번역해실은사실에서도알수있듯이, 대체로마르크스주의에호의적이였다.

류스페이의아나키즘은크로포트킨의사상에바탕을두었다는점에서동아시아의다른아나키스트들의사상과유사하다. 그는스펜서(Herbert Spencer) 나헉슬리(Thomas Henry Huxley) 의사회진화론이제국주의이데올로기의하나임을간파하고, 상호부조를중심에두는크로포트킨의사상을가장원만한사상이라고생각했다. 하지만그는모든사물은상대적이며중심이존재하지않는다는‘무중심설’에기초해자신

명적허무주의자들이고려하지못한개인의도덕문제는훗날중국의아나키스트들에게는피할수없는문제로다가왔다.

1905년 8월에는쑨원이중심이되어일본도쿄에서중국동맹회를결성했다. 이혁명단체는민족·민권·민생이라는삼민주의를혁명강령으로내걸고, 「민보民報」라는기관지를발행했다. 이잡지는삼민주의의외국수주의나아나키즘도선전했다. 아나키즘관련기사가이잡지에자주실린것은쑨원이아나키즘에호감을느끼고있었고, 장이나장타이엔과같이아나키즘성향이 짙은사람들이편집을맡고있었기때문이다. 쑨원은평소“동물계는경쟁이원칙이며, 인류는호조가원칙”이라는절충적관점을제시함으로써아나키즘에친근감을보였으며, 장타이엔도사회진화론을비판하기위해상호부조론에큰관심을가졌다.³⁷ 이잡지에서공화주의자와아나키스트가논쟁을벌이기도했다. 여기에실린글들을보면, 공화주의자가아나키즘을이해하는수준도과거와달리비교적높은편이었다. 어쨌든이즈음일부동맹회원들이러시아허무당원과같은테러활동을수차례벌여중국전역을떠들썩하게했다.

중국인에게아나키즘의수용은이론적으로볼때혁명이론의전진을의미했다. 종족주의에기초해만주족정권인청왕조를타도하는정치혁명에서, 사회주의에기초해전제왕조라는군주제를전복하려는사회혁명으로나아간것이다. 앞장에서살펴본고토쿠슈스이와중국동맹회의일부혁명가들이활발하게사상을교류한시기가바로이때이므로그상황을대략 짐작할수있다. 그리고그이론적탐색은「천의」와「신세기」라는두잡지에서펼쳐졌다.

2. ‘중국식’아나키즘과‘과학적’아나키즘

1906년이일본아나키스트운동사에한획을그은해라면, 다음해인 1907년은중국아나키스트운동사에서상징적인해이다. 그해 6월도쿄에서‘사회주의강습회’라는단체가설립되어「천의」라는아나키즘잡지를펴냈고, 같은시기파리에서는‘세계사’라는단체가「신세기」란아나키즘잡지를발간해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출발을알렸기때문이다. 두단체는보통그들이발간한잡지의이름을따서천의파와신세기파라고불리는데, 어떤사람들은활동한도시이름을따서도쿄그룹과파리그룹이라고부르기도한다. 일본이중국에아나키즘을전파한동쪽통로라면, 프랑스는서쪽통로라고할수있다. 천의파에는장지, 류스페이, 허쥔, 왕궁취안(汪公權) 등이참여했고, 신세기파에는리스쥔, 우즈후이, 추민이(民誼), 장징장(張精江) 등이참여했다.

고토쿠슈스이는군국주의를비판하면서일본인의애국주의도서슴없이비판했다. 그는애국심이란“국민의허구와미신의결과”이며, 애국주의란“야수의천성이자미신이요, 광란이자허구이며, 호전적인마음”이라고주장했다. 그는군국주의와애국주의를동전의앞면과같은관계로보아함께부정했고, 세계주의에기초해민족과조국을초월한보편적인류를애를강조했다.⁴⁰ 이런주장은일본의진보적지식인들과노동자들에게반제투쟁의이론적근거를마련해준것이기예의미가크다. 고토쿠슈스이가사회주의자로서펼친이론적탐색은마침내『사회주의신수』(1903)라는저작을낳는다. 이책은앞서말한가타야마센의『나의사회주의』와함께메이지시대사회주의를대표하는양대저작으로꼽힌다. 고토쿠슈스의의침략적제국주의와배타적애국주의에대한비판은중국문제에서도나타난다. 그는서양열강의중국정책은물론일본이대륙진출을위해펼친침략정책도한치의양보없이비판했다. 뿐만아니라러일전쟁시기에는반전사상을직접실천에몰김으로써지행일치의모범을보였다.

「만조보」가러시아에대한전쟁을지지하는쪽으로태도를바꾸자고토쿠슈스이는 1903년 11월여기서이탈해사카이토시히코와더불어‘평민사平民社’를조직하고주간「평민신문」을창간했다. 이로써그는사회주의자로서새로운단계에들어서게된다. 평민사는(1) 자유·평등·박애, (2) 평민주의, (3) 사회주의, (4) 평화주의, (5) 비폭력이라는방침을내걸고독서회, 연구회와같은전국적인조직망을통해러시아와의전쟁을반대하는운동을펼쳤다. 그들은러시아와일본이대립하는배후에는정치가와자본가의음모가숨어있다고폭로하고전세계평민이연대하는반전평화운동을제창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1904년 1월러일전쟁이일어나자일본열도는전쟁열기로홍분의도가니에빠져들었다. 진보적인일본인들조차막상전쟁이일어나자대부분열렬히전쟁을지지했다. 하지만고토쿠슈스이와사카이토시히코등은여전히「평민신문」을중심으로반전논리를펼쳤다. 그들은“군비와전쟁은오늘날의국가가자본주의제도를옹호하기위해만든철의장벽이며, 대다수의인류는이로말미암아엄청난희생을치르고있다”고지적했다. 그리고이전쟁에서“일본이조선, 만주와시베리아를얻게된다면이익을얻는집단은정치가나자본가계급일뿐이다. 지위나자본이조금도없는대다수노동인민은결국아무것도얻을수없다”고주장했다. 또러시아사회주의자들에게군국주의에반대하기위한반전공동투쟁을제의해일정한성과를올리기도했다.⁴¹ 이처럼전쟁중에도「평민신문」이반전의필봉을누그러뜨리지않자당국은신문을폐간해버린다. 이시기고토쿠슈스이와사카이토시히코가일으킨반전운동은일본근대사에서처음전개된조직적인반전운동으로높이평가받고있다.

러일전쟁이한창일때, 고토쿠슈스이와사카이토시히코는『공산당 선언』 대부분을번역해「평민신문」에발표하고다음해책으로퍼낸다. 이책은사실상『공산당선언』의첫번째일본어판본으로일본마르크시즘의출발을알린이정표이다. 여기서부르주아와프롤레타리아라는말을자산계급, 무산계급이란용어로처음번역했다고도한다. 그후『사회주의-공산에서과학으로의발전』,『마르크스전』,『엔겔스전』등이차례로번역출간되었다. 얼마후일본에머물던중국인아나키스트들도고토쿠슈스이의영향을받아자신들의아나키즘잡지에『공산당선언』일부를번역소개했다. 중국에서완역본이나온것은 1920 년 (천왕타오가중국공산당창당을준비하던중상하이에서『공산당선언』을완역출간했다)인데, 재일아나키스트들의작업은그전에나온번역본들가운데대표적인것이다. 사실일본이나중국에서마르크시즘을처음소개한사람들가운데는아나키스트가많았다. 이는초창기에아나키스트들이마르크시즘에큰거부감이없었다는것을보여준다. 훗날의일을생각하면역사의아이라니가아닐수없다.

한편「평민신문」폐간직후인 1905 년 2 월, 니시카와코지로가번역한책이문제가되어필화사건이일어났다. 이때고토쿠슈스이는인쇄인이란이유로체포되어반년간감옥생활을하게된다. 감옥은언론을통한투쟁에한계를느낀그에게조용한독서와사색의기회를마련해주었다. 훗날고토쿠슈스이는이때를회고하며“나는마르크스파의사회주의자로서투옥되었으나출옥할때는과격한아나키스트가되어돌아왔다”고말했다. 아마도이때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사상을본격적으로접한듯하다. 크로포트킨의사상은당시세계에서가장영향력이큰아나키즘사조가운데하나였다.

출옥한지얼마지나지않은 1905 년 10 월중순, 고토쿠슈스이는돌연미국방문길에오른다. 어떤사람들은그가천호아제를자유롭게비판하기위해미국으로갔다고말한다. 당시일본에서는천황제지배이데올로기가꾸준히강화되어사회주의자들은이흐름에어떻게대처할것인지고심했다. 특히천황중심의통치체제가점점군국주의로치닫는것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았다. 미국에서고토쿠슈스이는혁명적노동조합인 I.W.W 의사회주의자들, 주로아나키스트노동운동가들과교류하면서아나키즘에한걸음더다가섰다. 그과정에서당시새롭게대두된반의회주의경향을흡수한듯하다. 1906 년 4 월 18 일, 고토쿠슈스이는캘리포니아주에서대지진이일어나온시대가무정부적혼란상태에빠지는것을목격한다. 이들발적인사건을계기로고토쿠슈스이는마르크시스트에서아나키스트로극적인사상전환을하게된다.¹² 구미사회운동가와접촉함으로써아나키즘과생디칼리즘을수용한그는예정보다빨리귀국한다.

일본에서아나키스트들이집단적으로출현한것은대략 1906 년무렵인듯하다.¹³ 고토쿠슈스이가미국에체류하던 1906 년, 일본의사회주의

의수단과방법을배워뚝같이하고싶다”고절규했다.³⁴ 하지만어투에서쉽게드러나듯이그는안정된틀을갖춘것이아니라감정적인수준에서허무당을숭배했다.

장지역시양두성못지않게과격한사람이다. 그가번역한『무정부주의』(1903)는 1907 년이전에출판된번역서가운데가장체계적인아나키즘저작이다. 그역시흥분된말로이렇게소리친다. “나는만주족전부를죽이려고한다! 복수의대의를선전하고복수할수있는장렬한국민을양성하기위해서다. 나는아시아특산의군주모두를죽이려고한다! 아시아인의수치심을씻어아시아인의광명을밝히기위해서다. 나는정부관리를모두죽이려고한다! 모든특권의뿌리를제거하기위해서다. 나는재산가자본가를모두죽이려고한다! 한나라의경제를고루평등하게해빈부의차이를없애기위해서다. 나는결혼한자를모두죽이려고한다! 자유연애로만사공공의기초를이루기위해서다. 나는공매고도를모두죽이려고한다! 사람들마다그진실을깨달아거짓도덕의흔적을없애기위해서다.”³⁵ 이처럼그는바쿠닌의파괴와건설의주장을어설뜨게설교하는동시에만주족에대한증오가충만한복수주의를역설했다. 근대중국최초의아나키스트라고평가받기도하는장지의아나키즘은평등의원리를강조하는특징을지닌다.³⁶

양두성과장지는 1903 년을전후하여상하이와일본에서활동한과격한사람들로, 허무주의와아나키즘이혼합된초기아나키스트들이다. 하지만그들이숭배한것은중족적증오심과폭력에대한찬양들로서양본래의아나키즘과는거리가멀었다.

당시상하이중국교육회회장인차이위안페이역시일찍부터아나키즘을소개한사람이다. 그가「아사경문」에발표한소설〈신년몽新年夢〉(1904 년 2 월)은아나키즘색채가매우 짙은이상사회를그리고있다. 이작품은이상사회를통해국가·정부·사유재산·군비의폐지, 성씨·가정·혼인·법률의폐지와언어문자의통일을주장한다. 그가그린이상사회는중국아나키스트들이훗날제시한이상향과거의일치한다. 근대중국대표적인교육가이기도한차이위안페이의사상에아나키즘색채가짙다는데이미많은학자들이공감하고있다. 한연구자는그를‘철학적아나키스트’라고평가한다. 이처럼 1903 년「소보」사건을전후하여고조된혁명의분위기는 1905 년무렵까지계속되었다.

그런데러시아의허무주의와중국의허무주의사이에는일정한차이가있었다. 중국의혁명적허무주의자는러시아인민주주의자들의반정치적경향과는달리청왕조의전복이라는정치혁명을추구했다. 그들은개별적이고단편적으로러시아의허무주의를받아들여정치혁명이임을자신했으나여전히본디아나키즘의사회혁명과는거리가멀었다. 아울러중국의혁

운동을 처음으로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막형성되기 시작한 혁명파들은 더 이상 청왕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고 체제전복을 위해 암살과 폭동과 같은 비상수단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이 바로 일본 유학생 사회를 통해 들어온 러시아 허무주의와 허무당원의 활동이다. 그런데 허무주의(아나키즘도 포함)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혁명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개혁파 인사들이 더 일찍 소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중국 지식인 사회에 널리 퍼진 청왕조에 대한 절망감에 있다. 청일 전쟁의 패배와 변법운동의 좌절, 나아가서 양열강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청왕조의 모습은 청말 지식인들의 분노와 좌절을 자아냈고, 의화단 운동이 실패하자 그 절망감은 최고조에 이른다. 따라서 개혁파든 혁명파든 상관없이 지식인들은 중국 사회에 도러시아처럼 허무당원이 출현하기를 기대했다.³²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의 저작가운데 고토쿠슈스의 『장광설』, 후쿠이준조의 『근세 사회주의』, 니시카와코지로의 『사회당』, 게무야마센타로의 『근세 무정부주의』 등이 곧바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들을 번역한 재일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개혁파이든 혁명파이든 상관없이 청왕조의 변혁을 추구하고 있었으므로 호감을 가지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러시아의 허무주의나 허무당원을 보는 태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개혁파도 허무당원의 대의명분에는 의심을 품기도 했지만 테러와 같은 방법에는 큰 흥미를 느꼈다. 아마도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거창한 이론 체계에 관심을 기울기 전에 우선 중국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효과적 인 방법에 주목한 듯하다.

앞의 번역서들 가운데 고토쿠슈스의 『장광설』에 나오는 “무정부주의가 유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국가 사회에 절망했기 때문이며, 전제 정부는 무정부주의의 제조 공장이다”라는 말은 당시 혁명가들 사이에 널리 유행했다. 물론 이 시기의 고토쿠슈스는 사회민주주의자로, 아직 아나키스트는 아니었다. 중국인들에게 아나키즘을 널리 알린 것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게무야마센타로의 편저 『근세 무정부주의』다. 이 책은 여러 편의 논문으로 나뉘어 여러 차례 중국인의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진이(金一)란 사람이 『자유혈自由血』(1904)이란 제목으로 전체 내용을 역하기도 했다.³³ 중국인들이 허무당원을 아나키스트로, 허무주의를 아나키즘과 동일시하게 된 데도 이 책의 영향이 크다.

번역자들 가운데 가장 열광적으로 러시아 허무당을 찬양한 사람은 양두성(楊篤生)이다. 그의 글에는 소위 암살 시대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는 “허무당! 허무당!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숭배한다! 너희들이 실행한 일들은 개새기 같은 황제를 죽일 수 있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구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일도 천지를 놀라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나는 오래도록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과 얘기해,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 나는 너희들

운동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잡지 「신기원」과 가타야마 센, 구츠미 겐손, 오스기 사카에 등이 참여한 잡지 「광光」이 주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구츠미 겐손은 고토쿠슈스와 더불어 일본 아나키스트 운동사에서 제1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고토쿠슈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는 개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¹⁴ 그리고 오스기 사카에는 고토쿠슈스를 이어받아 다음 세대 아나키스트 운동을 이끌며 아나키즘의 전성기를 구가한 인물이다. 이 시기에 사카이 토시히코가 「사회주의 연구」라는 잡지를 만들어 마르크시즘과 아나키즘을 선전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잡지에 실린 글들은 재일 중국인의 잡지에도 일부 번역 소개되었다. 무엇보다 1906년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2월에 「일본 사회당」이 합법 정당으로 조직되어 일본 사회주의 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일이다. 고토쿠슈스는 창당 시기에 미국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를 일본 사회당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6년 6월 23일, 고토쿠슈스는 귀국 환영회 자리에서 자신이 마르크시즘을 버리고 아나키스트가 되었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일본 사상계에 큰 충격을 안겨 준다. 직접 행동 선언으로 알려진 ‘세계 혁명 운동의 조류’라는 연설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보통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이라는 의회주의 노선은 사회 혁명의 방법으로 무력하다고 말하고, 노동자의 직접 행동인 총동맹 파업을 통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바로 아나르코생디칼리즘 Anarcho-Syndicalism(노동조합주의적 아나키즘)의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이란 아나키스트들이 혁명 수단의 하나로 생디칼리즘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상을 통해 아나키즘과 노동 운동이 결합할 수 있었고, 그 후 아나키즘은 조직적인 대중 운동을 펼쳤다. 사실 아나키스트들이 의회 제도를 불신하는 것은 역사가 깊다. 프랑스 대혁명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미 푸르동이 개인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주권을 상실하는 행위라며 의회 제도를 거부한 바 있다. 그가 “보통 선거는 반혁명적이다”라고 주장한 후 이런 전통은 계속되었다. 어쨌든 문제는, 고토쿠슈스의 폭탄 선언으로 말미암아 갓 태어난 일본 사회당에 분열의 기미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1907년에 들어서자마자 평민사를 재건하고 고토쿠슈스는 일간지 「평민신문」을 발행한다. 마침 「신기원」과 「광」이 폐간되었기에 이 잡지에 참여했던 사회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 신문을 펴낸 것이다. 「평민신문」 2월 5일자에 발표한 〈나의 사상 변화〉란 글에서 고토쿠슈스는 “솔직히 말하면 사회주의 운동의 수단 방법에 관한 나의 의견은 재작년 투옥 당시와 달라졌고, 다시 작년의 여행에서 크게 변했으니, 지금 수년 전을 회고하면 스스로 거의 딴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통 선거와 의회 정책만으로는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일치 단결한 노동자의 직접 투쟁에 의존해야 한

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¹⁵ 이 글은 일본 사회당 제 2 차대회 직전에 발표했는데, 이미 당은 의회 정책을 지지하는 쪽과 직접 행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분열하고 있었다.

1907 년 2 월에 열린 일본 사회당 제 2 차대회는 이른바 의회 정책파와 직접 행동파의 논쟁의 장이 됐다. 가타야마 센, 다조 에데즈 지를 중심으로 모인의회 정책파는 제 2 인터내셔널 노선을 따라 의회주의 방법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다. 한편 고토 쿠슈스 이, 사카이 토시히코, 야마가와 히토시, 오스기 사카에 등이 이끄는 직접 행동파는 의회 투쟁을 완전히 부정하고 총파업을 통한 직접 행동을 주장했다. 투표에서 직접 행동파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일본 정부는 즉시 「평민신문」의 발행을 금지하고, 일본 사회당을 해체했다. 그러나 이런 탄압 속에서도 직접 행동파는 일본 사회에 아나키즘적 사회 혁명을 성취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 사회당이 분열한 후 의회 정책파는 1907 년 8 월 사회주의 동지회를 결성해 일요일마다 연구회를 개최하고, 주간 「사회신문」, 「도쿄 사회신문」 등을 발간했다. 한편 직접 행동파는 같은 해 9 월 금요일 강습회를 결성해 금요일마다 강연회를 개최했고, 일간 「평민신문」, 「오사카 평민신문」 등을 발간해 독자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직접 행동파에 대한 탄압 강도를 한층 높여 선전 활동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회주의자 대부분은 고토 쿠슈스 이의 주장에 동조해 금요일 강연회를 중심으로 모여 들었다. 결국 직접 행동파가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즈음, 일본에 거주 하던 중국인 및 한국인 혁명가나 유학생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들은 단체와 잡지들을 만들어 사회주의를 적극 수용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아나키즘을 받아들여 고토 쿠슈스 이의 운동 노선과 결을 같이했다. 이것이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연대의 시작이다.

2. 동아시아 혁명가들의 사상 교류

고토 쿠슈스 이는 사회주의에 입문할 때부터 중국 문제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으며 동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1905 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혁명이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 그는 중국이 병든 환자가 아니라 잠자는 사자라고 굳게 믿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이 제 2 의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관심은 아나키스트가 되어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 문제를 보는 견해는 달랐다. 1900 년 이전에 고토 쿠슈스 이는 일본의 한국 침략을 지지했다. 그러다 사회주의자였던 「만조보」 시절에 생각을 바꾸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여전히 미온적이었

살해되어 우물에 던져졌다. 그의 나이 39 세. 이로써 다이쇼 시대 일본 아나키스트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오스기 사카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죽음에 알려지자 청년 아나키스트들은 복수를 위해 테러를 감행한다. 이런 테러 활동의 시작은 그 후 일본 아나키스트 운동이 전개된 양상과 관련해 미묘한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제 2 장 중국: 군주제와 군벌 정부에 대한 저항 그리고 신문화 운동

1. 정치 혁명에서 사회 혁명으로

20 세기 초 청 왕조가 국내에 설립한 신식 학당이나 해외로 파견한 유학 생 사회에서 혁명가들이 출현한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국내에서는 신 흥 대도시 인 상하이 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조직한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 교육회’로, 여기서 펴낸 「아사경문 俄事警聞」이나 「경중일보 警鐘日報」는 이미 부분적으로 서양의 아나키즘을 소개하고 있었다. 훗날 중국 아나키스트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우즈후이 (吳稚暉), 장타이옌, 차이위안페이 (蔡元培) 등도 중국 교육 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한편 해외 유학생은 주로 재일 유학생 사회를 가리키는데, 이는 이들이 해외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유학한 학생들은 일찍부터 동향회와 같은 여러 모임을 만들고, 그중 일부는 조그만 서클을 만들어 반청 혁명의 여론을 전파했다. 항구 도시 상하이 는 일본으로 가는 관문이어서 지역 혁명가들과 일본의 유학생 사회는 긴밀한 연 락 망 을 구축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급진적 지식인들이 직면한 절박한 문제는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고 중국 사회를 정체 시킨 전제주의 봉건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1 과제는 군주제 개혁 또는 타도였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서구의 신 사 조 를 수용했는데, 아나키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1903 년 청 왕조는 상하이 지역 신문 「소보 蘇報」를 반청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폐간시켰다. 이 사건으로 장타이옌과 쑤우룽 (鄒容) 등이 체포되고, 중국 교육회와 같은 진보 단체는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혁명

관심을가지고있었으며, 볼셰비키와의공동전선에대한기대를버리지않고있었다. 그는이회의에서코민테른일본지부를설치해달라는요청을받았으나, 이를거절하고다만정보교환을위해위원회를만들겠다는약속을하고귀국했다. 이렇게하여일본사회주의운동은국제화의길을걷는다.

다음해 12 월에도모스크바에서극동민족대회가열렸다. 이때참석한일본대표들을보면공산주의자보다아나키스트가많았다고한다. 대부분노동운동단체의대표였던그들은대회에출석하는것보다는러시아의진상을파악하는데힘썼다. 이런일련의접촉을통해일본의아나키스트들은러시아의현실에크게실망했으며, 볼셰비키정권의통치아래노동자와농민의자유가희생당하고있다고판단했다. 결국그들은볼셰비키와협력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결론을내렸다. 그후아나키스트와볼셰비키사이에존재하는이념의차이가점점표면으로노출됨으로써노동운동을중심으로격렬한논쟁이일어났다. 그런와중에 1922 년 7 월일본공산당이창당되었다.

국내에서일본볼셰비키와연합하는것을단념한오스기사가에는국제사회주의운동에관심을쏟았다. 때마침 1923 년 2 월베를린에서열리는산·티미에인터내셔널 50 주년기념집회에참가해달라는초청장이도착한다. 당시오스기사가에는러시아혁명과정에서일어난아나키스트계열의크론슈타트의수병반란과우크라이나의마호노농민운동에큰관심을가지고있었다. 두사건모두러시아의아나키스트운동과관련이있는움직임이었다. 그는유럽으로가서진상을좀더자세히알아보고, 아울러외국아나키스트와의국제적연대를모색하기위해집회에참석하기로결심한다. 우여곡절끝에그는중국아나키스트의도움으로상하이로거쳐프랑스마르세유에겨우도착할수있었다. 그는곧장파리로가서국제적으로유명한아나키스트들과접촉했으며, 5 월 1 일파리교외에서열린메이데이행사에참가해일본의노동운동에관한연설을한다. 이때경찰에검거되어불법입국자로수배중이라는사실이밝혀지자퇴거명령을받고같은해 7 월일본으로돌아온다. 오스기사가에는이여행에서유럽의아나키스트들과의교류를통해다시금러시아의볼셰비키혁명은아나키즘의원리와근본적으로상충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1923 년 9 월 1 일간토대지진이일어났다. 일본의위정자들은천재지변으로인한정치적위기를모면하기위해계엄령을선포하고“조선인과사회주의자들이폭동을일으켰다”는유언비어를퍼뜨린다. 널리알려진바와같이바로이때군과경찰그리고자경단에의해 6 천명에달하는한인과일본인사회주의자들이대량학살되었다. 박열이고토쿠슈스이처럼다른대역사건에연루되어체포된것도이즈음이다. 그리고이혼란상황에서많은일본인사회주의자와노동운동가들이희생되었다. 그가운데에는일본최고의사회주의운동가인오스기사가에도포함되어있었다. 오스기사가에는어느날아내와어린조카와함께헌병대로끌려갔다. 그들은무참히

다. 하지만평민사시절이후즉아나키스트가된다음에는일본의한국침략을본격적으로비판한다. 아마도정보가부족하여일본을한국의침략자로인식하는데시간이걸렸던것같다.¹⁶

아나키스트가된고토쿠슈스이는중국과한국을침략하는일본의군국주의정책에반기를들고일본에거주하던중국인과한국인들에게우호적인태도를보였다. 그는특히중국의혁명가들과긴밀한협조관계를구축하려했다. 이미재일중국유학생은만여명을넘어섰고, 그들이주로거주하던도쿄지역은일본사회주의자들이가장활발하게활동하는곳이었다. 많은중국유학생과혁명가들은일본사회주의자들의정치집회에참가했으며, 일부는고토쿠슈스이와직접교류했다. 중국동맹회회원이었던장타이엔(章太炎), 장지(張繼), 류스페이, 허쩐(何震) 등이대표적인인물들이다. 이들은 1907 년초부터고토쿠슈스이와만나면서그의영향아래자연스레아나키즘을받아들였다. 같은해고토쿠슈스이는「평민신문」에쓰글에서일본인혁명가와중국인혁명가의결속을다지고, 나아가동아시아여러나라의사회주의자들이연대할것을촉구했다. 그의바람은곧이루어졌다. 중국동맹회의주요지도자인장타이엔이이제안에호응해국제적인단체를조직하려한것이다.

1907 년 4 월 (?)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등의혁명가들은도쿄에서‘아주화친회(亞洲和親會)’라는단체를만들었다. 이단체는동아시아에서처음으로반제국주의를목표로모인국제조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남아있는자료가많지않아구체적인규모와활동을파악하기는어렵다. 지금까지알려진바로는일본에서는금요강습회파의고토쿠슈스이, 야마가와히토시, 오스기사가에등이참가했고, 중국에서는중국동맹회회원인장타이엔, 장지, 류스페이등이참가했다. 그리고인도의망명객과다른나라의일부혁명가들이참여했으며, 장타이엔을회장으로해서인도인회관등에서모임을가졌다고한다.¹⁷

다행히장타이엔이만든것으로보이는〈아주화친회약장〉이남아있어이단체가추구한바를조금은알수있다. 이문헌을보면아주화친회는우선제국주의반대투쟁을제창하면서민족의독립과해방을첫번째과제로삼고있다. 그리고이런과제를이루기위해민족을초월하는아시아인의국제적연대를강조하고있다. 약장은“아시아인으로침략주의를주장하는자를제외하고, 민족주의·공화주의·사회주의·무정부주의자를불문하고모두입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¹⁸ 제국주의에반대하는세력이라면사상에관계없이수용하려는의지가인상적이다. 특히사회주의자단체가민족주의자의참가를허락하고있다는점이두드러지는데, 아마도각나라의특수한사정을고려했기때문으로보인다. 물론민족주의자의범주에침략적인민족주의자는들여가지않는다. 아주화친회는순수한아나키스트조직이아니라진보적인사들의연합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책임자를따로

두지않고, 가입과탈퇴가자유롭다는규정으로보아아나키즘의자유연합 정신이질게스며있었음은분명하다. 활동기간은 18 개월정도로추측한다.

그렇다면아주화친회에한국인은없었을까? 고토쿠슈스이나오스기 사카에는 1900 년대에이미일본에한국인사회주의자가있었다고말한다. 그런데민을만한한일본인의회고를보면, 한인혁명가들은일본인이 참가한다면자신들은아주화친회에참가하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고한다. 이말대로라면강렬한배일감정때문에일본인과의공동전선을거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당시한인의활동을말해주는특별한기록이남아있지 않기때문에이회고에의지해생각할수밖에없다. 만일이시기에한국인이나키스트가있었다면그들은아마도친목회중심의개인적인차원에서아나키즘을수용하고아직조직적으로활동하지는못했을것이다.

아주화친회와같은시기에‘사회주의강습회’가창설된것도 주목할만한 또다른사건이다. 이단체는 1907 년 6 월고토쿠슈스의금요강습회의영향을받아중국인혁명가장지와류스페이등이만든아나키즘단체이다. 그구성원은아주화친회와거의일치하며, 일본총협력자역시고토쿠슈스를비롯한일본인이나키스트들이었다. 이단체는파리에서조직한 ‘세계사世界社’와더불어중국최초의사회주의(아나키즘) 단체였다. 따라서그들이발간한「천의」는같은시기파리에서펴낸「신세기」와더불어중국최초의사회주의(아나키즘) 잡지다. 류스페이가이잡지에쓴〈아주현세론〉을보면고토쿠슈스이처럼반제국주의와아시아연대론을제창하고있어흥미롭다. 그는이글에서중국의독립을맨앞에놓지만중국혁명의문제를사회혁명의범위안으로흡수함으로써편협한종족주의의한계를벗어나있다.

당시장지나류스페이등중국의청년급진주의자들은중국동맹회의정치노선에불만이많았다. 그들은동맹회가공화혁명을주장하지만실은종족주의혁명의수준을넘지못한다고생각했다. 그래서이를대신할새로운혁명이론을모색했는데, 그것이바로아나키즘이었다. 이단체의설립목적에“중국인들은단지민족주의만을알았지민생의고통을살피지않아근본적인혁명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 마땅히사회주의를연구해야한다”는구절이있듯이, 그들은기존의민족주의혁명노선에부정적인태도를분명히했다. 고토쿠슈스이는사회주의강습회의첫번째창립모임에서초청강연을하여중국인들과의유대를과시했다. 그후에도일본인이나키스트들은사회주의강습회에꾸준히참석해강연을하는등활발하게사상을교류했다.¹⁹

중국의청년혁명가들이고토쿠슈스의영향을받아아나키즘사상을받아들이자쑨원이이끄는중국동맹회에분열이일어난다. 고토쿠슈스의직접행동론이일본사회주의운동의분화를촉진했듯이중국혁명가들이아나키즘을수용함으로써동맹회가분열하게된것이다. 중국인이나키

오스기사카에는「노동운동」(이잡지역시몇차례의폐간과복간을거듭했다) 중간호에서도이른바백지주의白紙主義이론을편다. “인생은결코미리기록된완결된책이아니라, 각자가그속에한자또한자기입해나가야하는책지와같은것이다. 인간이살아간다는것, 그것이바로인생이다. 그럼노동운동이란무엇인가? 이문제에대해해답또한마찬가지다. 노동문제는노동자의인생문제다. 노동자는노동문제라는백지로된한권의책을가진사람이다. 그는자신의운동으로한자또한자, 한줄또한줄, 한장또한장스스로써넣어야한다.”그는여기서도반권위주의원칙에따라자신의모든문제에주체적으로대처할것을강조하고있다. 그는개인의창의성·주체성·자유발의를강조하고, 타인의지도·명령·지령에반대했으며, 권위를추종하는복종과망언을배격했다. 이러한원칙은노동운동에서도마찬가지인데각조합의자유발의, 자유함의, 조합간의자유연합을주장하면서권위적우상타파와신질서창조를강조했다. 그에게진정한노동운동이란노조지도자의노선을충실히따르는것이아니라, 노동자스스로이루어나가는것을의미했다. 이러한관점은공산당이주도하는노동운동과는근본적으로다른것이다.³¹

1917 년러시아혁명의성공은동아시아사회에불세비즘의물결을일으킨다. 그리고그영향으로 1920 년대를전후해나라마다공산당이설립되기시작했다. 일본에서는과거고토쿠슈스와함께「평민신문」을창간하고반전운동을전개했던사카이토시히코와야마가와히토시가불세비즘을받아들였다. 그들은일본공산당창당에참가하면서오스기사카에와다른길을걷기시작했다. 하지만이때오스기사카에는러시아혁명을어떻게평가하느냐하는문제에잠시관망하는태도를보였다.

그러던중 1920 년 5 월에는사회주의계열노동조합들이연합해제 1 회메이데이행사를치렀다. 이것은제 1 차세계대전으로인해불경기가심화되자노동자의권익을지키기위해준비한행사였다. 여기서노동자들의단결을위해노동조합상호간의형적유대를지탱해줄상설기관을설치하는얘기가오간끝에간토지방의노동조합동맹회가결성되었다. 그런데이조직안에서아나키스트와불세비키사이에반목이씩트기시작했다. 같은해 12 월에는양파벌의대립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여러사회주의파벌이다시모여대동단결을내걸고일본사회주의동맹을결성했다. 발기인으로는오스기사카에, 이와사사쿠타로같은아나키스트를비롯해사카이토시히코, 야마가와히토시등마르크시스트들을포함한 30 명의저명한사회주의자들이참여했다. 이동맹은기관지「사회주의」를내기도했으나, 다음해 5 월당국의명령으로해산해야했다.

1920 년 10 월오스기사카에는극동사회주의자회의에참석해달라는한인동지의연락을받고상하이로향한다. 중국, 조선, 일본, 러시아등여러나라대표가모인이회의는동아시아에공산주의의거점을만들기위해코민테른이주최한모임이었다. 당시오스기사카에는러시아혁명에깊은

고있었으나, 고토쿠슈스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쟁을 반대하는 내용도 많이 실렸다. 「근대사상」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훗날 중국 최초의 마르크시스트가 된 리따자오(李大釗)도 일본 유학 중 탐독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잡지 역시 1914년 9월에 폐간당했는데, 오스기사카에는 같은해 10월에 다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민신문」을 창간했다. 창간호에서 편집자는 고토쿠슈스이의 사상을 이어받아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당국의 탄압은 여전해 1915년 3월이 신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간되고 말았다. 그후에도 이런 종류의 신문과 잡지의 창간과 폐간 그리고 복간이 반복된다.²⁹ 이 시기에 「근대사상」이나 「평민신문」이란 같은 제목을 단 신문 잡지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당시 「평민신문」 창간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개인적 사색의 성취가 있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의 판단에서 빌려온 것이라면, 그 사람은 마르크스나 크로포트킨의 사상적 노예에 불과할 것이다. 사회운동은 흔히 일종의 종교적 광신을 수반하는 동시에 이런 노예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조와 권위를 거부하는 오스기사카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 절대화하는 것을 싫어했다. 유럽의 아나키즘 철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충분한 경험과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얻은 결론만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실증적 정신으로 평생을 일관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색하고 생활하는 것, 어떤 지도자의 논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듬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스기사카에의 인생관이자 사회관이었다.³⁰ 그는 이미 고토쿠슈스이의 직접 행동론에서 진일보해 아나키즘의 목표와 이상에서 더욱 확고부동한 반권위주의·반권력주의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일본 아나키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다.

오스기사카에는 아나르코생디칼리즘 운동을 활성화해 고토쿠슈스이의 사상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실 그의 시대는 노동자 중심의 아나키스트 운동이 활발한 시기였다. 1919년 8월에 오스기사카에는 동지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창간했다. 이 잡지의 한 논설에서 그는 노동운동이 임금 인상이나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단순한 생물학적 또는 금전적 요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인간 해방이란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는 복종의 습성과 노예적 생활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자본가에게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의 권위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행동이야말로 노동운동의 기초이자 아나키즘 사회의 시금석이라는 주장이다.

스트들은 더욱 근본적인 사회혁명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 동맹회를 개조하려 했다. 그들은 쑨원이 일본 정부에 의해 국외로 추방되자 그 틈을 이용해 동맹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일부 동맹회원의 반대로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이 사건을 중국 혁명이 이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했다. 고토쿠슈스이가 제창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의 연대는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사회주의 강습회와 「천의」는 중국 아나키즘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한편 고토쿠슈스이는 1907년에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 원칙에 따라 직접 행동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정당 문제나 선거 문제에는 뚜렷한 관점을 세우지 못했다. 나아가 아나키즘 사상의 주요한 특징인 국가 권력 부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론적 뒷받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아나키즘과 마르크시즘의 주요 분기점인 혁명 후의 과도기 문제,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부정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일본 내 중국인 아나키스트들도 같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아마도 마르크시스트에서 아나키스트로 전화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그는 크로포트킨의 『빵의 쟁취』를 번역하면서 이와 같은 이론적 한계를 극복한다. 이 책은 공동 소유, 공동 생산, 공동 소비를 내건 아나키즘적 공산주의를 설명한 책으로, 1909년 1월에 일본어판이 발행되었다.

여기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사상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잠시 살펴보자.

크로포트킨(1842~1921)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 아나키즘 이론가이자 활동가이며, 국제적인 지리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1880년대부터 정력적으로 아나키즘 선전 활동을 시작해 광범위한 저작을 남겼다. 특히 1883~1886년 프랑스 감옥에서 저술한 『빵의 쟁취』(1892)와 『전원·공장·작업장』(1899)이 대표작이다. 그 후 영국에서 『현대 과학과 아나키즘』(1901)과 『상호부조론』(1902)²⁰ 등을 출판했다. 그의 사상은 ‘상호부조론’이란 제목에서도 보듯 상호부조주의라고도 불린다.

크로포트킨류의 사상을 두루 일컬어 아나르코코뮤니즘 Anarcho-Communism(공산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하는데, 이용어는 크로포트킨의 동료이자 추종자인 엘리제르 클뤼(Élisée Reclus)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가족·종교·국가와 같은 권위 가소멸하고, 개인의 자유와 욕구에 따라 생활하는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그들은 국가 대신 코뮌을 단위로 하는 자유 연합 사회를 희망했다. 이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였다. 그리고 사유 재산을 철폐하여 모든 재화를 코뮌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도시와 농촌이, 공업과 농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분권 사회였다. 그들은 개인 이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이 충만해 줄 거운 노동이 가능한 곳, 또한 불평

등한교육이낳은정신노동과육체노동의차별이사라진그런세계를꿈꾼 것이다.

크로포트킨은본디자연과학자라서그런지자신의사상을과학적이나나 키즘이라고주장하기도했으며, 아나키즘이론을집대성하기위해노력했다. 어떤사람들은그가바쿠닌의정신을이어받으면서도바쿠닌의파괴의 이론을건설의논리로바꾸어놓았다고평가하기도한다. 크로포트킨의사상은유럽뿐만아니라동아시아에도아주큰영향을미쳤다. 고토쿠슈스 이, 오스기사카에, 리스썰, 스푸, 신채호등이책에등장하는동아시아아나키스트들대부분이크로포트킨주의자라고할수있다.

왜크로포트킨의사상이동아시아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쳤는지이해하려면좀더친절한설명필요하다. 우선그의아나르코코뮤니즘이당시 세계에서가장널리유행한아나키즘이론이자운동이었다는사실을지적할수있다. 따라서동아시아인들도그의이론을자주접했을것이다. 다음으로사상의친근성을들수있다. 러시아의풍토에서썩튼크로포트킨의사상은동아시아의정치·문화·환경과비슷해받아들이기가쉬웠다는얘기다. 예를들어, 윤리학이중심에있는크로포트킨의사회주의이론은유학 중심의윤리정치를추구한동아시아의전통과매우가깝다. 더욱이크로포트킨의사상은과학적연구성과에바탕을둔보편성을강조함으로써군국주의로나아가던일본뿐만아니라전제군주제가남아있던중국이나, 심지어일제의침략에서탈리던한국에서도받아들일만했다. 특히피압박자의 처지에서볼때국제연대라는사상은새롭고매력적인흐름이었음이를림없다.

그렇다면아나르코코뮤니즘은고토쿠슈스이가미국에서영향을받은아나르코생디칼리즘과는어떻게다른가?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은아나키즘과생디칼리즘이결합한것으로, 생디칼리즘에자유연합사상이나강권을부정하는요소가있다는사실에주목한아나키스트들이이사상을아나키즘에접목한것이다. 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들은노동조합을무기로체제를타도하고, 혁명이성공한후에는정부를생산과분배를담당하는기관으로바꿈으로써무계급·무국가사회를만들려고했다. 이사상은프랑스에서등장해남유럽지역으로확산되었으며, 곧국제적인운동으로성장했다. 아나키즘연구자들은생디칼리즘을통해아나키즘이노동운동으로부활했다고평가하기도한다.

아나르코코뮤니즘과아나르코생디칼리즘은사회혁명을달성하기위한방법에서어느정도구분된다.²¹ 보통아나키스트들이사용한혁명수단에는몇가지가있다. 첫째, 테러이다. 그들은테러를통해아나키즘을선전하고동시에민중을각성시켜기존체제에저항하고자했다. 주로혁명의초기단계에서사용하는데, 반란과폭동또는총파업이불가능한상황에서택하는수단이다. 테러행위는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행동을통한선전’수단의하나였다. 우리가여기서기억해야할사실은테러가아나키스트의전유

상을가지고있었다. 두사람모두중국혁명을적극적으로지지했고궁극적으로는초국가주의를지향했지만, 민족과국가문제에대한관점은전혀달랐다. 이런두가지흐름은다음시대에도계속되어개인을맨앞에두는아나키즘과국가를제일로하는국가사회주의로이어진다.²⁷ 두사람의차이점을알면중국과한국에서활동한아나키스트와국가사회주의자의차이를이해하는데도도움이된다.

그런데고토쿠슈스이가반제의관점에서피압박민족의반제국주의투쟁을강조하기는했지만식민지국가의민족해방과독립투쟁에대한인식이부족했다는평가를받기도한다. 서양의제국주의와일본의군국주의를비판하지만동시에피압박민족의민족주의및애국주의사조도부정함으로써서양의원론에만충실했지동아시아의특수한상황을간과했다는것이다.²⁸ 그의반제국주의·반군국주의이론을오스기사카에가완성했다고보는것은그때문일것이다.

대역사건후사회주의자에대한일본정부의탄압은극에달해모든언론집회의자유를빼앗겼다. 이즈음정부의태도는신경과민수준으로, 사회라는글자만들어가면무조건위험하게여길정도였다. 결국정부의지속적인탄압으로말미암아일본의사회주의운동은겨울잠에들어간다. 적기사건과대역사건이라는두차례에걸친사회주의와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탄압이메이지시대사회주의운동의좌절을가져온것이다. 하지만이런탄압사건을계기로일본의아나키즘은내부의체계를다듬어가고있었다.

4. 일본아나키스트운동의재생 - 오스기사카에

대역사건과같은당국의탄압으로말미암아일본의아나키스트들은한참동안침묵을지켰다. 이시카와산시로는유럽으로탈출해 10 여년동안 망명생활을했으며, 야마가타이지도탄압을피해대륙으로건너가중국의아나키스트운동을도와주고있었다. 그러던중적기사건으로검거되었다가먼저출옥한사카이토시히코가몇몇동지들과함께생계유지의방편으로평범한출판사를설립했다. 뒤이어출옥한오스기사카에, 야마가와히토시등이가세했지만얼마동안조용히지내야했다. 이들은적기사건으로옥중에있었기때문에대역사건의풍파를피할수있었고, 그것이어쩌면그들의생명을유지시켰는지도모른다.

그러다가 1912 년 10 월오스기사카에와아라하타간손이「근대사상」을발행함으로써사회주의운동은다시기지를개를킨다. 이잡지는오스기사카에를중심으로하는다이쇼시대일본아나키즘의새로운출발을알리는것이였다. 이는학생과지식인을상대로하는종합교양지의성격을띠

이 사건은 전부 날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었다.²⁵ 만일 고토쿠슈스이가 젊은 이들의 암살 음모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상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토쿠슈스이가 암살 계획을 지휘했다는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대역사건은 일본 정부가 고도의 정치 계산 아래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바로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 당시 고토쿠슈스이가, 가타야마 센 등이 한일 합방에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정부로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 대역사건 만큼 좋은 구실이 없었을 것이다. 대역사건은 그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 대부분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조작된 것들이어서 이런 심증을 더욱 굳히게 만든다. 고토쿠슈스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대역사건은 지금까지 분명한 전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토쿠슈스이의 옥중 생활은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선각자로 각인시켰다. 그는 사형 직전 남은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반역 사상을 기술했다. 옥중에서 변호인에게 보낸 진술서에서는 ‘권력과 무력에 기대는 강압적 통치가 없어지고 도의로 결합된 상호 부조의 공동 사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는 자기 변호를 하기보다는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직접 행동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아나키즘을 오해하는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취조나 공판 과정에서 아나키즘과 테러리즘의 차이점, 사회 혁명의 정당성, 직접 행동론의 의미와 같은 문제들을 성실히 기술하고, 특히 동지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따뜻함을 보였다. 그의 최후의 모습은 메이지 시대 일본 아나키즘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었다.²⁶

아나키스트 고토쿠슈스이의 사상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일본의 국가 사회주의자 기타 잇키(北一輝)와 비교하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의 소재를 개인에 둔 고토쿠슈스이는 혁명의 주체를 계급이라고 보았으나, 권력의 소재를 국가에 둔 기타 잇키는 혁명의 주체를 민족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고토쿠슈스이가 일본과 중국 등 피압박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제창했다면, 기타 잇키는 피압박 민족인 일본과 중국의 동맹을 주장했다. 또한 고토쿠슈스이가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론에 기반해 생존 경쟁을 수반하는 사회 진화론을 비판했다면, 기타 잇키는 사회 진화론에 담긴 생존 경쟁의 관점을 받아들여 부강한 민족 국가·국민 국가 건설을 강조했다. 이런 차이점은 국제 연대 문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앞서 보았듯이 고토쿠슈스이는 자주화 친화 와 같이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동아시아 사회주의자의 연대를 제창했다. 반면에 기타 잇키는 일본이 우선 개조에 성공하고 중국이 민족주의 혁명을 달성하면 일본과 중국이 동맹을 형성하고, 만약 인도가 독립하면 동아시아 연맹을 구축해 최종적으로는 세계 연방을 만든다는 구

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족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자신들의 세력이 미약 할 때는 테러를 즐겨 사용했다. 아나키스트를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반대파들이 이미지를 조작한 결과라는 혐의가 짙다.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들은 테러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도덕성과 희생성을 담보로 테러를 선택했다. 청말 중국의 혁명가들이나 일제시대 한인 혁명가들이 테러를 주로 사용했으며,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도 선호했다. 이 방법은 대중 운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다.

둘째, 선전과 교육이다. 아나키스트들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각 종사회 문화 운동을 통해 아나키즘을 선전하고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그들은 대중이 아나키즘을 많이 알수록 이상 사회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고, 신문이나 잡지 및 서적 발간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아나키즘 사회 건설을 강조했다. 따라서 유학 운동, 학교 건설, 야학 운영, 여성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아나키즘 사회를 실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대 다수 민중의 각성이 없는 한 완전한 아나키즘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믿었다. 어쩌면 교육에 대한 강조는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일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넓은 의미에서 아나키스트 이상론 건설 운동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신촌 운동, 중국 푸젠 지역의 농민 자위 운동, 만주 한족 총연합회 혁명 근거지 건설 운동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총파업이었다.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이 노동 운동과 결합할 경우 개량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염려했다. 하지만 많은 아나키스트들은 노동 운동의 혁명성에 주목해 노동자가 주체가 된 노동 조합을 사회 혁명의 수단으로 보고, 총파업과 같은 경제적 직접 행동을 통해 아나키즘 사회를 실현하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20 세기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아나키스트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불매 운동·태업·파업을 시도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총파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때 아나르코생디칼리스트와 순수 아나키스트들이 대립하기도 했으나, 중국에서는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이 아나르코코뮤니즘에서 분화·발전하여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다소 거칠게 도식화하면, 앞 두 가지 방법이 전통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이라면, 세 번째 방법은 아나키즘이 생디칼리즘과 결합하면서 새롭게 받아들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 세기 초에는 아나르코코뮤니즘과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이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었는데, 고토쿠슈스이의 아나키즘도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노동 조합주의가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토쿠슈스이의 사상은 일본 아나키스트들의 노력으로 동아시아 혁명가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중국인 아나키스트 장지가 독일인

롤러의 『총동맹파업』을 번역해 출판한 것도 이같은 시대분위기를 반영한 다.

앞서도 말했듯이 아주화친회와 사회주의 강습회의 결성으로 출발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의 연대 활동은 그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중국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일본 아나키스트의 활동, 일본과 중국 아나키스트의 지원을 받아 민족해방 운동에 참여한 한인 혁명가들, 아나키즘이 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 조직들, 상하이 노동 대학이나 푸젠 성 농촌 자위 운동에 참여한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의 연합 활동 등이 그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이들의 초국가주의 연대의식은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매우 이채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연대 활동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단편적인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3. ‘대역사건’과 고토쿠슈스이의 죽음

일본에서 아나키스트 운동이 사회 운동으로 자리 잡자 일본 정부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이른바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는 대역사건이 그것인데, 그 배경에는 ‘공개장사건’(또는 천장절사건)과 ‘적기사건’이 있었다.

공개장사건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일본 아나키스트들이 주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06년부터 이와사사쿠타로²² 등이 미국의 아나키스트 알렉산더 버크만(Alexander Berkman)이나 엠마 골드만(Emma Goldman) 그리고 고토쿠슈스이의 영향을 받아 사회혁명당을 결성하고, 기관지 「혁명」을 발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1907년 11월 3일 일황 천장절에 <테러리즘>이란 제목의 인쇄물을 일본 각지에 게시하거나 나눠 주었다. 이것은 ‘일본 황제 무츠히토(메이지 천황을 가리킨다)에게 보내는 글’로 시작하는 협박장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천황이 신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조롱하면서, 천황은 원시인에서 진화한 인류의 한 사람에(인류에서 진화한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천황 주변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협박장의 내용은 러시아 혁무당원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공개장사건은 일본 정부가 한창 진행하고 있던 천황 신성화 작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으므로, 관제당국은 주모자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회주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탄압의 모습은 적기사건을 계기로 드러난다.

1908년 6월 22일 일간 「평민신문」 필화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동지가 출옥하자 이시카와 산시로²³의 주최로 환영회가 열렸다. 행사가 끝날

즈음, 돌연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붉은 천에 무정부·무정부공산·혁명이란 한글자를 새긴 깃발을 올리고 혁명가를 불렀다. 그리고 이적기를 빼앗으려는 경찰과 청년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 충돌로 오스기 사카에, 사카이 토시히코, 야마가와 히토시 등 많은 사회주의자가 검거되어 가혹한 징역형을 받았다. 이것이 이른바 적기사건의 요지이다. 사건이 일어난 후 고토쿠슈스이의 금요강습회는 붕괴되고, 직접 행동과는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받던 사이온지 내각이 물러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실시되었다. 사회주의 출판물은 나오는데도 발행금지를 당했으며, 결국 대부분 폐간되었다. 집회마다 번번이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해산에 불응하면 공권력으로 진압했다. 이와 같은 극심한 통제와 탄압으로 사회주의 운동은 질식 상태에 놓이게 된다.²⁴ 재일 중국인 아나키스트 운동도 치명적이나 타격을 받아 해체일보 직전에 이르렀다.

적기사건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위축되었을 때 고토쿠슈스이는 고향에서 휴양하고 있었다. 그는 곧 도쿄로 돌아와 평민사를 중심으로 「자유사상」을 발간했으나 계속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즈음 그의 생각은 천황제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사실 고토쿠슈스이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천황제를 비판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천황제를 회의했다고 해서 천황을 암살할 생각까지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평민사에 드나들던 젊은 청년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혈기 넘친 청년들은 일본 정부는 물론 천황제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그가운데 몇 사람은 실제로 천황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음모가 정부당국의 울가미에 걸려 든 것이다.

1910년 5월 25일 직공 미야시타 다치가 폭탄을 제조하다 발각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대역사건이 시작되었다. 미야시타 다치, 니무라 다오, 니타 토카시, 후루카와 리키사쿠 등 4명을 검거한 정부당국은 사회주의자들이 폭탄으로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의 검거로 시작된 체포 열풍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수백명의 사회주의자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 가운데 고토쿠슈스이와 그의 아내 간노 스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토쿠슈스이는 원고집필 도중에 갑작스레 끌려갔다. 정부는 형법 제 73 조 위반(대역죄)으로 모두 26명의 사회주의자를 기소해 특별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서두르기 위해 취조나 공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한 26명 가운데 24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나머지 두 명도 중형에 처했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 가운데 12명 다음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사전 계획된 유화 조치도 있었지만, 정부는 형이 언도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고토쿠슈스이를 비롯한 12명을 전격 처형함으로써 적국 민을 다시 한번 경악케 했다. 아마도 국내외에 항의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재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처형을 앞당겼을 것이다.

조세현
동아시아아나키즘, 그반역의역사
2008 년 2 월 25 일

동아시아아나키즘그반역의역사, 책세상

kr.theanarchistlibrary.org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태도는 크로포트킨이나 르클뤼, 그라브등이 연합국 지지파였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중국 아나키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암시하는 바가 많다.

스푸의 민성파는 비록 소수였으나 매우 결속력이 강한 조직으로, 위안스카이 독재 아래서 거의 유일하게 생존한 혁명파 집단이다. 위안스카이 정부의 탄압 때문에 쑨원의 국민당과 장강후의 사회당이 해산한 후에도 스푸의 민성파는 여전히 살아남아 교육운동 (주로 에스페란토어 전파 활동)과 노동운동 분야에서 일정하게 사회주의 운동 세력을 유지했다. 스푸의 죽음으로 중국 아나키스트 운동은 잠시 침묵 상태에 들어갔으나 오래지 않아 신문화운동 시기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스푸가 후대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희생적이며 정열적인 실천 활동 그 자체에 있었고, 그 강한 이미지는 5·4 운동 시기에 청년 아나키스트들의 모범이 되었다. 훗날 청년 아나키스트 황링송 양은 “스푸 선생은 우리의 선각이며, 우리는 스푸 선생의 제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한마디로 스푸주의는 「신세기」 아나키즘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의 사상은 청말 아나키즘과 신문화운동 시기의 아나키즘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스푸의 학생들과 신문화운동

스푸의 죽음을 전후해 중국 사회는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에서 발발한 제 1 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청말 이래 중국 지식인들이 믿고 있던 사회 진화론에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적자 생존식의 진화론에 의문을 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상호부조의 진화론 즉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대내적으로는 공화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위안스카이 독재 및 군벌 정부의 등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한 절망감을 심어 주었다. 당시 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총체적인 사회 문화의 변혁이 없는 한 결코 민주 국가의 이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중국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상 개혁이 아니라 사회 윤리 제도 대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데 공감했다. 더욱이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옛 권위와 투쟁하는 것은 더 이상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 경험에 기반한 실재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신문화운동이 일어난다.

신문화운동 시기 중국 아나키스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피하고 주로 도덕이나 교육 문제와 같은 문화 운동에 전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 정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본래의 특색이

에도군벌정부의압력또한적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이다. 하지만아나키즘이종합적인사상체계이고, 무정부무국가만이그들의최고목표가아니며, 본래인간의자유를방해하는모든권위에저항하는사상이라는사실을 염두에둔다면, 가족이나종교와같은문화적권위들역시국가못지않게중요한타도대상이된다. 따라서그들이문화운동에참여한것은전혀이상할것이없는, 자연스런현상이다.

1915 년 「신청년」의창간으로시작된신문화운동은중국현대사에서새로운이정표가된사건이다. 이시기옛신세기파의구성원이었던리스쥔, 우즈후이, 차이위안페이등은국내에서유법근공검학운동(留法勤工儉學運動: 프랑스에학생과노동자들을유학보내는운동)을전개해스푸사후구심점이없었던중국아나키스트운동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었다. 이운동은민국초기부터꾸준히전개된유학운동인데, 문화교류과정을통해중국사회에아나르코생디칼리즘을널리알렸다. 그리고제1차세계대전에서연합국이승리하자, 적자생존이라는독일식논리를상호부조라는프랑스의논리가이긴것으로받아들였다. 이에따라민족주의와국가주의신념이흔들렸고, 특히부르주아민주주의에실망하고자본주의체제에회의하는목소리가높아졌다. 옛신세기파는앞의유학운동외에중국과프랑스에대학을설립하기도했다. 이런그들의활동은민국시기아나키스트운동의한특색을이루었으며, 20년대후반에는상하이노동대학을건립하는것으로이어졌다.

베이징대학의개혁은신문화운동을대표하는또다른사건인데, 옛신세기파와청년아나키스트들은여기서도활발한활동을펼쳤다. 차이위안페이가베이징대학총장이된후널리선전한‘노동’과‘호조互助’사상은말할필요도없이아나키즘색채가농후한것이였다. 스푸도아나키즘이란노동과호조일뿐이라고지적한바있다. 호조란용어를중국에들여온인물은리스쥔으로, 그의『호조론』(‘상호부조론’을가리킨다)번역본은중국각종잡지에여러번연재되어큰호응을불러일으켰다. 과거엔푸의『천연론』이민족의자강보존에주력했으나윤리와도덕의식의진화문제를소홀히다루었다면, 리스쥔의『호조론』은진화과정에서혁명의의의를강조하고, 인류의도덕문제를강조한점에서거리가있다. 이러한상호부조주의는당시사상계를지배하던경쟁적민족주의즉사회다원주의를비판할수있는요소를가지고있었다. 그후중국각지에서호조란이름을단사회단체나잡지들이등장한것은이새로운사상이얼마나광범위한지지를받았는지를보여준다.

노동이란용어역시지식인과노동자의신분차별을철폐하려고한것으로, 이개념의중심에는육체노동과정신노동의결합을의미하는크로포트킨의교육철학과톨스토이의범노동주의사상이자리잡고있었다. 뿐만아니라이즈음중국사회를풍미했던신촌新村주의·공독工讀주의·공학工學주의사조역시유법근공검학운동은물론호조와노동의정신과도밀접한

관련이있었다. 청년아나키스트들은이런일련의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

당시베이징대학은차이위안페이의요청으로리스펑과우즈후이를교수로초빙했고, 대학안에북경대학동학검학회, 진덕회, 실사實社, 분투사奮鬪社, 북대세계어연구회등아나키즘색채가 짙은소단체가연이어조직되었다. 이가운데전형적인아나키스트모임인실사의주요멤버황링수양과어우성바이는이시기를대표하는청년아나키스트다. 두사람은모두광둥인으로신문화운동이시작되기전부터아나키즘을받아들였다. 황링수양은스푸가창간한「민성」에참여한바있으며, 어우성바이도스푸가만든‘광저우무정부주의동지사’의일원이었다. 이들은「자유록」을발간해젊은이들에게아나키즘을전파했다. 또다른아나키스트위안편잉(袁振英) 역시광둥인으로홍콩에서아나키즘활동을한바있으며, 베이징대학에와서황링수양, 어우성바이와함께활동했다. 베이징대학을중심으로전개된신문화운동에상하이나광저우에서활동하는스푸의제자들이대거참여한데서, 민성과아나키스트들이복상해엿신세기파와결합했음을알수있다. 졸업후황링수양은계속베이징에남아활동했고, 어우성바이는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본거지인광저우로돌아가활동했다.

신문화운동의대표적인잡지「신청년」에적지않은아나키스트글이실린사실도신문화운동과아나키즘의밀접한관계를보여준다. 또한아나키스트는아니지만「신청년」의주요필자로서신문화운동을이끌었던천두슈(陳獨秀), 리따자오, 시엔시엔통(錢玄同), 저우쭈어런(周作人), 루쉰(魯迅)의행적과그들의글들을분석해보면거의예외없이아나키즘의길은흔적을찾을수있다. 그들이내세운우상파괴정신과반국수주의정신은중국아나키스트의반권위주의정신과일맥상통하는것이다.

그후베이징은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중심지가되었으며, 점차전국적으로세력이확대되어중국아나키스트운동의전성기를구가한다. 상하이에서발간한「진화進化」나광저우에서발간한「민풍民風」은대표적인아나키즘잡지이자신문화운동의선전지였다. 그밖에도전국각지에서수십가지의잡지가출판되었고, 50 여개의아나키스트단체가활동했다고한다.⁵¹

당시에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가등장한것도흥미로운일이다. 예를들어, 베이징대학학생이던주치엔즈는「분투」라는잡지에서허무주의철학에기초해개인의분투정신이야말로최고의가치라고주장하면서, 개인의절대자유에다다르기위해서는우주에존재하는모든조직을뒤집어버려야한다는이른바우주혁명을제창했다. 그는과학과혁명을대립관계로설정해논리를전개한다. 즉아나르코코뮤니즘과불세비즘은과학임을내세우지만, 실은둘다철저하지못한혁명이라고비판했다. 그는과학의시대는이미끝났고과학은하나의권위에불과하므로, 본능의충동에따르

는혁명철학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 그의분투파는아마도중국인가운데 가장먼저볼셰비키를비판한그를일것이다.⁵²

중국아나키스트들이기존체제의가장근본적인변화를추구하는급진성을보인다는점에서는다른나라의아나키스트운동과일치하지만, 전통문화와관련해나타나는강렬한문화주의의식은주목할만하다. 소위전통문화에강하게집착하는태도는어설프게나마전통과아나키즘을지속적으로결합하려는시도(천의파)나그와반대로극단적인단절을주장하는배타심리(신세기파)로표출된다. 아나키즘은기본적으로반전통의성향을강하게띤다. 따라서신문화운동시기에제기된반전통의주장에아나키스트가적극적으로가담한사실은그리놀라운일이아니다.

신문화운동이한창일무렵일부아나키스트들은사회혁명을실현하는더욱실제적인방법의하나로노동운동에눈을돌려노동자에게서혁명의가능성을찾으려고했다. 물론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영향때문이겠지만, 제1차세계대전종결과러시아혁명의성공이그들에게좀더투쟁적인실천의장으로눈을돌리게했을것이다. 그들은문화운동을지식인만의운동이라고비판하면서노동자중심의운동을제창했다.⁵³ 그러면서점차운동의무게중심이문화에서경제로 옮겨가기시작한다. 본디그들의문화혁명론이가족과국가, 삼강과봉건계급질서, 공자와종교, 여성과경제자립, 국수문자와봉건문화등의주제를결합해설명한데서도알수있듯이, 정치및경제혁명론과불가분의관계를지니고있었다는점도기억해야할것이다.

이른바 5·4 사건으로촉발된 5·4 운동은다른사회사조와마찬가지로중국아나키스트운동에서도중요한변화를초래했다. 5·4 운동은중국아나키즘의전성기와일치하기때문에어떤사람들은아나키스트들이이운동을주도한대표적인세력중하나라고생각한다. 그런데이운동이일어난때는볼셰비즘이중국에들어온시기이기도하다. 처음에는아나키즘과볼셰비즘을구분하는것조차힘든경우도있었고, 이들이함께운동을전개하기도했으나점차균열이생긴다. 아나키스트에게매우강력한경쟁자가등장한것인데, 특히 1921년 7월중국공산당을창립할무렵그같은정점에이르러아나·볼논쟁이일어났다.

1919~1921년에는진보진영안에서사상논쟁이벌어져자유주의자·국가사회주의자·아나키스트·마르크시스트가각자정치적색채를분명히하고자신의길을걷기시작했다. 문화혁명의기치아래모였던이들이정치노선의차이를분명하게인식하면서갈라선것이다. 이때아나키스트또는아나키즘적성향을띤지식인들도나름대로현실정치에구체적인문제를제기하기시작했다. 하지만중국의아나키스트들은곧바로어려운선택의갈림길에서게된다. ‘구망도존救亡圖存’의위기의식아래형성된정치적민족주의라는거대한흐름과맞서야했기때문이다.

제 3 장 한국: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아나키즘

1. 민족주의와 아나키즘 사이에서

1919 년에 일어난 3·1 운동은 한국 독립 운동사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한국 아나키스트 운동이 출발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을 전후해 한인 독립 운동가들이 여러 급진주의 사조를 받아들였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나키즘이기 때문이다. 보통 한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1920 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했다고 본다. 그전에는 일제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부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사상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호룡은 3·1 운동이 전에 이미 한인 독립 운동가들 사이에 아나키즘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즘보다 일찍 수용되어 사회주의 사상계의 주류를 점했다는 것이다.⁵⁴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 세 나라 모두 20 세기 초에 아나키즘을 수용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3·1 운동을 전후해 한국 아나키스트 운동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일제의 침략에 맞설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구한말 사회진화론이 한때 실력양성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근대화 운동을 이끌었지만, 1910 년 국권을 상실한 다음에는 이 이론에 일제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는 요소가 있다고 자각하면서 민족해방 운동의 하나로 사회주의에 주목한 것이다. 식민지 치하의 국내 한인들이 아나키즘을 받아들일 즈음 일본이나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들도 이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벌이는 활동이 더 활발했다. 그 이유는 국내보다 사상 통제가 약한 국외에서 아나키즘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각 지역 한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는지 일본·중국·한국의 차례로 간단히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1917 년 러시아 혁명을 전후해서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는 한인들 (예를 들어, 한광수) 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나키즘을 포함한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단체를 만들었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3·1 운동 후로, 이때부터 한인 유학생 모임이 친목 단체에서 점차 이념 단체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3·1 운동이 좌절되면서 개량적인 민족주의 운동보다는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선호하게 되었고, 20 년대 한인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를 가장 매력적인 사상으로 바라보았다.

재일한인이나키스트운동은일본이나키스트운동과밀접한관련을맺으며발전했다. 과거중국인혁명가들이고토쿠슈스이의영향을크게받았다면, 한인혁명가들은그의제자오스기사카에에게큰영향을받았다. 수용시기가달랐기때문에이런차이가나타났을것이다. 20년대초한인유학생일부가오스기사카에·이와사사쿠타로같은일본이나키스트와접촉했고, 일본이나키스트단체에하나둘가입하기시작했다. 그리고 1921년 11월에는마침내한인유학생들이독자적으로‘흑도회黑濤會’란단체를조직한다. 이것이일본에서결성된초기의대표적인한이나키즘이념서클이다. 이단체에는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도참가한것으로보인다.

흑도회는일본이나키스트의지도를받아박열, 김약수, 김판권등이결성한단체로, 기관지「흑도」를발행했다. 그들은약자인한인의동정을일본지식인들에게알리기위해잡지를발간하며이잡지는국가적편견과민족적증오없이한일양국민이진정으로융합하는사회를지향한다고밝혔다. 이처럼온건한태도를취하고있지만, 1907년일본인에대한적개심때문에한인들이아주화친회에가입하지않았던것과비교한다면상황이많이달라진것이다. 아무튼일본에서한이나키스트운동은이단체에서출발한다.

중국에서활동하던한인독립운동가들이언제부터이나키즘을수용했는지는분명하지않다. 1911년신해혁명이일어난즈음많은한인들이중국에건너가이혁명운동에참가했는데, 그들가운데일부가이나키즘을접했을것이다. 왜냐하면 1910년대중국사회를풍미했던대표적인사회주의가바로이나키즘이기때문이다. 1913년중국상하이로건너온신채호는고토쿠슈스이의글은물론스푸의글도읽은것으로보인다. 또한 1917년 8월상하이에서건립한신규식의조선사회당은비록이나키스트단체는아니지만, 이미한인사회주의자나이나키스트가많이있었음을말해준다.

3·1운동의영향으로상하이에대한민국임시정부가세워졌다. 하지만곧정치노선의차이가드러나면서민족주의진영은분열했고강경파와온건파가대립하게된다. 이즈음러시아혁명은중국에있던한인운동가들에게도영향을미쳐이나키즘이나불세비즘과같은사회주의사상이본격적으로들어들었다. 어떤사람들은이때부터신채호가이미이나키즘활동을시작했고, 그가상하이에서조직한신대한동맹단과잡지「신대한」에서이나키즘의요소를찾을수있다고생각한다. 1920년에베이징으로온신채호는다음해 1월「천고天鼓」를창간한다. 이잡지는일본제국주의의야만성을비판하고, 무장투쟁과한중연합전선의필요성을강조했다. 여기서신채호는민족주의적역사의식과더불어제국주의와국가주의를부정하고세계대동을주장하는등이나키즘의색깔을선명히드러낸다. 심지어그는같은해에흑색청년동맹베이징지부를만들었다고도한다. 이무렵

한중협회가창간한「광명光明」과텐진에서한인이발간한「투보鬪報」등도아나키즘색채가 짙은잡지라고알려져있다. 이런사실에비추어적어도 20 년대초에는중국에서한인아나키스트들이집단적으로출현했다고볼수있다.

중국내한인들이아나키즘을수용하는데는무엇보다중국인아나키스트와직접교류한것이중요한역할을한듯하다. 예를들어, 신채호는「천고」를발행할때나베이징대학도서관을이용할때중국인아나키스트리스펑의도움을받았다. 그후에도신채호와리스펑은계속해서두터운교분을나눈듯하다. 이러한사실은일제패망후리스펑의도움을받아상하이에조선학전관을설립하고, 이곳에신채호학사를설치한사실에서도드러난다. 또다른한인아나키스트이을규, 이정규형제도중국인들의도움을받아아나키즘이론가로성장할수있었다. 이정규는크로포트킨의여러저작을번역한이론가로‘무정부주의연맹의필봉’이라고알려졌다. 그는이상촌건설운동이나동아시아지역아나키스트의연대에관심이 많았으며, 훗날중국아나키스트가주도한각종사회운동에도적극참여했다. 이정규의형인이을규도같은길을걸었는데, 크로포트킨의『청년에게고함』일부를번역했다. 또한유자명, 이회영, 정화암, 백정기같은독립운동가들도비슷한과정을거쳐아나키즘을받아들였고, 1924 년 4 월그들은마침내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결성한다.

한편러시아의맹인시인으로생코가한인운동가들에게친영향도 주목할만하다. 구체적인내용은자세히알려지지않았지만그가동아시아 3 국의아나키스트와교류를나눈사실은자주발견된다. 에로생코는에스페란토운동(세계어를사용하자는운동)을활발하게펼친인물이다. 당시에스페란토어는민족주의의장벽을허물고국제연대를피하기위해아나키스트들이채용한문화혁명의한수단이었다. 과거일본의오스기사카에, 중국의스푸등도사회혁명의수단으로에스페란토어를전파하기위해노력했다. 한국인으로는이정규가이활동에적극적이었다.

그밖에베이징의대학가를중심으로유기석, 심용해, 오남기, 정래동등이이끈학생활동도있었다. 유기석과심용해등은중국인청년아나키스트와함께흑기연맹을조직하고, 아나키즘이론연구와선전활동에열심이었다. 그들은베이징지역을중심으로활발하게일어났던아나키스트운동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었던듯하지만자세한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 재중한인아나키스트들이펼친운동은일본이나한국보다활발했다. 아마도일본의세력이덜미치는곳이었고, 한인혁명가들이밀집해있었기때문일것이다.

국내에서는이미 19 세기말「한성순보」에서유럽의사회당이나러시아의허무당을소개하는기사가실렸다. 20 세기초에는「만국공보」같은중국잡지나량치차오, 고토쿠슈스이의저술등이들어오면서테러리즘과사회주의를소개하는글들이알려졌다. 중국여행객이나일본유학생도

는국내에거주하던일본인사회주의자들도사회주의를전파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⁵⁵ 아나키즘에대한국내최초의기록은, 신채호가황성신문사에재직하던 1905 년고토쿠슈스이 (당시에그는아직까지마르크시스트였다) 의『장광설』을읽은후에아나키즘에공명했다는것이다. 그후 1917 년의러시아혁명, 1919 년의 3·1 운동이국내에아나키즘을포함한사회주의를전파하는데큰자극이되었음을틀림없다. 하지만초창기한국에서는마르크시즘·볼셰비즘·국가사회주의·아나키즘등을명확히구분하지못하는일이흔했다. 중국사회와마찬가지로갑작스레쏟아져들어오는외래사조들을제대로파악하기란쉽지않았을것이다. 당시사회주의사상은과격사상이라고알려졌다. 조금이라도학식이있다는사람치고사회주의를운운하지않는사람은없었지만, 사회주의를정확히이해하는사람은그리많지않았다.

1920 년 4 월에조직된조선노동공제회 (한국최초의노동조합) 의기관지「공제共濟」, 1922 년 3 월창간된한국최초의사회주의잡지「신생활」을보면아나키즘을소개하는기사가적지않다. 여기에실린기사는주로크로포트킨의아나르코코뮤니즘을소개하는것이지만슈티르너의개인주의아나키즘도다뤄지고있다. 특히조선노동공제회의지도자인고순흙은아나키스트로나중에는일본과제주에서도활동했다.⁵⁶ 이시기에동아일보나조선일보같은신문지상에아나키즘을선전하다체포된사람들 (장도원, 김경주등) 을다룬기사가나타나기시작한다. 1921 년 10 월 (?) 에는일본에서잠시귀국한재일한인아나키스트박열이흑로회를조직했다고전한다. 이런산발적인활동들은결국 1924 년 12 월서울에서곽철, 한병희, 이창식등이흑기연맹을조직하는것으로발전했다. 그러나이단체가창립총회를준비하던중해체되자, 다음해 9 월에는서동성, 방한상등이대구에서진우眞友연맹을조직했다. 이단체는이른바대역사건으로구속된박열을지원하는활동을열심히펼쳤다. 비록일제의탄압때문에조직결성과해체를반복했지만, 국내에서도아나키스트운동이서서히자리를잡아가고있었다.

당시민족해방의논리로아나키즘을받아들인한인혁명가들은일제에저항하는독립운동과반권위주의를주장하는아나키즘사이에서이론상모순이없다고생각했다. 일제의지배를받는한인들에게국가를부정하는것은곧식민지권력타도를선언하는것과마찬가지였기때문이다. 아마도민족해방을추구하는사람들에게‘무정부주의’란용어는일본정부를없애자는말로들렸을것이다. 다시말하면한인아나키스트에게일제에대한투쟁은곧민족해방운동이자아나키즘사회를건설하기위한투쟁이었다. 그리고그들에게민족해방은곧민중해방이자계급해방을의미했다. 사실유럽에서도민족해방문제와아나키스트운동의친밀성이종종나타난다. 예를들어, 푸르동이나바쿠닌도한때민족주의정서를뚜렷이내비친적이있다. 하지만주목할만한것은, 한인아나키스트들이유난히민족주의색채

일본이나중국이나키스트운동에관한본격적인한글연구서는필자가 아는바로는거의없다. 이지역의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지식을좀더얻으려면어쩔수없이외국어로된원문을읽어야한다. 아래의몇권의책이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소개한다.

고마츠류지小松隆二, 『日本アナキズム運動史』(青木書店, 1972)
곤도겐지近藤憲二, 『一無政府主義者の回想』[平凡社, 1972(제 2 판)]

아키야마키요시秋山清, 『日本の反逆思想-無政府主義運動小史』(現代思潮社, 1968)

『日本無政府主義運動史』第 1 編 [(黒色戦線社, 1982(제 2 판))]

『日本無政府主義運動史』第 2 編 [(黒色戦線社, 1979(제 1 판))]

하기와라신타로萩原晋太郎, 『日本アナキズム労働運動史』(現代思潮社, 1969)

쉬산광徐善廣·리우지안핑柳劍平, 『中国無政府主義史』(호북인민출판사, 1989)

뤄쩌路哲, 『中國無政府主義史稿』(북경인민출판사, 1990)

탕팅분, 『中國無政府主義研究』(법률출판사, 1991)

장준蔣俊·리싱즈李興芝, 『中國近代的無政府主義思潮』(산둥인민출판사, 1991)

다마가와노부아키玉川信明, 『中国の黒い旗』(晶文社, 1981)

사가다카시嵯峨隆, 『近代中国アナキズムの研究』(研文出版, 1994)

Scalapino, R.A./Yu, G.T., The Chinese Anarchist Movement (Berkeley: Berkeley Univ. Press, 1961)

Zarrow, Peter., Anarchism and Chinese Political Culture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61)

Dirlik, Arif.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 California Univ. Press, 1991)

Krebs, Edward S. Shifu, Soul of Chinese Anarchism (Rowman & Littlefield, 1998)

를강하게나타냈다는점이다. 뿐만아니라정치나정당에대한혐오감이적었고심지어는정치지향적인모습조차보였다.

일제시대대표적인민족주의자이자아나키스트였던신채호를예로들어민족주의와아나키즘의관계를좀더살펴보자.

2. 신채호는아나키스트인가

신채호(1880~1936) 가일제시대대표적인민족주의자인동시에아나키스트라는것은무척흥미로운사실이다. 민족주의와아나키즘이시기를조금달리하기는하지만한인물에게동시에구현되었다는것은한국아나키즘을이해할때만드시살펴보아야하는중요한문제다. 정도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이런경향이대다수의한인아나키스트에게고루나타나기때문이다.

신채호는충청도의가난한산비집안에서태어나어릴때부터한학을공부했다. 청년이되어성균관에들어간그는 1905 년에박사가되었고, 황성신문과대한매일신보를중심으로구국운동을벌였다. 그러나 1910 년결국조선이멸망하자, 중국과러시아를떠돌며한인독립운동에참여했다. 1915 년에는베이징에서신규식과신한청년회를만들고박은식, 문일평등과함께박달학원을설립하기도했다. 널리알려진바와같이이시기의신채호는애국계몽운동을통해국권회복을추구했다. 그의애국계몽운동은민중계몽을통해부강한독립국가를건설하는것으로, 이런민족주의는유럽의근대적인정치체제를지향하는것이기도했다.

신채호가국수주의관점에서역사를연구하게된것도사대주의적인역사인식을비판하기위해서였다. 그런데국수주의는지배계층의통치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높고, 종족주의로빠져자민족우월주의로흐를가능성도있었다. 일본의사례가이를잘보여준다. 하지만그의국수주의는그런위험으로부터어느정도거리를두고있는듯하다. 아마도민중을교화의대상으로만여기는일부엘리트주의에심취한이론가와달리실제현장에서사상을실천한운동가였기때문에이런균형이가능했는지도모른다.

1920 년대이전신채호의민족주의사상에는제국주의와민족주의를대립관계로인식하며, 제국주의자의침략에대항해민족주의자의저항을정당화하는논리가어느정도마련되어있었다. 이러한그의민족주의는훗날아나키즘에쉽게다가가도록만든한가지계기가된듯하다. 신채호가‘자강自強’에서‘혁명’으로전화한과정은‘민족’에서‘민중’의존재를발견하는과정과어우러진것이였다.

신채호는 3·1 운동의결과상하이에임시정부가수립되자여기에참여했다. 그는임정에서개량적인민족주의노선에만족하지못하고무력항쟁

을주장하는과격파의일원이되었다. 당시그는이승만과안창호가주장한 외교론이나준비론과같은온건노선을비판하고임시정부의전면개조를 주장했지만새로운이론적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사상적으로방황하고 있었다. 신채호가아나키즘에주목한것은이무렵이다. 여기서사상의방 황이란그의자강론(여기서자강은진화의격의적인번역어)에내재된자 기모순을의미한다. 즉생존경쟁과약육강식의국제사회에서강자만이살 아남고약자는도태된다는자강론의발상은조선의부강을위해민중의자 각을요구하는데는유용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강자인일본이약자인조 선을지배하는것을정당화하는논리이기도했다. 이런자강론의모순을넘 어서는데아나키즘은매우매력적인대안을제시한듯하다. 아나키즘의반 강권논리는중족주의의틀을넘어서약소민족의국제연대를통해반제국 주의를주장한다는점에서자강론에서더욱매력적이었다. 나아가암살과 파괴같은폭력수단을공정하는아나키즘에서일제에저항하기위한무기 도발견할수있었다.

앞서말한것처럼신채호가아나키즘을받아들이게된것은중국아나키 스트들과교류하면서부터다. 이들과의접촉을전후해그는크로포트킨, 고토쿠슈이, 스푸의저작들을두루섭렵했던것으로보인다. 특히크로 포트킨의『청년에게고함』이나고토쿠슈이의『기독교살론』, 중국 인의「신세기」나「민성」의여러논설들은그에게깊은인상을남겼다. 그러던중 1922 년겨울의열단단원이자아나키스트인유자명에게서의 열단단장김원봉을소개받고, 그의요청에따라다음해 1 월〈조선혁명선 언〉(일명‘의열단선언문’)을발표했다. 이선언문은널리알려진것처럼 일본제국주의에대항하는선언문가운데가장과격하고급진적인것이다.

“강도일본이우리의국호를없이하며, 우리의정권을빼앗았으며, 우 리의생존적필요조건을다박탈했다”라고시작하는이선언문의핵심은일 제의헌체제를파괴하고조선의새체제를건설하자는것이다. 이를요약하 면다음과같다. “1) 이족통치를파괴하고유적조선을건설한다. 2) 특권 계급을파괴해자유적조선민중을건설한다. 3) 경제적약탈제도를파괴해 민중적경제제도를건설한다. 4) 사회적불균형을파괴해민중전체의행 복을위한제도를건설한다. 5) 노예적문화사상을파괴해민중문화를건 설한다.”신채호는여기서“파괴가곧건설”이라는바쿠닌의원리를채용하 기는했지만, “모든혁명민중속에서시작되었다”는민중혁명론의제창 은, 엘리트주의를비판해평민주의를주장함으로써기존의민중해방이론 을한단계 끌어올린것이다. 또한그가“십만의군대를양성하는것이한발 의폭탄만못하며, 수천장의신문이나잡지가한번의폭동만못할지니라” 고직접혁명을주장한것은이승만의외교론이나안창호의준비론에내재 한엘리트주의를겨냥한것이기도했다.

신채호의〈조선혁명선언〉은한마디로직접행동의방법을채용해의 열단의폭력투쟁을이론화한것이다. 비록 1924 년 4 월에결성된재중국

이해하는기존의해석방법에이의의를제기하고민족주의와아나키즘의밀 접한관련성에주목한다 (『아나키·환경·공동체』에도이논문을일부수 정해실었다). 그리고크림의글은아마도동아시아라는범주를가지고아 나키스트운동을다른유일한글이야닐까싶다. 그는한국아나키스트운동 이 지나치게민족주의적인성격으로말미암아아나키즘본래의모습에서 크게일탈했다고비판한다.

조광수, 『중국의아나키즘』(신지서원, 1998)

중국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연구는외국뿐아니라국내에서도활발하 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일반독자가쉽게구해읽을수있는책은드 물다. 그런이유에서이책은도움이된다. 비록논문몇편을모아놓은것이 어서전체적인흐름을읽기에는조금부족하지만, 그나마중국아나키즘에 관해현재단행본형태로출판된유일한책일것이다.

타마가와노부아키玉川信明, 『아나키즘』(오월, 1991)

만화의형식을빌려아나키즘을간단명료하게설명한책이다. 타마가와노부아키는『중국의흑기黑旗』와같은아나키즘연구서를펴낸작가 로, 여기에서는아나키즘의역사부터현대의아나키즘에이르기까지독자 들이궁금해할만한내용들을간추려소개하고있다.

〈21 세기자유아나키즘〉, 「한겨레 21」(제 279 호), 1999 년 10 월 21 일

21 세기자유아나키즘이라는주제로일곱편의기사가실려있다. 한국 의아나키즘역사와프랑스의아나키스트운동의사례등을소개하고, 현대 사회에나타나는아나키즘의경향을진단하고있다. 또한이문창, 구승회 등과의인터뷰를통해아나키즘과공동체운동, 에코아나키즘에대한소개 도담고있다. 영향력있는주간지에서아나키즘을주제로특집이만들어졌 다는점에서이사상이 21 세기의새로운화두로떠오르고있다는것을실감 할수있다.

<http://dwardmac.pitzer.edu/anarchist-archives>

Anarchy Archives

아나키즘의역사와이론에관한문서창고로, 저명한외국아나키스트 의전기및연구성과는물론그들의저작까지도볼수있다는일종의아나키 스트도서관. 이사이트를통하면유명한국외의아나키즘관련기관및단체 와연결이가능하다.

<http://www.feocities.com/capitohill/1931/links.html>

Other Anarchist Web-pages

각종아나키즘관련사이트가주제별로정리되어있고, 다시주제별로 분류된목록을찾아들어가면더욱상세한내용들을찾아볼수있는아나키 즘맵.

기타도움이되는책들

현대의아나키즘문제를다룬 5 편의논문을실었다. 아나키즘의현재성, 생태아나키즘과문학, 아나키즘의미학, 생태아나키즘과미술, 에코아나키즘등을주제로하고있는데, 주로역사적관점에서아나키즘을다루던방식에서벗어나현재의문제를다루었다.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한국아나키즘운동사』가출판된후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다룬단편적인문들이여러편나오다가 90 년대에들어와젊은연구자들이괄목할만한발전을보여준다. 바로이책이대표적인저작이다. 저자는프랑스에유학해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고, 몇년동안이학위논문을다듬어단행본으로출간했다. 기본적으로학술서적이지만시기별·지역별로아나키즘운동을갈끔하게정리하고있어개설서의성격도갖추고있다.

우드코크, 『아나키즘 (사상편)』 (형설출판사, 1981)

우드코크, 『아나키즘 (운동편)』 (형설출판사, 1981)

국내에번역된대표적인아나키즘이론서를들라면아마도이두권의책을들수있을것이다. 사상편에서는고드윈, 슈티르너, 푸르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톨스토이등대표적인서구아나키스트들의사상과활동을다루고, 운동편에서는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러시아등서구의아나키즘운동을나라별로정리하고있다. 이책과함께, 하기락이옮긴다니엘케랭의 『아나키즘』 (중문출판사, 1985) 을읽는다면서양아나키즘의윤곽은그릴수있을것이다. 참고로국내에서양아나키즘연구자로는이종훈, 김은석, 방영준등이있다.

이호룡, 〈한국인의아나키즘수용과전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최근에나온그의학위논문은주목할만하다. 아직출판되지않았으나풍부한자료를바탕으로사상사의관점에서한인아나키즘운동을상세히다루고있다. 그는한국에아나키즘이수용된시기는 1920 년대전이며, 한국근대사상사에서아나키즘은민족주의, 공산주의와함께제 3 의사상으로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고주장한다. 앞의오장환의저서와함께한국아나키즘연구의현수준을보여주고있다. 또한그의 〈아나키즘〉 [『한국사시민강좌』 (일조각, 1999)] 이란글은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한편의논문으로정리, 요약한것이다. 한국의사례를갈끔하게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자유사회운동연구회, 「아나키즘연구」 창간호 (국민문화연구소출판부, 1995)

서울지역아나키즘연구자들이활동하는국민문화연구소에서출판한아나키즘논문집이다. 이가운데주목할만한글은김성국의 〈아나키스트신채호의시론적재인식〉 과존크럼의 〈동아시아에있어서아나키즘과민족주의〉 2 편이다. 김성국은신채호의민족주의와아나키즘을대립시켜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에는참석하지못했으나, 그전에이미모든한인이혁명운동에참여하자는이른바민중직접혁명론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신채호의아나키즘과관련한논쟁은바로이쯤에서발생한다.

지금까지신채호의민족주의와아나키즘에대해많은연구가이루어졌지만, 여전히몇가지문제는논란거리다. 그중에서도 1) 왜아나키즘을수용했는가라는사상적배경에대한문제, 2) 언제부터아나키즘을신봉했는가라는시점의문제, 3) 신채호의아나키즘을민족해방운동과관련해어떻게설명할 것인가라는평가의문제가대표적인것이다. 이제기존연구의쟁점을간단히정리하고필자의생각을간단히제시하고자한다.⁵⁷⁾

첫째, 신채호가왜아나키즘을수용했는가라는문제를놓고정치적배경에대해서는대체로일치하지만, 사상적배경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정치적배경으로는 3·1 운동의영향으로민중의힘을자각했다는점, 상하이임시정부의분열에대한환멸을느꼈다는점, 독립군의항일운동이난항을겪었다는점, 국민대표회의의실패등을지적할수있다. 그리고그과정에서일부민족주의자의개량주의와공산주의자의사대주의에강한불만을느꼈다는것도포함된다. 그리고사상적배경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사회진화론의내부모순을자각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상호부조론을흡수했다는관점에서해석하는경향이강하지만, 이견이있다.

여기서“(사회진화론에기초한) 민족주의이론의내부모순”에대해서는신용하의정리를참고할만하다. 그는“민족주의와제국주의를사회진화론에의거해모두하나의경쟁의원리로서해석한것은그의제국주의에대한이론적비판능력에근본적인한계를설정하는것이였다. 왜냐하면제국주의를국제간의민족경쟁에서적자·강자·우자·승자로보는것은우승열패약육강식의사회진화론의원리에의거할때에는강권을묵시적으로인정하게되며, 또한제국주의와의외경에서패배한민족의도태를‘公例’로서묵시적으로인정하게되는요소를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⁵⁸⁾라고설명한다. 따라서신용하는신채호가아나키즘의상호부조론을수용하여사회진화의원동력은경쟁이아니라상호부조라고설명함으로써, 민족주의의내부모순을극복하고강권주의와제국주의를철저히비판할수있었다고본다.

신일철도이런관점에동의한다. 그는“신채호의전기자강론에서는자존경쟁을통해살아남은자강의강자만을긍정할뿐, 약자의생존을거의무시해도무방한것이였다. 서구계몽사상에서비롯된이와같은진보사관에서는강자인제국주의의식민지침략을옹인할뿐만아니라약자지배를정당화시켜약소민족의역사의식이될수없었다. 이에그는크로포트킨의상부상조론을수용해그의자강론에서우승열패대신상부상조의원리를도입했다. 그는무정부주의에서일제강권지배를부정할수있는논리와약자의생존권을옹호하기위한상부상조의원리를취한것이다”라고말한다.

그리고 신채호의 “아我와비아非我的투쟁”사관이 “아와비아의상조”에의 한국제적연대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풀이하고 있다.⁵⁹ 그런데 그는 신용하와 마찬가지로, 아나키즘을 추구하면 결국 민족주의를 부정하게 되므로 다시 한번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와는 달리 김성국은 자강론적 사회진화론과 아나키즘적 상호보존의 대립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신채호가 시민적·자강적 민족주의로부터 저항적·혁명적 민족주의를 거쳐 무정부주의에 이른 것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민족주의론의 내부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규적인 무장독립투쟁의 출구가 봉쇄되던 당대의 현실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진화론과 민족주의의 자기성숙과정”이라고 판단한다.⁶⁰ 다시 말하면 식민지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봉건적 사회 내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적 민족주의보다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따른 외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색채가 강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나키즘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신채호가 민족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본다.

둘째, 신채호가 아나키즘을 언제부터 신봉했는가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신용하는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할 때 유자명 등을 통해 아나키즘을 알기 시작했고 이 선언에도 아나키즘적 요소가 다분히 투영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민족주의자였지 아나키스트는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그는 신채호가 아나키스트가 된 시기는 빨리 잡아도 1925년부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시기는 민족주의 사상에 아나키즘의 방법을 포용한 혁명적 민족주의자의 시기였다는 것이다.⁶¹

신일철은 이정규의 회고에 근거해 1923년부터 신채호가 아나키스트임을 자임했다는 사실, <조선혁명선언>에 이미 아나키즘의 민중직접혁명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 역시 <조선혁명선언>을 분석한 결과 “이 선언의 사상적 논조는 어디까지나 이족통치의 파괴에 집중한 민족주의 사상이며 그 투쟁수단으로서 무정부주의적 테러리즘의 채용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선언을 계기로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은 민족에게서 민중에 게로, 국권주의적 국가에서 자유에로 옮겨왔다”⁶²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김성국은 신채호가 1923년 이전에 이미 아나키스트로 전환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신채호가 1920년대 초에 이미 중국 및 한국 아나키스트와 활발히 교류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1920년 초부터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한 시기 사이에 아나키스트가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⁶³ 한편 이호룡은 1920년대 이전에 이미 한인 사회에 아나키즘이 상당 정도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채호 역시 3·1운동을 통해 민중의 저력을 실감해 아나키즘을 적극 받아들였고, 얼마 후 <조선혁명선언>에

이 책의 전반부에 실린 중국 아나키즘에 대한 몇 편의 글 (전통사상과 무정부주의, 유사배전기, 민족주의·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를 다룬 논문)은 참고할 만하다. 마루야마 마츠유키는 저명한 중국 근현대사 연구자로 전통사상과 근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나키즘의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살피고 있다. 만약 류스페이 (천의파) 의 아나키즘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한편 옮긴이 천성림은 류스페이의 사상을 다룬 논문 몇 편을 발표했는데, 그녀의 학위논문 <신해혁명 시기 국수학과 관련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의 후반부에 일부가 실려 있다. 류스페이의 국수주의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지만 그의 아나키즘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무정부주의 운동사 편찬위원회, 『한국 아나키즘 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한국의 아나키즘에 관한 대표적인 고전으로 우선 이 책을 꼽을 수 있다. 이 운동사는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직접 편찬한 것으로 자료집의 성격도 띤다. 내용 가운데 일부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다소 감정적인 문체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국 아나키스트 운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운동사의 전반부에는 일본과 중국의 아나키즘을 소개하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 밖에 하기락의 『탈환: 백성의 자기해방의지』 (형설출판사, 1985) 는 앞의 책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주로 해방 이후 시기를 다루고 있다.

박제균, <중국 ‘파리그룹’ (1907~1921) 의 무정부주의 사상과 실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중국의 신세기파 (파리그룹) 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박제균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학술지에 이와 관련한 논문을 몇 편 발표했다. 학위논문 에 이런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 논문에서 작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세기파의 사상과 활동을 꼼꼼히 파헤치고 있으며, 전통사상과 아나키즘의 관련성, 당시 여러 사회사조와 아나키즘의 관련성, 중국적 무정부주의의 특성 등에 주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박환, <1920년대 재중 한국인의 무정부주의 운동과 ‘탈환’의 간행>, 『만주한인 민족운동사 연구』 (일조각, 1991)

박환, <남화향인 청년연맹의 결성과 그 활동>, 『한민족 독립운동사 논총』 (박영석 교수 화갑기념논총, 1992)

국내 학계에서 비교적 일찍 한인 아나키스트 운동에 주목한 연구자로 박환과 오강환을 들 수 있다. 박환은 아직까지 이 주제를 다룬 독립된 저작을 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소개한 2 편의 논문처럼 중국 내 한인 아나키스트 운동의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 상세하게 분석했다. 그의 글들은 대략 윤곽만 알려졌던 역사사실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했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방영준·김경복 외, <아나키즘과 생태주의>, 『오늘의 문예비평』 1998년 겨울호 (세종출판사)

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들이민족주의고양과국민국가건설이라는시대호를에맞서민족과국가를넘어서는동아시아민중연대를주장한것은매우인상적이다. 비록현실문제에적절한대안과청사진을제시하지못하고원리원칙을고집한것이운동의패인이라고중중지적되지만, 그래도그들이제시한이상주의적전망은오늘날우리에게여전히유효한듯하다. 왜냐하면그들이던진본질적인문제들에대해우리는아직도답을찾지못했기때문이다.

더읽어야할자료들

강만길역음, 『신채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역음, 『단재신채호의민족사관』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1980) 등
 과거한인아나키스트에관한연구는주로신채호개인에게집중되었다. 따라서그의민족주의와아나키즘을다룬글은비교적많다. 모두열거할수는없고, 대표적인논문집으로이두권을소개한다. 1~2 편을제외하면신채호를민족주의자로조명하는글들이다. 현재신채호외에도박열·유자명·이회영·김종진·정화암·하기락·최갑룡등한인아나키스트들의회고록이나전기들도출판되어있어자료로서가치를가진다.
 구승회·김성국외, 『아나키·환경·공동체』 (모색, 1995)
 왜다시아나키즘인가라는문제의식을가지고 7 명의국내아나키즘연구자들이쓴 10 편의논문을실었다. 국내최초의아나키즘연구서라는의의외에도국내학자들이주로어떤문제에관심이있는지를한눈에보여준다는데서도의미있는책이다. 김성국의아나키즘과신사회운동, 방영준의아나키즘의이데올로기적특성, 주원덕의푸르동연구, 이종훈의바쿠닌연구, 구승회의에코아나키즘, 박홍규의아나키즘과자유교육, 박연규의아나키즘미학과상징등이그것이다. 필자들은대부분신진학자이며서울, 대구, 부산등에서활동하는아나키즘연구회회원들이다.
 김경복, 『한국아나키즘시와생태학적유토피아』 (다운샘, 1999)
 한국아나키즘시를연구한작자의박사학위논문과발표한논문몇편을모아만든책이다. 신채호, 권구현, 김화산, 신동엽등의시에나타난아나키즘을작자나름대로의관점에서해석하고있다.
 마루야마마츠유키, 『중국근대의혁명사상』 (예전사, 1989)

서그구체적인사상을표출했다고보고있다. 따라서 〈조선혁명선언〉을집필하기전에아나키스트가된것으로추정한다.⁶⁴

셋째, 민족해방운동과관련해신채호의아나키즘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라는문제를보자. 우선장을병은신채호가아나키즘을신봉한것은민족주의사상과실천적인독립운동을전개하는과정에서채용한일시적인방편이었지, 궁극적으로는민족을포기하고국제주의를지향하는일반아나키스트들의교조적주장과는다르다고얘기한다.⁶⁵ 신용하도민족주의자라는관점에서신채호를파악하기때문에나름대로민족해방운동과아나키즘의관계를서술하면서결국신채호가“만년에민족주의를더욱심화발전시키지않고무정부주의로전환한것은이해하기어려운일”⁶⁶이라고말한다. 이두사람은신채호가서양근대의민족주의를심화발전시키지못하고크로포트킨에게접근해민족주의를근본적으로회의하게된것을안타까워한다.⁶⁷

이에반해하기락과김성국은민족주의와아나키즘을이것이아니면저것이라는양자택일의관계가아니라, 이것으로저것을내설화하는상호보완관계에있는것으로파악함으로써다른의견을내놓는다. 신채호의경우감성적민족주의라는원색의바탕속에아나키즘이라는이념적내실이성숙해갔다고보는것이다. 그들은신채호의민족주의가역사적조건의변화에대처하는과정에서크로포트킨의아나키즘또는혁명적진화론으로성숙한것으로보아, 신채호의아나키즘이야말로그의민족주의가이른최고의단계라고생각한다.⁶⁸ 이런해석의배경에는아나키즘은민족주의를얼마든지포용할수있으며, 처음에는아나키즘이민족주의의틀안에서성장했지만, 나중에는오히려민족주의가아나키즘을통해성숙했다는관점이 깔려있다.

이처럼연구자들은비록몇몇문제에서의견을달리하지만모두‘민족주의’란대명제와관련해아나키즘을설명하려한다. 이와관련해, 영국학자크럼 (John Crump) 의견해를살펴볼필요가있다. 그는한국아나키스트운동을다룬글에서, 일본과중국의아나키즘과비교해볼때한국의아나키즘에는민족주의색채가너무짙다고하면서그원인이일본의식민통치에있다고파악한다. 이점에서는공산주의운동역시예외가아니라고말한다. 하지만이처럼“충격적이며일탈적인”한국의아나키즘은특수한것으로, 한국의아나키즘은민족주의에서출발했고민족주의때문에타락했다고비판했다. 심지어그는아나키즘이식민지영토였던지역에제대로뿌리내린경우가없다고까지생각한다.⁶⁹ 물론서양인의눈에한국아나키스트운동이국제아나키스트운동사에서매우예외적인경우로비쳤기때문에이런분석이나왔을것이다. 사실한인아나키스트의내면에는민족주의의식이나치게강렬하며, 정치지향적인경향까지도내포하고있었다. 따라서크럼의지적은경청할만하다. 하지만우리는서양의아나키즘원론의

жат대만을가지고동아시아사회의아나키스트운동을평가한다면이지역의특수한사정을간과할위험이있다.

아나키스트들은국제주의를분명히옹호한다. 왜냐하면민족주의나국수주의를또하나의권력을생산하려는시도로바라보기때문이다. 그들은기본적으로민족국가란절대다수인일반민중의지와무관하게일부사회엘리트의이해를위해복무한다고믿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아나키스트들은민족해방투쟁이유용하다고믿고있다. 민족해방운동가들이추구하는민족구가의독립이기본적으로는권위적이지만제국주의열강이식민지를억압하고착취하는것보다는낫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여기서우리는근대의민족주의는“영토와국경을확장하는”침략적인제국주의로나타나기도하고, “타민족의간섭을반대하는”민족해방운동으로도나타난다는사실에주목해서민족주의가무척다의적인개념이란사실을받아들여야한다.

서양의민족주의와동아시아의민족주의는각사회나국가가처한특수한상황에따라나름대로제기능을수행했다고볼수있다. 단순히말하면, 유럽의민족주의는보수적인정치이데올로기 - 예를들어파시즘 - 와결합하는경우가많았다면, 동아시아와같은제 3 세계의민족주의는급진적인정치이데올로기 - 예를들어사회주의 - 와결합하는경우가많았다. 즉서양열강의제국주의적위협과봉건사회내부의구조적위기는, 동아시아사회에서양과는크게다른새로운민족주의경향을불러일으켰다는것이다. 여기서우리는민족주의와아나키즘의결합가능성을엿볼수있다. 아나키즘은종족주의적민족주의를반대하는사상이지만, 동시에종족주의를비판해새로운민족주의의해석틀을제시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종족주의와같은좁은의미의민족주의가아닌‘구망도존救亡圖存’의위기의산물인넓은의미의민족주의는 20 세기의시대조류였다. 그넓은틀안에는사회주의든공산주의든아나키즘이든, 또는서양에서들어온그어떤사상이든상관없이수용할여지가있는것이다.⁷⁰ 20 세기동아시아사회에서어떤사조가민족주의란화두에서자유로울수있었는가.

아나키즘이동아시아사회에빠르게자리잡을수있었던이유는사회내부의절실한요구가있었기때문일것이다. 앞장에서언급했듯이그주요한토양가운데하나가진화론이다. 대다수의연구자들이동의하듯근대동아시아사회에가장큰영향을준외래사조는진화론이었으며, 이는당시서유럽의진화론이전세계에서널리유행했다는사실과밀접한관련이있다. 진화론의맥락에서볼때사회진화론이상호부조론으로이행된것은아나키즘이사회진화론의모순을수정하는기능과동시에민족주의를재해석하는역할을담당했다는사실을보여준다.

1920 년대후반신체호는아나키스트운동에대단한열정을보였다. 그는 1927 년 9 월 (?) 동방무정부주의연맹 (이단체의존재는명확하지않

를통해이를저지하려고했다. 이런나름대로의특성에도불구하고일본아나키즘은대체로서유럽과비슷한길을간다. 즉일본사회가서유럽의자본주의를모방해산업화에성공하면서제국주의국가로변모하자, 아나키스트들도이에대항해반자본·반제논리를가지고노동운동 (총동맹파업) 을통한부르주아계급타도와사회주의건설을주장한것이다. 하지만반식민지또는식민지상황에놓인중국과한국은상황이달랐다.

중국에서혁명가들이아나키즘을수용하고처음직면한정치권력은황제중심의전제군주제였다. 따라서이들은군주제를타도하는, 이른바배항혁명을사회혁명의첫번째목표로삼았다. 그런데 1911 년신해혁명의성공으로황제체제가붕괴되었음에도불구하고혁명의내실을갖추기도전에곧바로군벌정치가시작되었다. 이에절망한아나키스트들은중국사회의토대를근본적으로바꾸기위해정치혁명을넘어서문화혁명을생각하게되었다. 그리고신문화운동에적극참여해전통문화를전면적으로비판하는데앞장섰다. 여기서는다덕운동이나교육운동을사회혁명의주요한방법으로채택했다. 물론중국에서점차자본주의가발달하자그들역시눈을돌려노동자와농민의움직임을주목한다.

한편한국은, 일제의식민지라는주권조차없는특수한상황에서아나키즘을받아들였기때문에운동의시작단계부터색다른모습을보였다. 한인아나키스트들은일본제국주의를타도하고민족의독립을쟁취해야한다는숙명적인과제아래민족해방운동의한수단으로아나키즘을받아들였다. 따라서그들의운동은처음부터민족주의사조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 정치지향의색채도비교적농후했다. 또한그들은한국뿐만아니라일본과중국등지에서도활동했기때문에그지역아나키즘의영향도많이받았다. 그래서인지재일한인아나키스트가이론을중시했다면, 재중한인아나키스트들은실천에집착하는경향을보인다. 한편한인아나키스트들은대중운동보다는주로테러와파괴같은폭력수단에의존해운동을전개할수밖에없었다.

이런나라별차이점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의아나키즘은기본정신에서는서양의아나키즘과일치한다. 즉동아시아의아나키스트들은민족주의자나불세비키처럼일부엘리트의지도나일부정치집단의음모로는이상사회를이룰수없으며, 오직민중의자발적참여를통해서만이룩할수있다고굳게믿었다. 따라서그들은선거를통한혁명이나공산당과같은전위조직을부정하고, 오직민중 스스로테러와총파업, 또는교육운동이나이상촌건설과같은방법을통해사회를번혁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그들은정치혁명을부정하고사회혁명을강조했는데, 여기서사회혁명이란정치혁명은물론경제혁명과문화혁명을포괄하는총체적인것으로, 전통문화에대한번혁도포함한다. 본래아나키스트는권위에대항할때어느하나에만초점을맞추는것이쓸데없는일이라는것을알고있었기에전방위의투쟁을추구한것이다.

당시한인이나키스트들이보여준이러한태도는사실상정부와국가의존재를인정한것이였다. 따라서일부이나키스트들은국민당에가입해항일전에참가했으며, 다른일부는공산당의민족통일전선에호응해공산군으로항일전에참가했다. 그들은이런방법으로일제에대한직접투쟁이나설수있었는데, 이런일탈적인행동은일본과중국의이나키스트에게서는찾아보기힘든현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시그들은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자사이에서자신의목소리를분명히내지못했다.⁸⁸

국내에서도 1930 년대이후이나키스트운동은일본의전시동원체제아래서크게위축되였다. 일제의살벌한탄압때문에사회주의단체는대부분지하로숨어들었고, 독서회정도만이겨우명맥을유지했다. 20 년대후반에치열했던아나·볼투쟁역시 30 년대초반까지계속되었으나, 오히려일제에게탄압의빌미를제공해양쪽모두에게막대한손실을입혔다. 1933 년국내이나키스트운동을재건하려는마지막시도도일본경찰의습격으로좌절되였다. 그후이나키스트들은간혹언론활동을펴기도했지만, 더이상역사의전면에부상하지는못했다.

맺는말

서양이나키즘의최고목표는개인이절대자유를향유할수있는이상사회를건설하는것이다. 따라서서양의이나키스트들은인간본성에서우러나오는양심의소리에따라자유를추구했으며, 이에방해가되는모든권위와권력에맞서싸웠다. 그들의눈에인류의자유를억압하는대표적인것은바로국가와정부였다. 동아시아의이나키스트들도서양의이나키즘을받아들여자기나라의정치체제를분석하는과정에서이들과비슷한결론에이르렀다. 하지만그들은개인보다는사회문제에좀더많은관심을나타냈다는점에서서구와는조금다른면모를보인다. 그리고동아시아 3 국사이에도그들이처한상황에따라이나키즘의내용에약간의차이가나타난다. 아마도서구적근대와동아시아 3 국의전통이만나는과정에서빚어진현상일것이다.

일본의이나키스트들이부정하려는권력의대표는천황을중심으로한근대적인천황제였다. 따라서천황제를비판하는것은물론천황개인에대한테러또한멈추지않았다. 그리고일본이한반도와중국대륙을침략하는군국주의의길을걸자반전운동을전개하며, 동아시아이나키스트의연대

다. 어쩌면 1928 년 6 월에조직한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과같은단체일지도모른다) 에조선대표의자격으로가입했다. 다음해 4 월 (?) 에는조선헌정부주의자배이정회의를열고 〈선언문〉 (혹자는동방무정부주의연맹에서발표한글이라고한다) 을작성했다. “세계의무산대중그리고동방각식민지무산대중의피와가죽과살과뼈를짜먹어온자본주의강도제국야수의무리는지금그창자와뼈가터지려한다”로시작하는이선언문은 1) 불순한조선민족운동반대, 2) 모든정치운동부정, 3) 사이비공산전제배척, 4) 공산당의애매한사대주의사상청산등을주장했다. 그는여기서도 〈조선혁명선언〉 과같이파괴와건설의논리를선전하고, 아울러동아시아각국가의동시사발적인혁명을주장했다.

당시신채호는크로포트킨의글이조선의병에가장잘맞는약이라고하면서, ‘조선식이나키즘’을세워야한다고주장했다. 여기서조선식이나키즘이란신채호이나키즘의특징을보여주는것으로다음의글에서그뜻의실마리를찾을수있다. “우리조선사람은매양이해외에서진리를찾으려하므로석가가들어오면조선의석가가되지않고석가의조선이되며, 공자가들어오면조선의공자가되지않고공자의조선이되며, 무슨주의가들어와도조선의주의가되지않고주의의조선이되려한다. 그리하여도덕과주의를위하는조선은있고조선을위하는도덕과주의는없으니이를특색이라칭하면노예의특색이다.”⁹¹ 이처럼그의조선식이나키즘은사대주의를비판하며민족주체성을강조하던과거국수주의적사고의연장선에서이해할수있는독특한것이였다. 민족주의사학을제창할때전제주의와봉건문화를비판하면서도한국인의자주성회복을희망했던것과마찬가지로, 그는이나키즘을수용한다음에도여전히전통문화에대한선별적비판을통해조선의특색과서양의이나키즘을결합하려했다. 여기서우리는류스페이의이른바‘중국적이나키즘’과유사한면을발견하게된다.

앞장에서도잠시언급했듯이, 상하이시적국수파의지도자였던류스페이는전제주의와봉건문화를비판하고중국고대로복귀할것을염원하면서유럽의문예부흥시기가중국에서도재현되길기대했다. 그리고도쿄에서이나키즘을받아들인후에는다시전통적인원리를근대적인가치에결합해서양의자본주의와제국주의를비판하는당시에이나키즘사회혁명을꿈꾸었다. 당시류스페이는국학과이나키즘의결합이라는독특한방법을가지고논리를전개했다, 이런특성은신채호와매우비슷한점이다.

한편신채호의이나키즘은그의문학작품에도나타나는데, 『용과용의대격전』 이대표적인작품이다. 이소설은민중을착취하고억압을일삼는지배자들이사는천국天國과이들로인해고통받는피지배자인민중들이사는지국地國을설정하고, 지배자들의충실한하수인인천국의용‘미리’와민중의편에서서민중혁명을준비하는지상의용‘드래곤’의싸움을그리고있다. 이야기는결국민중의상징인드래곤이상제의아들인예수를죽이고미리의천국을멸망시켜지국의민중혁명을이루는것으로끝난다.

『용과용의대격전』은작가의아나키즘적민중해방론을문학작품속에잘 투영했다고평가받는다. 그런데여기에신채호의종교관이드러나있어흥 미롭다. 그는이소설에서종교란민중의반역을막기위해서사용하는마취제 이며, 공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가종교라는마취제를사용해민중을속 였다고말한다. 과거의성인이라는사람들이바로기득권층의하수인에불 과했다는것이다. 여기서그의반종교주의가돋보인다. 그는특히예수를 민중의기만자, 노예의도덕을선전한자로자주묘사하는데, 이처럼기독 교를집중적으로비판한것은아마도고토쿠슈스이의『기독말살론』의영 향때문인듯하다.⁷² 신채호의반종교론은전통비판과도밀접한관련이있 다.

1927년(?) 동방무정부주의연맹에가입한신채호는선전기관과폭탄 제조소를설치할자금을마련하기위해나섰다. 그는베이징우편관리국에 있던타이완인린빙원(林炳文)과짜고지폐 200매를위조해현금으로찾 으려다 1928년 5월일본경찰에체포되었다. 이사건으로신채호가아나 키스트로서펼친짧은활동은어이없는종말을맞게된다. 그는판례재판소 에서 10년형을언도받아류순형무소에서복역했다. 재판정에서자신은 “의심없는무정부주의자”임을자처하며법정투쟁을벌인신채호는감옥에 서도아나키즘(에스페란토어)과역사연구에몰두했다. 그러나옥중생 활로추위에지쳐병약해졌으며, 결국뇌일혈로쓰러졌다. 출옥을불과 1년반남겨둔 1936년 2월, 그는 57세의나이로차가운형무소바닥에누 워쉴쉴이숨을거두었다. 이로써동아시아의뛰어난아나키스트한사람이 또다시사라졌다.

3. 한인아나키스트들의민중해방운동

일본, 중국, 만주, 조선에거주한한인아나키스트들은 1920년대를 전후해가장활발한활동을벌였다. 지역별로대표적인활동몇가지를살펴 보자.

먼저재일한인아나키스트가운데가장유명한인물은박열(1902~?) 이다. 그가유명해진것은일본과국내운동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기도하 지만무엇보다일본천황을암살하려는‘대역사건’에연루되었기때문이다. 그가 1921년말조직한최초의재일아나키스트조직흑도회는일본의어느 댐공사장에서발생한한인노동자집단학살사건등에관여하면서사회운 동단체의면모를드러냈다. 이즈음박열은 1921년 10월(?) 잠시귀국해 서울에서흑도회를조직하기도했다. 하지만 1922년말에흑도회는박열, 원종린등이이끄는아나키스트계열과김약수등의불세비키계열로분열

남·인도·필리핀 7개국대표 200여명이가입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은동아시아각나라의아나키스트들이단결해국제적연대를강화하고자 유연합의조직원리아래각민족의자주성과개인의자유를확보하는이 상적인사회를건설하기위해매진할것을결의했다. 이연맹은리스쥬이배 후에서지원했으며기관지「동방」을펴낸것으로알려져있지만더이상의 자세한내막은알지못한다.⁸⁶

이러한활동을볼때, 아나키스트들은일부가국민당에가입함으로써 운동에제약을받기도했으나, 그래도현실정치와일정한거리를두면서활 동에매진했음을알수있다. 하지만대략 1929년을기점으로장제스의국 민당이극우노선을건자양자의합작은종결되었다.

그런데중국의사정이급격히변하면서재중한인아나키스트의지위도 많이흔들렸다. 더구나국민당과공산당의양대구도로정계가개편되자한 인아나키스트들은양자택일의기로에선다. 이들과운데일부는중국의원 로아나키스트에게크게의지했으므로그들의활동에적극동참했고, 일부 는독자적인길을걸었다. 그리고 1930년대들어서면서한인아나키스트 들은새로운활로를 모색하는과정에서남화한인연맹南華韓人聯盟을만 들었다. 이단체는민족주의운동이나공산주의운동에비해규모는작았지 만급진적인투쟁은주목할만하다. 20년대후반신채호, 이정규, 이을규, 김종진등이잇달아체포되거나살해당하자, 유기석같은청년아나키스트 가중심이되어만든조직이다.⁸⁷ 그들이출간한「남화통신」에서는과거 와마찬가지로민족주의와공산주의를모두비판했을뿐만아니라, 임시정 부의활동조차세계혁명의관점에서비판했다.

남화한인연맹은주로한중연합투쟁을전개했는데, 몇개의테러조직 을만들어일제와친일본자를응징했다. 대표적인활동으로텐진부두에서 일본기선에투탄, 텐진일본영사관에투탄, 상하이친일정권의왕징웨이 암살기도, 주중국일본대사암살기도, 한인주구옥관빈·옥승빈형제암살, 상하이거류민회부회장이용로암살등을들수있다. 하지만정확히어떤조 직이이런활동을벌였는지는그리명확하지않다.

일제의대륙침략이전면전으로발전하던 30년대중반부터는한인아 나키스트들의관점에도큰변화가나타났다. 과거민족주의자와공산주의 자가연합한민족통일전선에반대하던태도를버리고현실논리에입각해 민족전선에참가하기시작한것이다. 1937년에재중한인아나키스트들 이결성한조선혁명자연맹의모습이이를잘보여준다. 이연맹의회원가운 데유림(柳林)과유자명등은혁명과도기론을내세우며임시정부에참가 해활동했다. 심지어원칙적으로군대를부정하던그들이스스로조선의용 대에참가하거나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같은군대를조직해항일전에참 가하기시작했다.

동운동과농민운동에참여했다. 국민당에가입한우즈후이, 리스쥔등은 국민당극우파의백색테러나불세비키의공격에대비하여중국과한인아나키스트를보호, 지원했다.

하지만원로나나키스트의정당참여는청년아나키스트에게큰충격을 주었고, 그들의반발은만만치않았다. 이미스푸생전에우즈후이와정당 참여문제를가지고논쟁했고, 이시기에는화린(華林), 선쥔지우(沈仲九) 등청년아나키스트와우즈후이사이에도다시논쟁이일어났다. 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상황이어려워지자적지않은청년아나키스트들이국민당에가입했고, 일부는공산주의자로전향해중국공산당에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대다수아나키스트들은여전히신념을지키며아나키스트운동을전개했다.

1920년대후반중국의아나키스트들은일제의대륙침략과공산당의세력확대를저지하기위해동아시아여러나라의아나키스트들과국제적인연대를모색했다. 상하이노동대학건설, 푸젠성지역의농민자위운동,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조직등이대표적인활동이다. 그들의활동을간략하게정리해보자.

첫째, 상하이노동대학은노동운동의이론과훈련을쌓기위해만든대학이다. 우즈후이, 리스쥔, 차이위안페이등중국인아나키스트들이주도했으며, 특히선쥔지우, 우커강(吳克剛) 같은청년아나키스트가실무를담당했다. 중국인외에도한인이정규, 이을규, 일본의이와사사쿠타로등이참여했다. 장제스(蔣介石) 국민정부의지원과통제를받는대학이라는점에서이와사사쿠타로는처음에이대학을건설하는데반대했으나, 이정규등은아나키스트운동의확산을위해순수성에만집착하지말고인식을전환하자는명분을가지고이일을추진했다. 그들은일본의이시카와산시로나프랑스인르클뤼같은저명한아나키스트를초청할계획도세웠다. 상하이노동대학은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국제적연대의실험장이었으며, 교육으로아나키즘사회를건설하자는동아시아아나키스트의오랜집념을담은뜻깊은공간이기도했다.⁸⁴

둘째, 푸젠성농민자위운동은농민운동의하나로, 우크라이나의마흐노식무장자위조직과같은단체를만들기위해시도한것이다. 상하이노동대학에참여한사람들중일부가이농민운동에도참여했다. 이곳에서중국인과한인아나키스트들은토비土匪와공산주의자에게서농민을보호하기위해농촌청년을조직, 훈련했다. 이들이향토조직과무장자위조직을만들고, 각종차지자활운동을추진하도록이끈것이다. 그러나 1928년 토비의공격으로와해되었고, 화교의재정지원이중단되자결국운동을포기했다.⁸⁵

셋째, 1928년 6월에조직한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명실상부한동아시아아나키스트연합체이다. 이단체에는중국·일본·한국·타이완·베트

한다. 이에박열은흑우회黑友會와불령사不逞社를독자적으로만들고, 「불령선인不逞鮮人」이란잡지를펴냈다. 이이름이문제가되자「현사회現社會」로고쳐다시발간했다. 김약수등도따로북성회北星會를조직했는데, 여전히흑우회가압도적으로우세했다.

박열은운동과정에서점차급진적인투쟁방법을수용하면서일본황태자의결혼식에참석하는요인을암살할계획을세우기도했다. 박열일파는더나아가일본제국주의를상징하는천황을제거하는것이한국과일본을위한최상의방책이라고생각하고직접행동을결심했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에갑자기간토대지진이발생한다. 이지진으로 23만 6천명이라는사상자가발생했다. 이때정부는체제위기를벗어나기위해수천명의한인과일본인사회주의자들을무참히학살했다. 그가운데에는일본의대표적아나키스트인오스기사카에가포함되어있었고, 당시박열도예비검속으로잡혀갔다. 그는조사과정에서상하이를통해폭탄을구입한후일본에서테러를모의했다는혐의를뒤집어쓰고심문을받았다. 이사건은대역사건으로확대되어 11명의한인과 6명의일본인이체포되고가혹한처벌을받았다.⁷³

박열은법정에서가장효과적으로국가의규율을동요시키고전국민의가슴을두드려서잡자는영혼을끌어내기위해혼자의힘으로대역사건을준비했다고진술했다. 얼마후그는사형을언도받고복역하던중무기징역으로감형되어장기수생활에들어간다. 그리고박열의옥중투쟁, 박열의일본인연인가네코후미코(金子文子) 의사랑, 가네코후미코의옥중임신설과의문의죽음등술한화제를뿌리며, 이사건은한국인과일본인의기억속에오래도록지워지지않았다.⁷⁴

당시박열의사상은아나키즘과허무주의가혼합된것으로, 한마디로정리하기가쉽지않다. 그는어떤글에서노동을계속하는한노동자를착취하는자본주의사회는유지도리것이며, 일하지않고먹는자도계속존재할것이라면서일하지않고놀고먹는것이현사회를타도하는침경이라고주장했다. 이처럼묘한논리는허무주의적아나키스트에게종종나타나는현상이다. 그는대다수의아나르코코뮤니스트와는달리인간의품성을불신했으며, 개인에대한불신은민중에대한불신으로, 다시테러와파괴를찬양하는논리로이어졌다. 그의동료인김중한도“대우주의존재를부인하는것이대자연에순응하는것이라면부르주아계급을죽이는것도사람에대한자비이며, 자기의생을부정함으로써타인의생을부정하는데서대자연에순응하고다수의사람을구하는결과가된다면타인을죽여도악이아니고도리어선”이라고주장했다.⁷⁵ 이런주장들은허무주의와아나키즘이뒤섞인것으로, 중국인주치엔즈의초기사상을연상시킨다.

또한일제의식민지 지배논리를정면으로반박하던박열은“천황이란무엇인가? 국가란인간의신체, 생명, 재산, 자유를끊임없이침해하고,

유린하고, 겁탈하고, 위협하는조직적대강도단이다. 대규모약탈주식회사이다. 법률은국가라는대강도단과약탈사회의권력을증오하고반항하는자에대한위협이다. 의회는국가라는대강도단의대표자회이다. 국가란이약탈회사주주들의대표자회이다. 천황과국가란이들강도단과약탈회사의우상이며신단이다”라고선언했다.⁷⁶ 함께체포된일본인연인가네코후미코도“천황은일본에서태어난인간에게최대의모욕이며, 천황의존엄성을입증하는것은국민이노예임을의미하는것”이라규정했다.

어떤사람들은일본인의아나키즘이국가주의에반대해천황제부정으로나아간반면, 박열의아나키즘은민족적분노에서출발해천황암살로나아갔다고말한다. 사실박열의법정투쟁과정은보더라도일본인에대한중오심과조선인으로서의자의식이매우강렬했음을알수있다. 하지만그의민족주의적경향만을강조하고, 허무주의와아나키즘의영향을부정하려는이런해석은설득력이부족하다. 그가주도한흑도회의선언에도이미슈티르너의개인주의적아나키즘경향이나타나는데, 이것은박열뿐아니라일본내한인아나키즘에자주나타나는특징이다.

한편이즈음국내에서도윤우열이라는청년이〈허무당선언서〉(1925년)를만들어전국에배포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글에서도신채호의〈조선혁명선언〉이나박열의법정진술과비슷한급진적인논리를볼수있다.

대역사건으로침체했던흑우회는 1926년 5월기관지「흑우」를발행하면서세력을만회하려했다. 흑우회구성원일부는일본흑생청년연맹에가입해함께활동했으며, 여러출판물을통해국내는물론만주와중국까지통신망을구축했다. 흑우회는불령사로, 흑풍회로, 다시흑우연맹으로여러차례이름을바꾸었다. 이즈음재일아나키스트운동은국내의신간회창립을전후해공산주의세력과대결하는양상을띠었는데, 그들의논쟁은결국폭력사태를불러왔다. 한편으로이시기의한인노동자들도아나키즘적노동운동을시작했고, 그들의연대활동은국내에도영향을미쳤다. 여기에서도일본노동운동과마찬가지로아나키스트와불세비키의투쟁이일어난다.

다음으로중국에있던한인아나키스트들은활발한테러활동을벌였다. 그들은독자적인활동도했지만, 쑨원의국민당과같은혁명파의지원을받아암살대를조직하기도했다. 당시대표적인테러단체로의열단이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만주길림에서김원봉이조직한급진단체이다. “천하의정의의사事を맹렬히실행하기로함”을공약 1 조로하는이단체는정의의‘의義’자와맹렬의‘열烈’자를따서이름을만들었다고한다. 단장김원봉은급진적인민족주의자로독립운동의투쟁방법으로테러를받아들였다. 그는“조선총독을죽이기를대대로 5~6명에이르면후계자가되려는자가없을것이고, 도쿄에폭탄을터뜨려매년 2 회이상놀라게하면그들스스로한국통치를포기하게될것”이라고생각했다. 의열단은 1) 조

했다. 1926년에는국가의탄압에맞서기위해최초의전국조직인흑색청년연맹과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을구성했다. 하지만내부의견을조정하는데실패해 1928년에는순수아나키즘을고수하는그룹과생디칼리즘을주장하는그룹으로분열했다. 1931년만주사변을기점으로당국의대대적인탄압이시작되자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더구나파시즘에빠진일본정부는중국본토침략과전쟁이란극한상황으로치달았고, 이에저항하는민족주의열풍이불었다. 따라서국가주의와민족주의에반대하던일본아나키스트의지위는국내외적으로크게약화되었다.

이런상황에서일부아나키스트들은강력한지도력부재로인해아나키스트운동이침체했다고보고, 중앙집권적인조직을건설하려고했다. 그결과 1933년말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이결성되었고, 얼마지나지않는 1934년 1월에는이조직을개편해일본무정부공산당이결성되었다. 그들은중앙집권적조직론과민중독재론을내세웠다. 이것은중앙집권적조직을결성하고, 그조직의지도아래정치투쟁을전개해정치권력을장악한다는것과민중들이이상사회를건설할동안반혁명세력의반격을분쇄하기위해민중독재를실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 비록자유발의와자유토론, 의결에서의만장일치제를내세우고, 자율성의원칙에따라다른단체에게강요하지않는다는규정이있지만, 앞의논리는불세비키의당조직건설과프롤레타리아독재를연상하게하는것으로, 아나키즘정신에서크게일탈한것이였다.

한편재일한인아나키스트운동도 30년대에들어와서일제의통제정책으로말미암아크게위축되었다. 전쟁으로한인노동자의수가증가하면서한때동흥東興노동동맹같은노동단체의활동이두드러지기도했다. 하지만일본정부의좌파탄압조치로말미암아한인아나키스트가발간한「흑색신문」이폐간되는등시련은계속되었다. 결국여러노동조합단체들이차례로해체되었다. 그럼에도아나키스트들은일본의군국주의와애국주의논리를비판하면서아나키스트의자유연합과아나키즘의민중화를끊임없이외쳤다. 또한한인아나키스트들가운데상당수가일본무정부공산당에가입해활동했다. 그들은자신들의견해가불세비키의중앙집권주의나프롤레타리아독재와는다르다고주장했지만이미호소력을크게떨어졌다.

중국아나키스트운동도이미 1924년부터중요한변화를맞아했다. 중국공산당이쑨원의국민당과합작하는이른바‘국공합작’후에원로아나키스트의대표격인우즈후이, 리스펑, 장징장, 차이위안페이등이모두국민당에가입하는이른바‘안국安國합작’(아나키스트와국민당의합작)이이루어졌다. 그들은여전히 스스로아나키스트라고자부하면서국민혁명이란과도를거쳐아나키즘혁명으로나아갈것을주장했다. 그들은「혁명주보」라는기관지를발간하고, 여기서나름대로‘분치分治합작론’또는‘전민全民혁명론’같은새로운이론을제기하며, 국민당의지원아래노

나키즘을 밀어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 보자면, 민족주의 고양과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부응한 공산당은 훗날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아나키즘은 시대의 흐름에 낙오해 실패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나키즘 운동이 사상의 공상성 때문에 실패했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나키즘은 불온쟁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제시했던 주요한 관점들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마르크시스트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중앙 집권적 혁명 정당 권력을 주장한 데 반해 아나키스트는 자유 연합과 분권적인 조직 원리를 제시했다. 그들의 조직 원리가 현실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그들은 불세비즘에 내재된 권위주의적 일당 독재의 출현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둘째, 사실상 일부 엘리트 집단이 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승인했던 마르크시스트에 대해, 아나키스트는 이런 시도는 결국 변질되며 모든 변혁 운동은 반드시 그 운동 주체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민의’ 사회주의를 제창했던 그들의 선언은 의미심장하다.⁸²

셋째, 마르크시스트는 경제 결정론과 역사유물론을 신봉했다. 그들의 결정론과 목적론적 사고 방식은 당시에는 설득력이 매우 컸으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경직된 사고 방식은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한 시대의 승리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과학임을 자랑하는 이론의 독재를 믿느니 차라리 그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20 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다.

넷째, 마르크시스트들은 계급 투쟁이 민족 문제, 여성 문제 같은 사회의 여러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믿은 것과 달리, 아나키스트는 가족·종교·국가 등 모든 권위가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이므로 이들에 맞선 ‘전방위’의 투쟁을 강조했다. 그들은 계급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기존 권력의 복잡한 그물망이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지적들은 아나키스트들이 제시한 이상주의적 전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⁸³

2.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운동의 쇠퇴

일본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오스기 사카에의 죽음에 기점으로 침체기로 들어서지만, 그의 희생 위에 건설된 노동 조합 운동은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

선 총독 이하 고관 2) 군부 (일본군) 수뇌 3) 타이완 총독 4) 매국노 5) 친일파 6) 일제 밀정 7) 반민족적 인사들을 암살 대상으로 정하고, 파괴할 시설물로 1) 조선 총독부 2) 동양척식주식회사 3) 매일신보사 4) 각 경찰서 5) 기타 일제의 주요 기관을 설정했다.

의열단은 활동 무대를 베이징으로 옮겨와 상하이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는 폭력이며, 파괴는 곧 건설이라고 믿었다. 20 년대 초에는 이미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유자명이란 인물의 역할이 주목된다. 바로 그가 신채호에게 부탁해 〈의열단 선언문〉 (앞서 언급한 〈조선 혁명 선언〉을 가리킨다) 을 만들었는데, 이 선언문은 아나키즘과 의열단의 결합을 상징하는 글이다.

의열단의 지도자 김원봉은 1923 년 1 월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오스기 사카에를 만나 도쿄 지부 설치에 합의하는 등 아나키즘 활동에 호감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공산주의에 경도되면서 아나키즘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 그리고 1929 년에 상하이 지부의 의열단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의 활동은 끝났다. 장지락은 자신이 아나키스트 그룹에 가입한 뒤에야 의열단의 단체 생활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아나키즘의 의열단을 지배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들은 굶주린 것만 해도 십여 차례나 암살 파괴 사건을 감행했다.

앞의 의열단과는 성격이 다른 순수한 아나키스트 단체들도 생겨났다. 1924 년 4 월 베이징에서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 자연맹이 조직되었는데, 신채호를 제외와 한 초창기 재중한인 아나키스트들이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정의공보正義公報」라는 기관지를 발행했다고 하나, 원본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927 년까지 그들은 주로 기관지를 통한 선전 활동에 주력했으며, 한인 아나키스트 가운데 일부는 상하이로 진출해 테러 활동이나 노동 운동에도 참여했다.

1928 년 3 월에는 재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 자연맹이 만들어져 그 해 여름 기관지 「탈환」을 발간했다. 우리는 이 잡지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 아나키스트의 생각을 그나마 엿볼 수 있다.⁷⁷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을 ‘되빼앗자’는 의미의 탈환론은 그들의 다음과 같은 구호에도 나타난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자! 왜놈에게 빼앗긴 것은 왜놈에게서! 조선놈에게 빼앗긴 것은 조선놈에게서! 빼앗아 온 모든 것은 영원히 내가 그 주인이다! 탈환 후의 사회는 자유의 무정부 공산 사회다!” 여기서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민족 해방 운동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면서 도그들에 대한 이론적 비판도 병행했다.

「탈환」에서 아나키스트들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대신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세력이라며 민족주의자를 공격했다. 그들은 민족주의에 내재된 배타 심리를 비판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국가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또 다른 반동 권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자와의 연합은 부르주아에게 이용당할뿐, 민중해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민족주의의 비판은 그들과 연합하는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또한 이 잡지에는 러시아의 볼셰비키를 비판하는 글도 실렸다. 그들의 공산주의는 자본을 정부에 집중시키는 어용적, 강권적 공산주의에 불과하며, 진정한 공산주의라면 정부가 아닌 생산단체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런 주장은 물론 아나르코생디칼리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덧붙이자면, 오장환은 탈환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중국 내한인 아나키스트들은 탈환론에서 일제의 조선수탈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조선원위치를 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나키즘의 국가와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을 차용한 것이다. 즉, 조선은 일제가 선전하듯이 소위 문화정치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은 노예의 상태하에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고 자유·평등·박애·상호부조의 생존권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것은 이전의 3·1 운동과 같은 타협적 투쟁 방법이 아니라 혁명적 투쟁 방법을 제시한 이론이다.”⁷⁸

이호룡은 「탈환」과 같은 한인 아나키스트 잡지를 분석하면서 일제시대 민족해방 운동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대 사상 구도로 펼쳐진 것이 아니라 아나키즘이라는 제 3의 사상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그만큼 이런 아나키즘의 민족해방론은 사상사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의 계속된 실패와 내부의 분열이 한인 아나키스트로 하여금 아나키즘 원리에서 이탈해 중앙집권 조직과 민중독재론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해방 후에는 제 3의 사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⁷⁹

아울러 1920년대 후반 만주 지역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아나키스트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만주에서 한인 아나키스트들이 농민을 기반으로 이상 사회 건설을 시도한 것이다. 그곳에는 교민 수십만 명과 많은 독립 운동 단체가 있었고, 일제가 간접 통치를 실시하여 국내에 비해 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이곳 운동의 주역은 청년 아나키스트 김중진이다. 그는 상하이 임정의 분열을 보고 만주를 독립 운동의 근거지로 할 것을 주장한 인물로, 유자명을 통해 의열단과, 황훈을 통해 다물단 多勿團과 접촉을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백정기의 소개로 아나키스트 이을규, 이정규, 정화암 등과 교류했다. 1926년에 텐진에서 이회영을 만난 김중진은 이른바 ‘무정부주의 문답’을 통해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이 문답의 내용을 기초로 만주에서 아나키스트 운동을 시작했다.

김중진은 1927년 10월 만주에도 착해 김좌진을 만났으며, 김좌진의 신민부 新民部를 이용해 아나키즘적 코민 사회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는 김좌진의 지지를 받으며 신민부 개편에 가담해 한족 총연합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혁명 근거지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토의했는데, 크로포트킨

둘째, 개인의 자유와 당의 규율 문제: 아나키스트들은 “개인주의는 아나키즘의 좋은 친구”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절대 자유를 주장하고 공산주의의 집체주의를 포함한 모든 권위에 반대했다. 그 배경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 부조를 적자 생존보다 높이 평가했다. 상호 부조주의에 기초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 것이다. 아나키스트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조직의 규율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를 가차 없이 비판했다. 여기에는 볼셰비키의 민주집중제와 같이 다수가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도 해당되었다. 아나키스트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는 조직을 선호했다. 한편 혁명의 방법으로는 테러, 총동맹 파업에서 교육을 통한 혁명론까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반해 볼셰비키들은 자유란 상대적인 것으로 사회의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절대 자유는 불가능하며, 절대 자유를 주장하는 아나키스트의 선전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혁명 과정에는 권력의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인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혁명의 방법으로는 당의 영도를 받는 프롤레타리아 전체 계급의 통일된 각종 전술로 자본주의를 타도할 것을 주장하며,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결합을 강조했다.

셋째, 생산과 분배 문제: 아나키스트는 경제 조직에서 생산자의 자주 관리 원칙에 따라 이들 생산자들의 조합이나 공장이 생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 통제식 경제 체제에 반대한다. 그들의 경제 원칙은 평등주의에 기초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혁명 후 잠시의 혼란은 있겠지만 노동 자체가 즐거워져 생산력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깔려있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저술했다면, 크로포트킨은 『윤리학』을 저술했다”는 말이 암시하듯이 아나키스트는 경제 문제에서도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중시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자들은 아나키스트의 주장이 자급 자족식 경제 체제의 발상으로 공상에 불과하며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타도한 후에도 결코 자본주의식 대생산 체제에서 후퇴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혁명 후에도 생산력의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에 따른 분배’를 해야지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분배는 공산당이 결정할 사항이었다.

아나·불 논쟁은 이런 이론적인 경쟁이면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사회 변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논쟁의 승패가 바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논쟁이 한창이던 1920년대 전반은 동아시아 아나키스트 운동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얼마 후 볼셰비키의 우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그들의 승리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실 정치의 문제에 그럴듯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 마르크스즘이 그렇지 못한 아

를결성했고아나키스트들은흑로회라는단체를조직했다. 재일한인의경우도흑로회안에일찍부터공산주의자가섞여있었고, 곧이어분열을겪은아나키스트와공산주의자는흑우회와북성회로각각나뉘어각자다른길을걸는다. 재중한인들사이에서는처음에는아나키즘경향이제법강했는데, 1921년상하이에서이동회계열이고려공산당을창립한후공산주의자들이대거등장하기시작했다. 그리고한인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와합작하는것을포기하고재중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같은자신들만의조직을건설하기시작했다. 이런사상의분화과정에서의열단이갈라진것이다.

한인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들을가리켜혁명이라는명분을내세워공산독재를확책하는또하나의사대주의자라고비판했다. 기본적으로자본주의를타도하고사유재산을철폐해야한다는점에서는같은사회주의자였지만, 러시아의볼셰비키에게무조건복종하는태도에는공감할수없었던것이다. 아나·불논쟁이격화되면서한인아나키스트들은공산주의자들을“씨도없이모조리박살내야한다”고믿게되었다. 이런믿음은공산주의자와무력충돌을벌이는것으로나타났다. 만주에서김좌진등이공산주의자에게살해되면서이런감정의골은더욱깊어졌을것이다.⁸⁰

동아시아 3 국의아나·불논쟁은사회환경에따라나름대로특색이있지만, 주요한쟁점은비슷했다. 논쟁의핵심내용을정리하자면대략아래의세가지로요약해볼수있다.⁸¹

첫째, 프롤레타리아독재와마르크스주의국가론문제: 아나키스트는국가란소수가다수를지배하기위해만든것으로인류사회에서죄악의근원가운데하나라고생각한다. 이점에서는부르주아국가든프롤레타리아국가든자유를억압하는강권이라는점에서차이가없다. 러시아의볼셰비키역시교육·언론·출판의자유를억압한다는점에서부르주아정권과다를바가없다. 특히아나키스트들은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관한한조금의양보도허락하지않았다. 폭력으로폭력을제압하는방식은명분이야어쥔본질이같은므로결과부정적이라고믿었기때문이다. 물론프롤레타리아독재를운영하는지도부의존재역시부정했다.

이에볼셰비키는국가문제는고립적인것이아니며물질생산의일정한발전단계에나타나는것으로사람들이임의로창조하거나폐기할수없는것이라고응수했다. 따라서부르주아계급을타도하고계급투쟁을완수하기위해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과도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독재가있어야만부르주아의음모를분쇄할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러시아에서는그것이소비에트이며, 이를이끄는지도부는신경중추에해당된다며그현실적인필요성을공정했다. 볼셰비키는“러시아에서만약크로포트킨의자유조직으로레닌의노동정권을대신한다면, 곧바로부르주아가세력을회복해제정의복고를피할수없을것”이라고단언했다.

의사상에기초한이상촌건설그리고항일운동에서공산주의를배격하고민족주의와연합전선을구축하는방안등을모색했다. 이연합회는중앙집권조직을거부하고자유연합에기초한지방자치조직을만들어서독립운동사에독특한위치를차지한다. 이즈음만주의한인아나키스트들은‘재만조선인무정부주의자연맹’을조직하여잠시장밋빛꿈에젖어들었으나, 곧한인공산주의자의공격을받기시작했다. 특히김좌진이박상실에게저격당해사망하자이운동은위기를맞는다.

당시중국본토에서는한인아나키스트들이만주지역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대량이주하려했다. 그런데만주에서한인공산주의자와아나키스트의분쟁이계속되어여럿이피살되고김종진조차행방불명되자계획은불투명해진다. 아마도김종진은조직내부의분열과정에서피살된듯하다. 더구나일본이만주에서대규모군사작전을수행하자이상촌건설운동은거의불가능해졌다. 결국이지역에서거주하던한인아나키스트들은 1931년 8 월만주를포기하고중국관내로철수할수밖에없었다. 이로써 2 년여에걸친만주의아나키스트운동은끝내실패로돌아갔다. 이운동의실패에심한좌절감을느낀이회영이다시만주로향하던중파렌에서체포돼고문으로희생된것도얼마후의일이다. 한편국내에서는 1924 년과 1925 년에흑기연맹과진우연맹이서울과대구에서각각조직되었다. 하지만일제의탄압으로오래지않아해체되었다. 이처럼남부지방의아나키즘활동은실패했지만, 국내아나키스트운동은다시북부지방으로확산되었다. 그리고 1926~1927 년에북부지방에서조직된아나키즘단체가 20 년대후반의운동을주도하게되었다. 여러단체가있었으나, 평양에서조직된관서흑우회關西黑友會와그들이주도한‘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이대표적인것이다. 관서흑우회는노동운동과농민운동에개입해볼셰비키와의론투쟁을벌이는한편독자적인조직을모색했다. 이에따라노동조합설립, 태업과파업주도, 노동야학개설, 공동작업소운영등을시도했고, 한편으로는전국적인조직망을건설하기위해노력했다. 관서흑우회를주목하는것은, 그들이점차고조되는공산주의운동에대항하기위해전국적인아나키스트단체를조직하려했기때문이다. 이렇게하여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이태어나게된다. 1929년 11 월에각조직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결성한이단체는국내최초의전국적인단일조직으로, 기본적으로공산주의에대항하기위한조직이었다.

당시국내아나키스트들은 1927 년의신간회결성과맞물려아나키즘·볼셰비즘(아나·불논쟁으로약칭) 논쟁에깊이개입했다. 하지만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은그리활발한활동을하지못하고일제의감시를피해곧지하로잠복했다. 그후에도전국적인아나키스트단체를결성하려는시도가몇차례있었다.

제 4 장 아나·볼논쟁과 아나키스트운동의 쇠퇴

1. 동아시아의 아나키즘·볼셰비즘 논쟁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하고 레닌 정부가 들어서자 동아시아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였다.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한 세계 최초의 사회혁명이었기에 사회주의자라면 누구나 이 혁명에 호기심을 가졌고 대체로 우호적인 눈길을 보냈다. 일본의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에도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러시아혁명의 진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혁명이 일본의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은근히 기대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상하이에서 수소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빼앗고 이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볼셰비키혁명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침묵한다. 뿐만 아니라 레닌 정부가 러시아혁명에 적극 참가했던 아나키스트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은 러시아혁명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혁명이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뿐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일본 사회에 볼셰비키가 등장한 것은 아나키스트를 위협하려는 강력한 도전자가 출현했음을 의미했다. 그들의 등장은 곧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을 낳았는데, 이러한 분열은 특히 노동운동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전까지 아나키스트 계열 노동조합과 마르크시스트 계열 노동조합은 이론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단결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운영 방식을 놓고 충돌이 일어난다. 논쟁의 요점은, 전국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자율적인 조합의 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집권적인 통일조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이 깊어지자 일본의 마르크시스트들은 1922년 7월 일본 공산당을 창립하고, 곧이어 좌파 계열의 노동조합을 모아 총동맹을 결성했다. 오스기 사카에에는 이런 행위를 비난하면서 과거의 동지였던 일본 공산당 창설자 사카이 토시히코와 야마가와 히토시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는 메이지 시대 양대 사회주의자였던 가타야마 센과 고토쿠슈스의 결별을 연상시키는 사건이다. 결국 아나키스트 계열의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전국조직을 구축해 나가면서 아나·볼논쟁을 시작했다.

중국에서도 일본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질 무렵 아나키스트와 마르크시스트 사이에서 아나·볼논쟁이 벌어졌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 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가 필요한가의 문제를 놓고 양진영이 맞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 사회는 20세기 초반에 아나키즘을 마르크시즘보다 먼저 수용했으며, 그 결과 아나키즘이 사회주의 사조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갔다. 1911년 신해혁명 후에는 스푸의 노력으로 한때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와 달리 마르크시즘은 아나키즘보다 10여 년 늦게, 즉 레닌의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한 다음에야 중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군벌의 위협에 대항하고 사회혁명을 추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두 파벌은 잠시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의 아나·볼논쟁은 일본과는 달리 노동운동 분야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점이 이채롭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분야에서는 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당을 건설하려는 일부 마르크시스트와 아나키스트 사이에 먼저 논쟁이 일어났다. 1920년 9월 1일 천두슈는 「신청년」에 실은 〈정치를 말하다〉라는 글에서 아나키즘에 반대하는 글을 발표한다. 즉 국가·정부·법률을 단번에 폐지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권력을 집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해 말 그는 광저우의 법정 학교에서 열린 ‘사회주의 비평’이라는 강연에서 아나키즘을 본격적으로 비판한다. 이에 반발한 청년 아나키스트 어우성바이가 곧바로 천두슈에게 편지를 써서 강연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논쟁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도 토론을 벌였으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사상 투쟁의 성격이 분명해졌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아나·볼논쟁이 일어났고, 논쟁은 당시 막싣고 있던 노동운동 분야로 확산되었다. 중국 사회에서는 노동운동조차 아나키즘 계열이 마르크시즘 계열보다 먼저 수용되었고 세력도 강했다. 따라서 마르크시즘 계열이 우위를 차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1920년대 전반기에 팽팽한 대결을 계속하다가 1925년 5월 광저우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노동대회에 이르러서야 겨우 공산주의 노동운동이 아나키즘 노동운동을 앞지를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한인의 경우는 1920년 초에 아나키즘과 볼셰비즘을 거의 동시에 수용했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처음부터 대립했다. 국내에서는 조선노동공제회가, 일본에서는 흑도회가, 중국에서는 의열단이 각각 분열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1922년 여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조선노동공제회를 개조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얼마 후 공산주의자들은 조선노동연맹회